

미래를 준비하는 국기원,
태권도를 대표하며 세계로 나아갑니다.



복간사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 최창신



안녕하십니까, 국기(國技) 태권도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탄생과 생동의 계절인 봄입니다. 만물의 약동에 절로 경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찬란한 봄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오랜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셨습니다. 7년 4개월 동안 생명이 가불거릴 만큼 두꺼워지던 허물을 벗고 이제 밝은 빛을 한껏 받아들일려 합니다.

『태권도』지(誌)! 얼마나 다시 만나 보고 불러 보고 싶었던 이름인지 모릅니다. 꼭 47년 전, 1971년 4월에 첫 얼굴을 내비쳤던 『태권도』가 거닐어 온 외길을 잘 아는 모든 분께서 한결같이 느끼는 감정일 듯 싶습니다. 『태권도』가 창간호부터 줄곧 지키려 애썼던 소명 의식은 한국 태권도가 겪는 영광과 풍파의 세월을 함께하려 함이었습니다. 역사, 그 도구인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 한 정신의 산물이 곧 『태권도』였습니다.

‘어제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의 거울을 만들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태권도』의 좌우명입니다. 이번 복간호를 내며 제호와 서체를 창간호와 똑같이 한 데서도 어제 → 오늘 → 내일 → 어제의 순환이 가르치는 역사의 깨우침을 기꺼이 따르려는 『태권도』의 진정성을 다시금 엿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도 태권도는 오늘날 경기로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세계 스포츠계 선두 주자의 반열에까지 자리매김했습니다. 남북 태권도 교류는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며 전 세계에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태권도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이 태어난 『태권도』는 이런 시대의 변화와 진보에 발맞춰 한 알의 씨앗이 되려는 열정을 불사르려 합니다.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헤쳐 나가려는 『태권도』가 밝아 가야 할 운명의 길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권도』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한국 태권도가 무성한 잎과 꽃을 피우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REISSUE

- 004 **복간사**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축사

- 012 도종환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 013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 014 조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 015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 016 오현득 국기원 원장
- 017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 018 표지로 본 『태권도』 발자취

EDITOR'S LETTER

- 020 『태권도』,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할 때

PROLOGUE

- 022 찬란한 봄에 찾아온 반가운 그대, '태권도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바람을 가른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까지
들리는 듯하다.
한껏 힘을 내뿜는 발차기는
생동감마저 자아낸다.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발차기다.



030



038



066



092

태권도
TAEKWONDO

vol.167 | 2018 | 04 · 05

SPECIAL PROJECT

-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 024 도장 활성화, 태권도를 살리는 묘약
- 026 이야기로 보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도장 지원 사업 <상>
- 030 도장 경영 패러다임이 도장을 살린다
- 034 도장 탐방 <1> ITC 성인태권도장 'ITC 성인태권도장', 성인 태권도에 비전을 제시하다

ISSUE

- 038 태권도,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제정되다
- 062 남북 태권도, 평창에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다
- 06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정책 입안

OUR FAMILY

- 066 <1> 경기도태권도협회 경기'행복 공동체' 추구하는 전국 최고·최대 시도 태권도협회
- 069 <2> 한국실업태권도연맹 15초를, 다득점제, 5인조 단체전 등 태권도 경기를 대변화 이끌어

COMPETITION

- 072 신인 등용문 종별 선수권 대회, 치열한 각축전 펼쳐

PLAYER OF THE MONTH

- 092 『태권도』 선정 2·3월의 선수 강보라 '태권 소녀', 청춘의 나라를 활짝 펴고 비상하다

TRAINING

- 094 사진으로 배우는 태권도 기술 <1> 돌개차기·뒤후려차기·뒤차기·나래차기



아주 특별한
태권도장 만들기

한도감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



우리 태권도장은 지도자와 관원들이
함께 지구촌 아동을 후원하여

아동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 KTA
KOREA TAEKWONDO ASSOCIATION

World Vision

SPECIAL REPORT

- 040 최창신호, 격랑을 헤치며
희망봉에 닻을 내리려
- 042 INTERVIEW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새로운 태권도 문화 창출에
온 힘을 쏟으려”
- 046 최창신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다

COLUMN 최창신호에 바란다

- 048 종주국 협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 049 행정체계 효율성 제고해
순항 위한 동력 확보하자

NATIONAL TEAM

- 050 부른다, 가자, 그리고 포효하자!
-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겨루기 선수권 대회**
- 052 한국 태권도, 아시아를 또다시 호령하리라
- 055 INTERVIEW
김종기 한국 겨루기 국가대표팀 감독
“종가의 자존심에 걸맞은
결실 올리겠다”
-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 056 한국의 빛나는 금빛 연기,
호치민을 수놓는다
- 059 INTERVIEW
송남정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아시아 품새 발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결실을 올리기를”

INTERVIEW

- 060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소통과 화합으로 태권도가 진흥할 수 있는
밀알 되겠다”

PHOTO ESSAY

- 076 ‘꽉 찬 허공, 하나 된 태권도!’
- 078 흥매화와 왕소군의 춘래불사춘



태권도
TAEKWONDO

vol.167 | 2018 | 04 · 05

HISTORY

- 080 한국 태권도의 자취를 좇아서 <1>
국기원 건립에 얽힌 비화
- 083 사진으로 보는 그때 그 시절 <1>

REMINISCENCE

- 084 영광의 그 순간 <1>
1988 서울 올림픽 태권도
남자 밴텀급 금메달리스트 지용석
- 087 1988 서울 올림픽과 태권도

VISION & TREND

- 088 태권도, 가치와 문화를 입힌
STORYTELLING(스토리텔링)

TREASURE WAREHOUSE

- 098 애장품을 소개합니다 <1>
강신철 남창태권도장 관장의 ‘황칠 도복’

PROPOSAL

- 100 이종관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본부장
태권도 사범의 소임
- 101 한규인 전 『태권도』 지(誌) 편집인
『태권도』 지 복간에 드리는 고언(苦言)

OUR WORLD

- 102 YOUNG'S EYE 대학생 명예 기자 마당
- 106 TOPIC 태권도 수련생들,
이중 격투기에 도전하다

MISCELLANY

- 108 MINI NEWS 시도 협회 통신원 마당
- 110 RECORDING ROOM
- 112 CALENDAR
- 114 PUZZLE



한도장 한생명 살리기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월드비전이 함께 태권도장과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아동을 후원으로
결연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는 태권도인들의 글로벌 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참여한 도장에서는 '기아체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한 도장 한 생명 살리기 혜택

- 우리 도장과 해외의 한 아동이 1:1로 결연을 맺게 됩니다.
- 후원아동의 사진, 편지, 소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아동을 위해 지도자와 모든 관원들이 함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아체험, 세계시민교육, 글로벌 친구맺기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나눔과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태권도장에게 드리는 '인증현판'을 보내드립니다.
- 지도자에게는 아주 특별한 '나눔도장 KIT'을 제공해 드립니다.

나눔도장 KIT란?

- 한 도장 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한 태권도장의 지도자에게 발송해 드립니다.
- 아동 포스터, 체험활동 지도자 가이드북, 카드 USB(영상자료모음, 가이드북, 교육자료모음, 각종 문서자료), 비전스토어 현판



아동 포스터



체험활동
지도자 가이드북



카드 USB



비전스토어 현판

신청 방법



- 전화(월드비전 02-2078-7000) 신청
- 태권도장명, 주소, 대표자 정보 등
- 해외아동후원(매월 3만원) 정기후원 등록
- 후원아동 자료 및 나눔도장 KIT 우편 수령 후, 각 도장의 일정에 따라서 모금활동, 교육활동 진행



발행인 최창신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 회장

편집인 서완석 전 국민일보 체육 전문기자

편집장 최규섭 전 일간스포츠 편집국 부국장

편집위원 김창완 태권도신문 편집국장
고진현 스포츠 서울 편집국 부국장

자문위원 도장 ▶ 장권(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최훈민(가천대학교 강사)
학교 ▶ 김종현(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임신자(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과장)
경기·심판 ▶ 김경일(대한태권도협회 경기위원장)
이종관(대한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지도자 ▶ 김종기(겨루기 국가대표팀 감독)
권오민(코치협의회 회장)
시범 ▶ 이규형(전 국기원 원장)
이춘우(국가대표 시범단 단장)
언론 ▶ 정태화(한국체육언론인회 사무총장)
정희돈(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시도 협회 통신원

임성수(서울), 김도호(부산), 전종열(대구), 박종석(인천), 고남기(광주)
강정덕(울산), 강성현(세종), 심덕진(경기), 한성진(강원), 김영근(충남)
양희락(전남), 장태영(경북), 백성경(경남)

대학생 명예 기자

경희대학교 ▶ 김민서, 김수진, 박진주, 박해진, 정혜나
계명대학교 ▶ 정준우(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 최성욱
용인대학교 ▶ 안정현, 이태성
전주대학교 ▶ 공찬욱

등록번호 송파, 마00047

발행처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방이동)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TEL 02-420-4271~3

발행 연월일 2018년 4월 5일

등록 연월일 2004년 12월 7일

제작 제이앤제이미디어

한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태권도 전문 잡지 『태권도』가 겨울
잠에서 깨어나 다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결같이 독자의 곁에서 벗으
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격월간)마다 여러분을 찾아 한국 태권도의 삶이 숨 쉬는
생생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 『태권도』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태권도』에 실린 글·그림·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복사 및 전재를 금합니다.

*Peace is more
Precious than
Triumph*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태권도』지(誌)의 복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복간을 위해 애쓰신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권도 최초의 기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태권도』지는 1971년부터 2010년까지 거의 40년 간 이어온 태권도 전문지입니다. 이 전문지는 태권도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의 기술과 이론, 당시의 태권도 정책과 세계화 과정까지 태권도의 모든 역사를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간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영국 문학가 버지니아 울프는 “기록되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마찬가지로”라고 했습니다.

『태권도』지가 오늘의 태권도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태권도 의궤를 만드는 일이고, 후대를 위한 귀중한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태권도』지가 기록 문화로서 그동안 보여 준 의미와 역사적 가치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넘쳐나는 인터넷 정보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 속에서 『태권도』지가 자신만의 위상을 잘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태권도가 더욱 많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태권도』지의 복간을 축하드리며, 이번 복간을 계기로 대한태권도협회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권도』지와 대한태권도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 0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친애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발전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의 다양한 소식과 생생한 현장,
그리고 진한 감동을 전하게 될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지(誌)의 복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는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중적 무도 스포츠로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2000 시드니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첫선을 보인 이후 대한민국의 스포츠 강국 도약에
기여하였으며, 올림픽 핵심 종목으로 자리 잡아 전 세계인들에게
태권도와 한국 체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국기 태권도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 민간 잡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태권도』 지의 복간을 환영하며, 『태권도』 지가 태권도를 대표하는 전문 잡지로 자리매김하여
선수과 동호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여
태권도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페어플레이로 대변되는
스포츠 정신을 널리 보급하여 태권도는 물론 대한민국 체육이 밝고 건전하게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태권도』 지의 복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창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국민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대한체육회 회장
이 기 흥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가 설립된 지 벌써 반세기가 훨씬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권도는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나아가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도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태권도의 위상은 한국 스포츠의 발전과 궤를 같이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사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계의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교류되던 『태권도』 지가

7년 4개월여 만에 복간된다 하니 정말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복간을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태권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태권도는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 반열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지구촌 가족이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태권도』 지의 복간을 통해 한국 태권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기록하며,

새롭게 나아가야 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태권도계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본지에 담아 한국의 태권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시리라 믿습니다.

태권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태권도를 통해 지구촌 가족을

하나로 묶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태권도』 지 복간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8. 04.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재기

* 축 사 *

Vol.167 | 2018. 04·05 015



안녕하십니까?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정원입니다.

먼저 『태권도』 지(誌)의 복간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복간을 위해 애쓰신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 지의 복간은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분들의
태권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1971년 창간된 『태권도』 지는 태권도의 비약적 성장과 태권도를 세계화하는 데 지대한 구실을
해 왔기에, 앞으로도 『태권도』 지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태권도』 지는 늘 열린 시각을 통하여 태권도계의 전반적 소식을 굴절 없이
올바르게 전달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그동안 『태권도』 지가 기록해 온 태권도 역사는
후대에 남길 중요한 유산이고, 나아가 태권도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권도』 지의 복간은 전 세계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도 태권도가 더욱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태권도』 지의 복간을 축하드리며,
대한태권도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조 정 원



존경하는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 여러분! 그리고 『태권도』 지(誌) 독자 여러분!
우리 태권도 역사의 발자취를 담아냈던 『태권도』 지의 복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47년 전인 1971년, 『태권도』 지는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당시 태권도 원로들께서는 뜻을 모으고 힘을 집약시키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태권도 모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화해야 한다는 일념이 그분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뜻은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이라는 중추적 조직의 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태권도』 지는 창간됐습니다. 『태권도』 지는 국기원(태권도 중앙도장) 준공과 개원,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관(館) 통합,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등 태권도 발전의 토대가 됐던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내외 대회와 참가 선수들의 활약상에서부터 태권도 심사, 연수의 변화 과정과 태권도 정책, 사업 추진, 그리고 입안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에는 『태권도』 지가 태권도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 수단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태권도계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큰 교훈을 얻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권도』 지 복간은 태권도 발전의 재도약을 위해 힘찬 비상을 꿈꾸며 날갯짓을 준비하는 태권도계에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간과 복간을 반복했던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으나,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태권도』 지가 이번 복간을 기점으로 영원토록 명맥이 유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일반 대중에게 태권도를 널리 홍보하고 대한민국 태권도 가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은 물론 사실 그대로의 태권도 역사를 기록하는 소임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권도』 지 복간을 축하드리며, 이번 복간을 위해 헌신하신 최창신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국기원 원장
오 현 득



최창신 대한민국태권도협회 회장님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태권도』 지(誌) 복간을 위해 애쓰신 집필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1971년 창간된 『태권도』 지는 태권도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태권도』 지가 복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태권도』 지가 태권도계 소식을 전문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며 모든 태권도인과 비태권도인에게서도 사랑받는 소식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태권도진흥재단 5대 이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취임사를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자리에서나 비중 있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태권도의 비약적 성장과 국제 스포츠계에서 높은 위상은 풍찬노숙하며 세계로 진출한 1세대 사범님들의 공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말입니다. 『태권도』 지를 통해 1세대 사범님들께서 태권도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와 해외에 태권도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흘리신 피와 땀 그리고 그 열정이 복간을 계기로 더 널리, 더 많이 알려지기를 희망합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국립 태권도박물관 등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 1세대 사범님들의 유물 수집 및 전시를 비롯하여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 사업을 통해 태권도 발전에 공헌하신 원로 사범님들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 태권도 발전과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태권도원을 찾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원로 사범님들의 열정과 노력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창신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민국태권도협회 관계자 및 『태권도』 지 복간에 애쓰신 모든 집필진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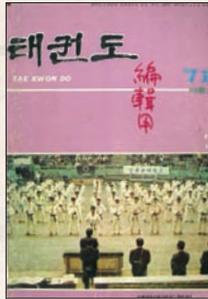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 상 욱



표지로 본 태권도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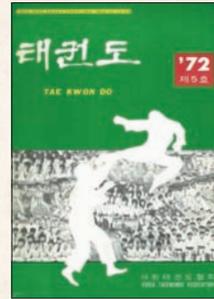
창간호



1971년 여름호



1972년 제4호



1972년 제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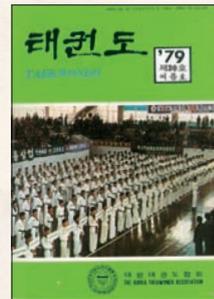
1973년 제7, 8 합본



1974년 제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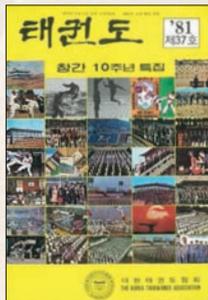
1977년 제23, 24 합본



1979년 제30호



1980년 제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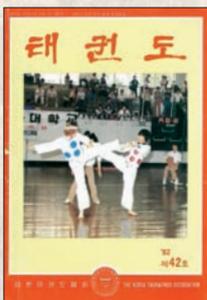
1981년 제37호



1981년 제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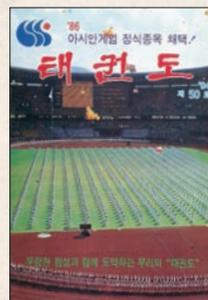
1982년 제40호



1982년 제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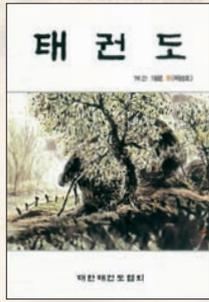
1984년 제48호



1984년 제5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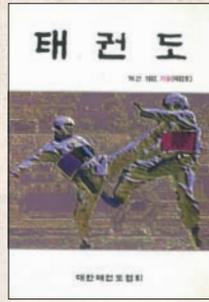
1990년 제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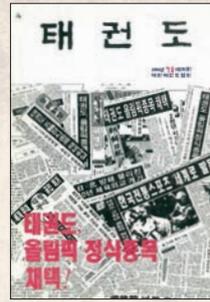
1992년 제80호



1972년 제81호



1992년 제82호



1994년 제90호



1997년 제9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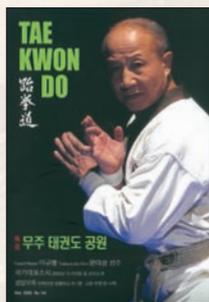
1998년 제1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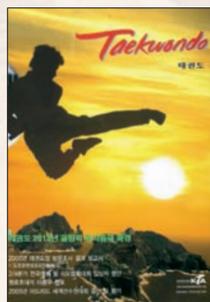
1998년 115호



2004년 제143호



2005년 제144호



2005년 제145호



2005년 제146호



2006년 제149호



2006년 제150호



2006년 제15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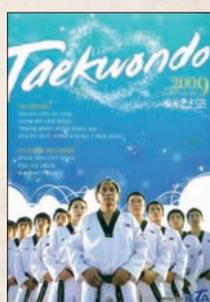
2007년 제154호



2009년 제158호



2008년 제162호



2009년 제163호



2010년 제165호



2010년 제166호

『태권도』,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할 때



1990년대 후반의 일로 기억된다. 당시 국내 태권도계에 갑자기 ‘콘텐츠’ 바람이 불었다. 어린이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일선 도장에 교육 프로그램 고갈(枯渴)이 왔다는 것이었다. 많은 도장들이 공놀이, 줄넘기 등 놀이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도입하면서 태권도 체육관이러기보다 마치 학교 체육시간을 방불케 했다. 어린이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이 다변화, 다양화하지 않고는 수련생의 니즈(Needs)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일선 도장에 불어닥친 것이었다.

사범들은 대한태권도협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전문가와 직원으로 연구팀을 짜 어린이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으로 참관단을 보냈다. 중주국의 자존심도 버렸다. 그만큼 절실했다. 이미 뜻있는 사범들은 자신만의 독창적 프로그램에다 해외 우수 프로그램을 접목해 태권도 경영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다. 이들 회사들은 회원 도장을 체인화하고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도 하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안주해 있는 도장들과 차별화를 꾀했다. 당시 인기 있던 계열 도장들로는 키즈태권도, 호키타권도, ATA 코리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들 중 ATA코리아는 미국에서 성공한 ATA계열로, 당시 신문기자였던 필자는 “미제(美製) 태권도가 국내에 상륙했다”라는 나름 충격적인 기사를 쓴 적이 있다.

장황하게 20년 전 일을 꺼낸 것은 지금의 태권도 환경이 그때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선 사범들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그 때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 어려움은 태권도인들이 현실에 안주한 탓이라면 현재는 인구 절벽 탓이다. 당시에는 해외 우수 사례를 참고해 위기를 넘겼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태권도인만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최근의 어려움은 전혀 극복 못할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태권도인들은 불과 한 세대만에 태권도를 키워서 세계화하고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만든 저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 태권도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권도’란 명칭도 1950년대에 창조됐다. 1960년대 초 태권도가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 될 당시만 하더라도 태권도를 비하하는 체육인들이 많았다. “깡패들이 하는 운동이 무슨 체전이냐.”라는 비아냥거림이 실제로 있었다. 태권도는 그런 설움을 딛고 일어나 체전 종목이 됐다. 또 좁은 국내 시장을 과감하게 탈출한 사범들은 해외로 나가서 태권도를 전 세계로 보급했다. 그리고 훗날 한류의 첨병이 돼 태권도의 세계화에 일조를 했다. 마침내 동양 무술로는 유도에 이어 두 번째로 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간 데는 태권도인들의 일치단결된 의지가 결정적으로 뒷받침됐다.

태권도는 이제 ‘제2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섰다. 최근 몇 년 사이 이종우, 엄운근, 김운용 등 3명의 태권도 1세대 원로들이 타계했다. 그들은 초창기 태권도를 정립하고 세계화하는 데 일생을 바친 공로자다. 그들이 30년간 이룬 업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과 같다. 반석 위에 올려진 태권도를 더욱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후배들의 당연한 의무다.

원로들이 그랬던 태권도의 비전(국기화·세계화)은 지금도 유효한 덕목인 것 같다. 다만 시대 요구에 맞춰 좀 더 알차고 국민에게 친숙한 태권도를 만드는 것은 후진들의 몫이다. 경기가 좀 더 흥미롭고 미디어 친화적이 돼야 한다. 일선 도장은 무도 태권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교가 포기한 인성 교육장이 돼야 한다. 태권도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치안이 불안하던 1960년대엔 태권도는 최고의 호신술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밤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한국의 태권도는 이제 건강 지킴이로서 백세 시대의 첨병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복간한 격월간지 『태권도』는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태권도의 등대 구실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태권도』는 1971년 4월 고(故) 김운용 전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첫 사업의 하나로 창간한 잡지였다. 먹고 살기 급급했던 당시에 태권도 잡지를 만든 것은 그의 혜안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태권도』지는 각종 경기 기록은 물론 태권도 기술 강의 및 보급 등 태권도 관련 역사를 기록해 왔다. 7년 만에 어렵게 복간된 만큼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8년 4월 편집인

이원성



언제, 어디서나, 남녀노소 누구나 나의 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스포츠복지지원에서 스포츠산업육성까지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 만듭니다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금은 퇴근 후 스포츠를 즐기는 시간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지금은 나에게 맞는 운동처방 받는 시간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운영 |

지금은 주말아침 주민들과 운동하는 시간
|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

지금은 방과 후 스포츠를 배우는 시간
|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



찬란한 봄에 찾아온 반가운 그대, ‘태권도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 이렇듯 아름다운 봄이 되면 / 당신이 더 보고 싶어진다는 것을. //
당신은 기억하시나요, / 그대 목소리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봄에 /
우리의 찬란한 봄을 함께 시작했다는 것을. // (중략) //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 이렇게 당신이 그리운 날 /
그대의 모습이 내 기억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
이런 그리움을 / 이런 아픔을 / 당신은 알고 계시나요?” (4월에 · 류옥현 시)



들리는가, 다시 태어나는 고고(呱呱)의 소리가! 생명의 계절이 열락의 빛을 내뿜는 4월,
 한 생명이 환희의 첫 숨을 강하게 토해 낸다. 얼마나 기다려 왔던 이 세상의 밝은 빛인가.
 숨죽였던 기나긴 시간, 7년 4개월이다. 희망의 외침이 울려 퍼진다.
 “찬란한 봄을 함께 맞이하고 누리자.” 생기를 복돋우는 일성에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편다.
 결코 깨어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질 수 없는 강건한 생명체였음을 다시금 깨닫는다.

보이는가, 태동의 꿈틀거림이! 신이 계시한 끝없는 운명의 길이었다.
 47년 전, 첫 잔을 띄울[濫觴(남상)] 때 품었던 열정이 되살아난다.
 ‘한국 태권도와 영광과 오욕을 함께하리라.’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가슴속 깊이 소명을 아로새긴다.
 쓰러짐을 거부하는 오독이를 반려 삼아 도전의 투혼을 불사르련다.
 이 4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더 영광의 환호성을 터뜨릴 그날로 향한다.

“기나긴 세월, 그대는 한길을 밟아 왔소. / 닥쳐오는 간난을 피하려 하지도
 뿌리치지도 않았소. /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극복의 뿌리를 찾았대요. / 언젠가 영광의
 환호성을 터뜨리라 믿고 맞아들였대요. / 벗인 양 품에 안기려는 슬픔을 물리치지 않았소. /
 안일의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풍운의 첫길을 맞이하러 간대요. /
 약동의 4월, 그대는 다시 달려가네. / 한 톨의 밀알이 되리라 다짐하며 걸어가네.”
 (끝없는 외길 · 춘추필 시)

『태권도』 복간에 부쳐



KTA 지도자 전

주최: KTA 대한태권도협회 | TPF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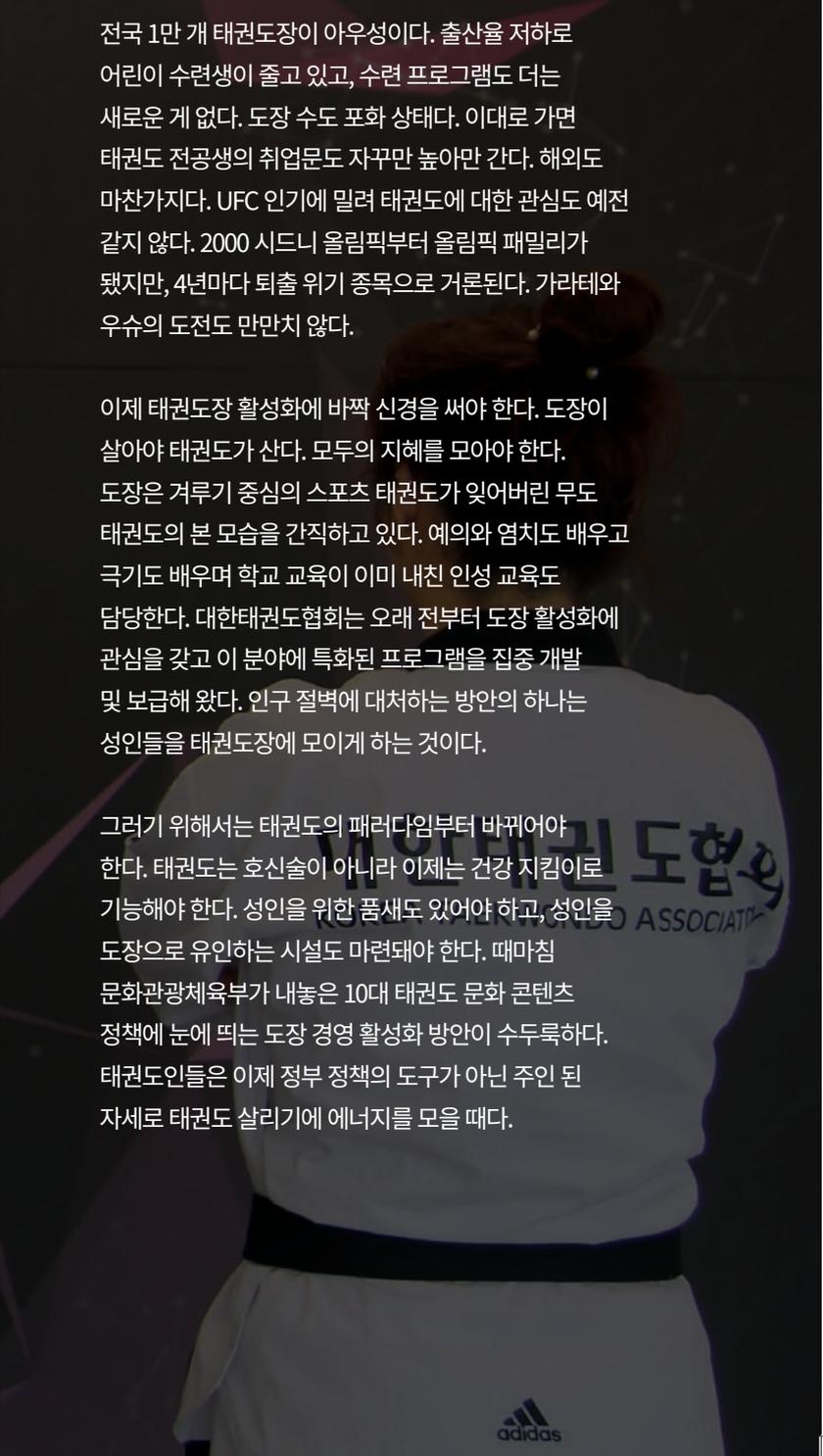
전문교육 과정

도장 활성화, 태권도를 살리는 묘약

전국 1만 개 태권도장이 아우성이다. 출산율 저하로 어린이 수련생이 줄고 있고, 수련 프로그램도 더는 새로운 게 없다. 도장 수도 포화 상태다. 이대로 가면 태권도 전공생의 취업문도 자꾸만 높아만 간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UFC 인기에 밀려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예전 같지 않다.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올림픽 패밀리가 됐지만, 4년마다 퇴출 위기 종목으로 거론된다. 가라테와 우슈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제 태권도장 활성화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산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장은 겨루기 중심의 스포츠 태권도가 잊어버린 무도 태권도의 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예의와 염치도 배우고 극기도 배우며 학교 교육이 이미 내친 인성 교육도 담당한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오래 전부터 도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 및 보급해 왔다. 인구 절벽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는 성인들을 태권도장에 모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 태권도는 호신술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 지킴이로 기능해야 한다. 성인을 위한 품새도 있어야 하고, 성인을 도장으로 유인하는 시설도 마련돼야 한다. 때마침 문화관광체육부가 내놓은 10대 태권도 문화 콘텐츠 정책에 눈에 띄는 도장 경영 활성화 방안이 수두룩하다. 태권도인들은 이제 정부 정책의 도구가 아닌 주인 된 자세로 태권도 살리기에 에너지를 모을 때다.



이야기로 보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도장 지원 사업 <상>

2010년 12월 『태권도』 지(誌)는 166호를 끝으로 잠정 휴간을 결정했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휴간이었다. 그리고 2018년 7년 4개월 만에 기지개를 켜고 복간호 167호를 펴내게 됐다. 이번 호에 필자가 써야 하는 주제는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도장 지원 사업 설명 및 방향 관련이다. 주제를 쓰기에 앞서 『태권도』 지의 중요성 그리고 『태권도』 지와 관련된 개인적 인연을 써 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과 태권도지에 대한 공감 영역을 넓혀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전국 시군구 지부장 초청 연찬회에 참석한 도장분과 위원 및 임원.

『태권도』 지와 인연, 그리고 추억

먼저 『태권도』 지에 대한 경험을 적어 볼까 한다. 『태권도』 지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태권도를 수련할 때부터였던 것 같다. 사범님께서 한쪽 벽에 못을 박아 거기에 검정색 편철 끈을 이용해 책을 걸어 놓으셨다. 아마도 사범님은 수련생들이 그 책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다. 1980년대 초반으로 기억된다. 당시 이승국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태권도 경기 시 이루어지는 스텝’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했

데, 매우 유익한 정보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다. 그때 선수 생활을 하던 필자 처지에서는 매우 유익한 정보였다. 아마 이것이 『태권도』 지를 관심 있게 보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많이 접했던 참고 서적이 『태권도』 지였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태권도』 지에 독자가 아닌 투고를 하게 되었고, 어느 시점이 되니 편집위원이 되어 있었다.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마도 『태권

도』 지가 태권도인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점은 사실일 것이다. 이 사실은 『태권도』 지와 관련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말하고 싶다. 따라서 이처럼 『태권도』 지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KTA, 네 가지로 방향 잡고 도장 지원 사업 시작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자. KTA가 도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07년이였다. 류호

역대 박람회 및 경진대회 포스터.



윤 기획부장(이하 당시 기준)이 양진방 이사과 함께 KTA 대의원회 총회에서 도장 SWOT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를 근거로 도장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통해 도장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승품·단 심사 응시생에게서 1인 1,500원이라는 도장 지원 특별비를 책정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관련 사업 시작과 함께 필자도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본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KTA에서 도장 지원 사업을 시작한 시기는 2007년이다. 그렇지만 그 수년 전에 양 이사, 류 부장, 필자, 그리고 일선 지도자 20~30여 명이 모여 태권도장 교육연구회라는 연구 모임을 만들어 한국 도장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모임을 통해 도장 교육의 방향과 구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다. 강원도태권도협회가 개최한 지도자 자아 혁신 세미나 등이 호응을 얻어 본격적으로 전국 태권도장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첫 사업이 전국 시군구 지부장 초청 연찬회였다. KTA는 전국 지부장을 무주로 초청해서 향후 도장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도장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KTA는 크게 네 가지로 사업 방향을 잡았다. ▲첫째, 교육 지원 ▲

둘째, 연구 개발 지원 ▲셋째, 홍보 지원 ▲넷째, 행사 지원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이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도장 지원 사업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모두의 박수 속에 시작된 건 아니다. 특히 내외적으로 다양한 의사와 시각이 존재한 게 사실이고, 그 시각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그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도장 지도자가 개인적 관점과 기준으로 보는 도장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십 년을 경기 단체로서 기능해 온 KTA의 기준과 경기 단체로서 보는 시각과 평가다. 이 두 가지 시각에서 보는 도장 지원 사업은 당연히 평가와 요구도 다양할 수 있다. 어느 하나가 이것이라고 답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지도자 교육의 모태가 된 경진대회를 열다

KTA는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로 창립돼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된 뒤 지금까지 경기 단체로서 그 구실과 기능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국내 태권도와 관련한 많은 단체가 있지만 도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지금까지 지도 KTA가 유일하다. 더욱이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재출범한 KTA는 다시 한 번 도장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성인부 활성화 지도자 연수에 참가한 지도자들.

있다.

본격적으로 대표적 사업 소개와 사업에 따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2007년 도장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지도자 재교육’ 부분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업 방향의 1순위는 교육 지원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KTA는 경기를 치르는데 가장 최적화된 경기 단체였다. 따라서 회원의 재교육 시스템이나 콘텐츠가 전무한 상태였다. 고민은 회원들을 지도할 강사 선발, 콘텐츠 개발 등이었다.

특히 강사들을 제도적으로 선발하는 방법을 찾는 것 또한 과제였다. 지금은 대회당 1,000여 명의 관장들이 오는 흥행 보증수표가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국 태권도장 지도법 및 경영법 경진대회’를 보는 시선은 아주 냉소적이었다. 과연 우리 지도자들이 동료이자 경쟁자인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가장 많았으나, 놀랍게도 1회 경진대회부터 참가자들이 복도에 앉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 지도자 중 KTA 강사로 매년 50여 명의 강사가 임명을 받고 있으며, 100여 개의 강의 콘텐츠가 확보돼 있다. 경진대회는 진화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학생 및 사범부와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이러한 경진대회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경진대회를 ‘대통령기 또는 국무총리기’ 등으로 격상시켜서 더 좋은 콘텐츠와 강사들을 발굴하고 미래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인부 활성화 모책을 강구하다

KTA가 도장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추구한 두 번째는 지도자 재교육의 기회 제공이었다. 이를 위해 지도 및 경영법 전문 교육과정, 사범 교육과정, 성인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도자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자의 변화를 통해 우리 태권도계 전반적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 어느 지도자의 말처럼 “교육은 지도자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새삼 기억에 남는다.

또 하나의 사업을 소개하자면 ‘성인부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연수’다. 많은 사람이 도장의 미래를 걱정한다. 가장 큰 이유로 출생율 저하, 시장 축소, 경쟁 종목 급부상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청소년 및 성인부 활성화다. 또한 생전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지만 도장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부분도 있다. 필자는 이 부분을 율곡 이이의 ‘十萬養兵說(십만양병설)’에 비유한다.

KTA가 처음 본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국 도장의 수련 실태를 파악했을 때 성인부가 활성화한 곳은 두세 개에 불과했다 지금은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도장이 성인부를 활성화하고 있다. 성공이라 말하기는 이르나. 이만큼 올 수 있었던 정책 중 하나는 성인부 활성화에 뜻을 둔 지도자를 선발해 청소년 및 성인부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 연수를 1년 단위로 실시한 무상 교육이다. 성인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자를 배출하던 중 청주 MBC가 피트니스센터를 활용해

다이어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PD를 몇 번 찾아가 태권도와 함께 하자고 설득했다. 당시 담당 PD는 “태권도는 애들이나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과연 어른들에게 운동 효과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인부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으니 1기수만 해 보자. 효과가 없으면 스스로 빠지겠다”라고 설득했다. 우리 지도자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다. 태권도 수련이 피트니스센터 운동보다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우리 지도자들이 증명했던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MBC와 전국 14개 지역에서 함께했던 MBC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도 기억에 남는다. MBC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는 분명 큰 사업이었다. KTA가 성인부 활성화를 위한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었기에, 진행이 가능했던 일이었다. 이후 KTA는 MBC를 통해 전국 14개 지역에 태권도 수련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태권도와 건강’이라는 방송을 했다.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이 지금은 중단됐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태권도계가 공영 방송을 통해 태권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날이 다시 오리라 믿는다.

이상과 같이 도장 지원 사업 중 지도자 교육에 관한 상편 부분을 소개했다. 다음 호 하편에선 도장 지원 사업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한다. 끝으로 어렵게 다시 모습을 나타낸 『태권도』지가 태권도의 양대 산맥을 다루는 이 시대의 위대한 태권도 전문 잡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KTA**



MBC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 지도자 보수 교육에 참가한 연수생들.



도장 경영 패러다임이 도장을 살린다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KTA) 도장사업부 부장 직무대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수련생이 타깃이었다면 이젠 성인 수련생 중심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 직무대리는 또 “생명 수영이 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이후,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합기도를 위시한 타 무술에서도 이젠 인성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게임을 비롯한 방과 후 활동이 다양해지면서, 태권도장 수련생들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TA가 도장 경영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까닭이다.

도장 경영 변화 = 태권도장 발전사

전국 어디서나 태권도장을 쉽게 만날 수 있다. KTA에 등록된 도장 9,600여 개와 등록되지 않은 도장 2,000여 개를 합하면, 전국에 1만 1,600여 개의 도장이 곳곳에 퍼져 있으니 당연하다. 각자 경영 목표와 방식은 다르겠지만 태권도인 양성이라는 길을 함께 가고 있다. 어떤 도장은 어린 수련생이 많고, 또 다른 도장은 성인 수련생을 중점적으로 모집한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수련생만 고집하는 도장도 있다. 이처럼 저마다의 경영 방식을 갖고 도장을 개관한다. 이



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경영 철학을 갖고 도장 경영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도자들이다. 반면 도장의 위치 선정이 좋으면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믿고 도장을 차리는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은 수련생 모집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의 교육 방법을 반복함은 물론 좋은 위치 선정 외에 도장 경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갈수록 수련생이 떨어지니 경영난을 맞을 수밖에 없다. 사계절이 번갈아 찾아오는 현상을 반복이라고 하지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

성공 도장 탐방을 하다 보면 흔하지 않지만 탈의실과 샤워실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실내 인테리어와 쾌적한 환경의 화장실까지 갖춘 도장을 발견할 수 있다. 저절로 기본이 상쾌해진다. 게다가 성인반과 어린이반의 차별화한 교육 과정과 목표가 정확하게 구분된 점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도장이라는 게 쉽게 느껴진다. 맨 땅에서, 시멘트 바닥에서, 마룻바닥에서 과거 수련하던 태권도를 떠올리면 현재의 도장 모습은 분명 변화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도장 경영의 변화는 곧 태권도장의 '발전사'가 된다. 아직도 도장 경영의 성공을 위해 많은 일선 도장 지도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변화는 두렵다.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경영 방법만을 고집한다면 더는 발전은 없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고가 바뀐다.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다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것도 변한다는 걸 의미한다.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태권도장 경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변화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지도자에게는 성장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기존 방식을 반복하는 지도자는 “그냥 중간은 해.” 정도의 평가를 받거나 경영난에 봉착할 수 있다.

도장을 차릴 만큼 경제 사정이 여유롭지 못한 20대 사범들은 주로 도장에 취직한다, 관장이 짜 준 프로그램으로 수련생들을 가르친다. 2~3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월급 인상 폭도 너무 적고 갈수록 의욕이 떨어지는 등 모든 상황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결국 독립을 결심하고 부모에게 손을 내밀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도장을 개관한다. 2~3년 동안 수련생을 지도해 본 경험도 쌓였고, 사범 생활을 할 당시 관장의 도장 경영 노하우도 눈여겨봤던 터라 성공을 확신했다. 그러나 막상 시작해 보니 수련생 모집은 물론 모든 게 계획대로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 ‘어느 정도 지나면 잘 되겠지.’ 하는 생각에 한 달, 반년, 1년이 지나간다. 그렇지만 나아지는 게 없으면더러 월세마저도 내기 힘들어진다. 상황이 이쯤 되자 보증금이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생각에 결국 도장을 팔기 위해 내놓는다.

현실이 만만치 않았음을 느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시장 조사와 운영 계획도 없이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는 벌겠지 하는 생각으로 도장을 개관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때문에 수없이 도장 사고 팔기가 만연하고 폐업이 줄을 잇는다. KTA에 등록된 1만 개에 달하는 도장 경영자 중 자기만의 철학을 갖

고 변화를 주도하며 도장 경영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경영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승환 태권도장 무도 관장은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확고한 교육 철학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경영자가 어떤 도장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교육 철학이 먼저 되어야 한다. 경영자가 그런 것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그것을 명확하게 세우면 그 다음에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런 방법은 KTA 교육이나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도장 경영 변화 요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실질적으로 KTA에 등록된 도장 수가 1만 개를 넘었다가 9,600개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도장 경영자들은 수련생 마케팅 타겟을 성인에게 맞추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이 개발돼 어린 수련생들의 수는 줄어들고 수련비도 크게 올릴 수 없어, 도장은 경영난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

경영난을 성인 수련생으로 돌파하겠다는 계획

이다. 성인에게는 어린이에게보다 수련비 인상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과거에는 아이들이 다니는 도장 심사나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만 부모가 도장을 찾았다면, 성인이 태권도에 재미를 느낄 경우 그 영향이 아이들은 물론 어른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성인 수련생으로 이동이 도장 경영의 정답은 아니다. 지역과 환경에 따라 경영자의 정확한 진단에 의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도장 경영의 변화 요구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현재의 태권도 수련생과 태권도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요구자다. 요구자의 변화에 맞춰 도장 경영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자신의 경영 방법이 옳다며 변화를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도장 경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장을 경영했던 한 지도자는 “갈수록 도장 경영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다. 한때 200명 이상 수련생을 보유했으나, 자고 일어나면 수련생이 줄었다. ATA(고 이행웅 씨가 이끌었던 미국태권도협회)와 각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봤지만 결국 한계를 느껴 그만두게 됐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성인 수련생을 모집해 다른 돌파구를 찾는 생각은 안 했는지 묻자, 이 지도자는 “왜 안 해 봤겠느냐? 성인 수련생 모집을 위한 한 방편으로, 바

닥에 보일러 공사를 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지만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포기했다.”라고 말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 변화 경영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변화는 선택한 사람만이 하고, 선택한 사람만이 변화의 과실을 맛보고 있다. 망설이다 포기한 사람은 달든 쓰든 변화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서울의 한 도장을 탐방했을 때의 일이다. 1997년인가 1998년인가로 기억한다. 옛날식만 고집하고 집착하는 도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도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지하 빈 공간이었다. 도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도장 사범은 태권도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태권도를 무척 사랑했다고 확신한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가 좋아서 시작했고, 대학에서도 태권도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칠 만큼 애정이 가득했다. 수련생은 불과 20명도 안 됐다. 그 수련생들도 자신이 만든 대학 동아리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이다. 물론 그 사범도 직장이 있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를 떼서 월세를 내고 있었다. 그들은 시멘트 바닥에서 맨발로 수련하고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인사하고 가려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타까운 마음에 태권도장에 매트도 깔고 간판도 내걸어 수련생을 모집해서 정식적으로 도장 경영을 해





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그 사범이 “태권도장은 태권도를 배우는 곳이지 놀이나 오락을 하는 곳이 아니다. 만약 내가 도장 월세를 내기가 힘들면 그때 도장 문을 닫으면 된다. 태권도로 돈을 벌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했던 그때 대화를 지금도 잊기 힘들다.

그 사범을 비난할 생각은 절대 없다. 어쩌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나 그 사범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않았어도 태권도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누구보다 컸지만 더 널리 보급하고 확대하려 하지는 않았다. 이 사범과 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없지 않을 듯하다. 기존의 태권도 기술에 익숙하고, 도장 경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장은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을 파악하는 일에는 서투르고, 변화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이해를 하려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 아닐지 싶다. 이들은 무도성이 짙은 기술 중심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면 된다고 믿을 뿐이다.

가끔 도장이 없어지거나 관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는 나름 잘되던 도장들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수십 년째 도장 경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도장은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들은 누구에게 도장 경영을 배우거나 따라시킨 게 아니다.

울산에서 경희 영어태권도장을 경영하는 김상희 관장은 “도장 경영의 변화는 수련층의 타깃

이동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하는 변화를 알아내는 것이다. 우리 도장에는 성인 수련생이 없다. 그러나 300명이 넘는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한국에서 사범 생활을 하다가 미국 시카고로 건너가 4년 동안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도장 경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태권도를 가르쳤다. 수련생 부모들이 좋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오히려 반발에 부딪혔다. 영어를 좋아하는 수련생과 싫어하는 수련생으로 나누다 보니 도장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간단한 동작이나 지시를 할 때 외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김 관장은 “미국 수련생들은 기본 동작과 발차기 등 태권도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줄넘기 등 학교 체육을 좋아한다. 한국 수련생과 미국 수련생이 좋아하는 부분을 잘 섞어서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또 “우리 도장의 장점은 인성 면접이다. 매일 5~6명의 수련생과 면접한다. 뿐만 아니라 면접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수련생 부모에게 전달하고 있다. 결국 우리 도장 홍보는 우리 도장 수련생이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관장처럼 고객의 변화 요구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자신의 체질 변화를 스스로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옛 도장 경영 방식을 따라하지 말고 언제나 변화에 익숙한 마인드와 실천이 자신만의 경영 방식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최선의 길이 된다. 그러려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영자는 항상 사범이나 수련생들보다 먼저 출근해야 한다. 지방 출신의 한 지도자가 서울에서 도장을 경영했다. 그 지도자는 한때 제법 많은 수련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도장 경영이 잘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입도 괜찮아졌다. 수입이 제법 생기자 보니 처음 도장을 개관할 때의 각오는 잊힌 지 오래다.

이 경영자는 도장을 사범들에게 맡겨 놓고 골프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도장의 수련생 몇 명 떨어지는 일쯤은 다시 노력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녔다. 도장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었다. 한때는 어릴 적 함께 태권도를 했던 동료들이 태권도장 경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 경영자의 도장을 견학하기도 했었다. 결국 한 번 무너진 도장을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이야말로 도장 경영 변화 꾀해야 할 시점

도장 경영에 집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도장 대부분은 경영자가 부지런함은 물론 도장 경영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변화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한마디로 준비된 도장 경영자다.

지금까지 태권도장이 유지되어 온 이유는 수련생들이 도장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맡기는 곳으로 태권도장을 선택했던 부분이 없지 않다. 아이들 스스로가 재미있게 놀기 위해 친구들이 많은 태권도장을 가겠다고 부모에게 졸랐던 수련생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마케팅을 통해 수련생들을 모집했다고 착각하는 도장 경영자들이 있다. 물론 일부 지도자들은 도장 경영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수련생을 모집하고 유지해 나가고 있다.

사실 도장을 경영함에 있어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준다고 해서 도장 경영이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태권도장 수련생의 90%를 차지했던 아이들이 합기도·수영·게임 등 다른 곳으로 분산되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태권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KTA와 각 시도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도장 경영의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도장 탐방 <1> ITC 성인태권도장

‘ITC 성인태권도장’,

성인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밝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은 초등학교 감소에 따른 변화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곳은 바로 일선 태권도장이다. 최근 부산의 한 유치원 졸업식에서는 태권도 관장들 간의 다툼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져 뉴스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다. 지역 경쟁 태권도장들이 유치원 졸업식에서 홍보를 하던 상황에서, 그간에 쌓인 감정 대립이 격화돼 발생한 일이었다.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입학식이 태권도장의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힐 정도로, 초등학교 입학식이 열리는 날이면 여러 대의 지역 태권도장의 차량을 학교 정문 앞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대목 아닌 대목이 초등학교 입학식이었다면, 최근엔 그 대목이 유치원 졸업식으로 앞서갔다는 게 일선 태권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도장도 있구나!”... 절로 감탄사 나와

그만큼 초등학교의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련생의 연령이 갈수록 어려워져 이미 초등학교 중급 학년이 되면 태권도장을 그만두고 다른 교과 학원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태권도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무술 또는 무도를 배우는 곳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의 놀이터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미 태권도장은 어른이 운동하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가 가지는 본래의 무도적 가치를 회복하고 태권도가 가지는 체력 단련 도구로서 기능을 강조하며 어른이 올 수 있는 태권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일선 태권도 지도자도 느끼고 있는 것만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다수 관장과 사범이 이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태권도 지도에만 익숙할 뿐 어른, 그것도 30~40대 이상의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떻게 태권도를 지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인 태권도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최근에는 아직 많지는 않아도 성인 태권도를 전면에 내건 태권도장들이 간혹 눈에 띄긴 하는데, 과연 그 태권도장들에서는 어떻게 성인을 지도하고 있을까? 정말 성인이 태권도를 좋아하면서 수련하고 있을지 궁금한 가운데, 성인 태권도에 관심 있는 사람 사이에선 이미 유명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ITC 성인태권도장을 찾아가 보았다.



성인 태권도에 비전을 제시하다.

ITC는 국제태권도클럽(International Taekwondo Club)의 약자다.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외국인을 위한 태권도 클럽으로 출발했다. 외국인이 대상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성인 외국인이 지도 대상이었고, 그 경험이 성인 수련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외국인보다는 성인 태권도로서 자리를 잡았고 외부에도 알려졌다.

9년 전 시작된 ITC 태권도가 성인 전문 태권도장으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3년 전이다. 처음 ITC 태권도의 시작에 관여했던 송탁 관장이 싱가포르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돌아온 2015년 4월부터다. 송 관장이 성인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는 오래전이다. 이제 30대 중반인 송 관장은 20대 초반부터 성인 태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노력해 왔다.

“저는 태권도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배웠고 20대 어린 나이에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인 수련에 관심이 많았어요. 고향인 충남 서산에서 태권도를 지도하기 시작할 때도 성인부를 20명 정도까지 이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는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태권도를 전문으로 지도한다고 소문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도장을 찾아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운 것도 사실입니다.”

성인 태권도 전문가로서 인정받은 송 관장은 싱가포르에서 3년 간 성인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는 경험을 쌓았다. 그 후 귀국한 송 관장이 본격적으로 ITC 태권도장에 다시 합류하면서, ITC 성인태권도장이 바깥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ITC 태권도장을 찾아 직접 성인 수련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타격과 품새 각각 1시간씩에 걸쳐서다.

먼저 수련에 참가해 느낀 점을 미리 말해 보겠다. “이런 태권도장은 처음이다.” 기자는 사실 수년 전에 태권도 관련 기자라는 직업을 알리지 않고 태권도장에 수련생으로서 문의해 본 적이 있었다. “어른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자, 그 태권도장에서는 “배울 수 있다.”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바로 등록하고 수련해 보았다. 그런데 그 태권도장에는 20대 대학생 1명을 제외하면 성인을 찾아볼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성인과 어린이 수련의 차별성이 전혀 없었다. 기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하는 태권도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결국 두 달이 되지 않아 그만두었다. 재미도 없고 배울 맛도 나지 않

있기 때문이다. 간혹 태권도장에 성인이 수련 문의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그 경우 “어른은 아예 배울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도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ITC 태권도장은 달랐다. 이 태권도장에서는 아이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오직 성인만으로 수련생이 이루어져 있었다.

“저희 도장에서는 아이는 받지 않습니다. 간혹 성인과 함께 수련할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큰 수련생의 경우엔 특별한 상황에서 함께 수련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인만이 수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수련하는 걸 불편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장은 성인 전문 태권도장이라는 색깔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아이를 받아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부 성인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태권도를 한다고 하면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인 전문 태권도장은 말 그대로 성인만이 즐길 수 있는 태권도장이 되어야 합니다.”

송 관장은 ‘태권도’ 하면 아이들의 놀이터로 생각되는 현재의 태권도장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성인 태권도로 가는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생 입맛에 맞는 수업 편성으로 다양한 욕구 충족

ITC 태권도장의 수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타격, 품새, 겨루기, 시범, 호신술이다. 그동안 지도한 결과 수련생이 가장 선호하는 내용으로 나누었다. 이들 다섯 개 수업은 요일별과 시간별로 단순하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수련표가 복잡하다고 할 정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품새를 더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타격과 겨루기에 더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1시간 수업에서 이 내용을 모두 같이 지도하려 한다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일별과 시간대별로 수업 내용에 따른 시간표를 다르게 짜서 수련생 각자가 좋아하는 내용을 집중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히 수업 시간표가 나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직접 수련해서 느꼈을 테지만, 저희 수련 프로그램이 좀 복잡합니다. 성인의 일정이 개개인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정에 수정을 거친 게 현재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양한 수련생의 기호를 어떻게 다 맞춰 줄 수 있을까? “어떤 수련생의 경우에는 매일 오는 분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수련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수련생의 진도를 지도자가 알고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수련을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송 관장은 말을 이어 갔다. “태권도를 배우는 성인이 태권도 각 부문을 모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품새를, 어떤 사람은 겨루기나 타격만을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원한다면 그것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도장에서는 편식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일건 품새와 겨루기 등 태권도의 모든 부문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은 자신이 일부 수업을 못 따라갈 경우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도장에 더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태권도의 특정 부문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의 선호와 본인의 진도에 맞게 태권도를 할 수 있도록 메뉴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한 것처럼 ITC 태권도장에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적지 않았다. 얼핏 봐도 40대나 50대인 수련생이 쉽게 눈에 띄었다. 품새는 품새대로, 타격은 타격대로 40~50대의 중·장년이 아들딸 수련생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었다.

수련 후 이야기를 나눈 한 50대 중반의 남성 수련생은 “어디 가서 이런 경험을 해 볼 수 있을까요? 나이 차이가 서른 살 정도 나는 젊은 친구들과 똑같이 발차기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 웃을 수 있는 곳이에요. 도장 안에서는 나이 차이나 직업 등을 잊고 오로지 같은 태권도장 수련생으로서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울 정도지요.”라고 말했다. 수련생의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수업은 내용뿐 아니라 분위기 자체도 크게 달랐다. 발차기와 정권치기 등으로 구성된 타격 수업의 경우에는 경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수련이 진행됐다면, 품새는 보다 근엄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더 노련한 사람도 있고 조금 미숙한 사람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와 진지하게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었다.



“3대가 함께하는 태권도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 성인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성인을 지도하는 것과 아이를 지도하는 방법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태권도 지도자가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는 이런 지도법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을 대할 때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짚어 내 그것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태권도장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지 궁금했다. “무엇보다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인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태권도장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바쁘다 보면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수련생의 경우에는 태권도장을 그만두면 다시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우리 성인 수련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에 따라서 수련을 중단했다가 다시 여유가 생기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수련생 중에는 기자와 닳이 익은 사람도 있었다.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의 직원들이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 태권도장을 찾은 이유를 물었다. “태권도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건강 차원에서 그렇고, 태권도를 직접 배워 봐야겠다고 생각했었요. 그런데 성인이 다닐 수 있는 도장은 찾기가 어려웠지요.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되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는 몇 명 더 있습니다.”

이제 갓 스무살이 된 젊은 여성 수련생은 “태권도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서 태권도를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를 배울 만한 곳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50대의 한 남성 수련생은 “처음에는 태권도가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하다는 말을 듣고 배워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 스스로가 태권도 지도자로서 더 나은 실력을 쌓고 싶어졌습니다. 정년 퇴임한 이후에는 태권도 지도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 가장 연장자인 듯한 50대의 여성 수련생은 “처음에는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보내다



송탁 ITC 성인태권도장 관장

가 함께 배워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같이 수련을 시작하게 된 게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권도를 그만두게 된 후 더 배우기가 어려웠어요. 성인이 따로 배우는 곳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ITC 태권도장을 알게 된 거죠.”

이들을 비롯해 이야기를 나눠 본 수련생들의 이야기는 비슷한 점이 많았다. 태권도를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성인을 위한 수련이 준비되어 있는 태권도장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성인도 배울 수 있다고 찾아갔는데, 막상 가 보면 성인을 가르칠 준비가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태권도장과 ITC 태권도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 수련생의 말이다.

이곳에는 다른 태권도장의 지도자(관장·사범)가 수련생으로 배우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ITC 태권도장의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 인 것 같았다. 몇 시간의 세미나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기에, 직접 수련생으로서 ‘남의 도장’에서 배우고 있는 듯싶었다. ITC 태권도장의 노하우는 몇 마디 말로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데 있다. 10년 이상의 노력과 경험이 쌓여 있다.

“성인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일반 수련생과 똑같이 배우고 있는 사범과 관장도 있습니다. 1년 이상 다니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눠 보면 본인이 직접 성인을 지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

다.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 스스로가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서 그런 듯합니다.”

겨루기 수업과 품새 수업에서 송 관장의 모습은 달랐다. 어떤 때는 행사 진행하는 개그맨처럼 수련생을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근엄한 태권도 지도자로서 포스를 풍기기도 했다. 어떤 면에서는 배우처럼 보이기도 할 정도였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3대가 함께하는 태권도장’ 송 관장이 바라는 태권도장의 이상이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리고 나이가 노인이 되어서도 태권도에서 건강과 재미를 함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대가 함께 배우는 태권도장. 그것이 제가 바라는 ITC 태권도장의 미래입니다”

성인 태권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싶다. 성인 태권도가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먼저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지도자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아니라 수련생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련생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간단하면서도 쉬운 성실은 송 관장의 이 말에 성인 태권도의 비결이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KT**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언하고 있다.

태권도,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제정되다

2018년 3월 30일 국회 임시 본회의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 가결돼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國技)'로 제정됐다.

2018년 3월 30일 열린 국회(의장 정세균) 제358회 임시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32호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태권도를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부터 본회의의 가결까지 25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된 그 이상,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날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태권도는 어떻게 '국기'로 인식됐을까?

그런데 잠깐. "태권도가 원래 국기 아니었나?" 라고 의아해 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물론 태권도인조차도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은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많은 사람에게 관습적으로 국기로 인식돼 왔을 뿐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국기로 법적 지위는 물론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가 국기로 인식된 계기는 47년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해 제7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 취임한 김운용 회장(작고)은 태권도를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무예 스포츠로서 한국은 물론 세계적 스포츠로 키우고자 마음먹었다. 한국의 전통 무예를 넘어

서 스포츠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마음가짐이었다.

김 회장은 태권도가 한국인의 마음속에 국기로 뿌리내리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되었을 때였다. 우리나라 전통 무예로 알고 있던 태권도가 국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씨름과 축구가 서로 국기라고 하더라. 당시 태권도는 여러모로 약했다.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가 박정희 대통령께 부탁해 '국기 태권도' 친필 휘호를 받았다. 그리고 대량으로 복사한 뒤 전국의 모든 도장과 관공서 등에 걸게 하도록 했다. 그래서 국기가 되었다(故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2006년

무카스와 인터뷰에서 첫 국기 태권도 비화에 대해 밝힘.)"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전 국민은 태권도를 국기로 인식했다. 따라서 태권도를 얘기할 때나 각종 언론에서 태권도를 언급할 때 '국기'는 수식어로 따라다녔다.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 224명 공동 발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돼

이런 가운데 태권도 공인 9단 출신으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하는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2018년 3월 5일 오후에 국회 의원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 본회의 제안 설명

첫째, 중국의 ‘태권도 동북 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합니다. 학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태권도 수련 인구는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는 달마대사가 창시한 중국의 고유 무술’로 홍보하며, 중국 자체적으로 태권도 단증을 발급하는 건 물론 중국에 국기원을 설립하려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이와 같은 행태를 계속하면 우리나라의 태권도 모국의 지위가 위협될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기(國技)로서 법률로 지정하여 그 정체성을 부여하면 이러한 분쟁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태권도 국기 지정은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라테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태권도가 퇴출되고, 그 자리를 태권도 유사 종목인 가라테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국내 천만 태권도인은 물론 전국 1만여 개 태권도장의 운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에 직접 제출했다. 앞서 2월 7일에 열린 대정부 질의예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태권도 국기 제정 법률안은 여야 의원 224명이 공동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이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태권도 국기 제정을 위해 준비했다. 2년간 300명 국회의원을 모두 만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권도를 국기로 제정하는 데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며 223명의 의원에게서 공동 발의 도장을 받았다.

10명에게서만 서명받아도 발의할 수 있지만, 이 의원은 논쟁의 여지없이 입법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의원한테서 도장을 받으려 애썼다. 결국 헌법이라도 개정할 수 있는 80%가 넘는 의원이 뜻을 함께해 강력한 힘을 얻었다. 야나 다름까, 입법 예고를 하자마자 날개를 달고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도 설득해 3월 21일 태권도 국기 지정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이어 이틀 뒤(23일)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았다. 입법 타당성을 좌우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큰 산이었으나 이 역시 가볍게 통과됐다. 이 의원은 전문위원과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그달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구두 제안 설명을 통해 중국의 태권도 동북 공정과 일본의 가라테와 맞서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주국의 국기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런 노력의 결실로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은 곧바로 이튿날(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의원은 태권도 국기 제정 필요성을 3분 넘게 역설하며 의결을 호소했다. 국회 재적의원 293명 중 재석 175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이 1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의석에 앉아 있던 이 의원은 성원을 준 의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고마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태권도는 전 세계 1억 명이 수련 중인 한류의 원조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예 스포츠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만 무

관심하다. 태권도를 반드시 국기로 제정해 태권도 모국으로서 그 지위를 우뚝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2년간 300명 국회의원 모두를 만나 태권도 현안과 범정부 차원의 보호와 육성 정책이 절실함을 알렸다. 그렇게 해서 224명이 공동 발의하게 됐다.”라고 소개했다.

법률안이 가결된 이후, 이 의원은 “2018년 3월 30일은 태권도 국기 지정일로 기념해야 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이기 전에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눈물 나게 매우 기쁘다. 법이 제정되도록 큰 힘을 보태 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108명 동료 의원께 진정으로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이제 앞으로 이들과 함께 국기 태권도를 지원하겠다. 태권도계도 이제는 싸우지 말고 하나로 단합하여 위상 제고에 모두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이 가결됨으로써 태권도 국기 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30일 이후로 시행된다. 태권도가 법률적으로 국기로 제정된 만큼, 앞으로 범국가 차원에서 태권도를 이전보다 차원이 다른 규모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의무를 가지게 됐다. 이후 구체적인 조례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태권도 9단 이동섭 의원, 2년간 노력 결실

태권도 국기 제정을 이끈 이동섭 의원은 국회의원 최초의 9단 최고단자다. 태권도인답게 국회의원 당선 이후 한결같이 태권도 현안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종 예산 확보와 태권도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러 제도적 뒷받침에 앞장서고 있다.

대정부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준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늘 태권도의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 ‘태권도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 같은 추진력을 바탕으로 2017년 1월 20일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창설했다. 현재 108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가입해 있다. 이번 태권도 국기 제정법도 이 연맹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태권도 국기 제정에 앞서 지난해 태권도 ‘명인’을 지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태권도를 이끈 태권도 명인을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돼 명인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된다. 국기로 제정된 만큼 어려움 없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창신호, 격랑을 헤치고 희망봉에 땀을 내리려

최창신호가 땀을 흘리고 항해에 나선 지

1년 4개월여가 흘렀다.

밝은 내일을 기약하며 힘차게 고동을 울리고 출항한 최창신호는
예상을 뛰어넘는 격랑을 만나 고비를 헤쳐 나가고 있다.

하나를 걷어 내면 또다시 나타나는 암초의 연속에서,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 과연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봉에 땀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외유내강의 최 회장이 태권도계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그려 가고 있는지 진솔한 마음이 깃든 목소리를 들으려 했다.

깊은 경륜에서 우러난 화합의 슬기도 엿보고 싶었다.

최창신호의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바탕으로 미래의 방향을 읽고 싶기도 했다.

아울러 최창신호에 무엇을 바라는지

여론의 편린이나마 보이고자 한다.



INTERVIEW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새로운 태권도 문화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



‘태권도’라는 범주 안에 있지만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협회는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태권도인과 회장 사이에서 중계자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래도 KTA가 발행하는 『태권도』 지(誌)를 복간하며 회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했다. 특히 KTA를 둘러싼 일부 제도권 인사들이 자신의 논리만 내세우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후진 양성에 힘쓰는 전국의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 회장의 인터뷰가 태권도인에게 남은 임기에 대한 기대와 자부심으로 다가갈지, 아니면 실망이 더 짊어질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생긴 선입관을 씻어 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순백의 마음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태권도』 복간호가 마련한 최 회장의 인터뷰로 태권도인을 안내한다.

1라운드에서 대량 실점한 원인은?

최창신 회장이 KTA를 이끈 지 1년 4개월여가 지났다. 태권도 경기로 치면 3라운드 중 이제 막 1라운드가 끝난 셈이다. 그런데 1라운드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빼앗겼다. 주심 직권 패배 위기에서 겨우 벗어나 세컨드석에 앉았다.

남은 2라운드를 더 치러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하다. 최 회장 자신과 함께 경기를 잘 운영해 나갈 지혜로운 파트너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파트너로 3~4명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들로서는 1라운드에서 잃은 점수를 만회하기는커녕 점수차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시각이 엄존한다.

최 회장이 1라운드에서 대량 실점한 원인은 인사 실패에 있다는 데, 태권도계에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위기 때마다 지혜를 모아야 할 이사들은 저마다 자신의 주장과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 새 상근이사 선임에 신중해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새 상근이사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략가일 필요는 없다. 1라운드에서 잃은 큰 점수를 만회하되 3라운드가 끝났을 때 모두가 승자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 줄 현명한 상근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TA는 현재 소송 중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러한 사태는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갑자기 모 공중파 인기 예능 프로에서 개그맨

박명수의 생뚱맞은 속담 풀이가 떠오른다. “참을 인(忍) 세 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를 “세 번 참으면 호구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거다.” 등으로 해석(?)했는데, 최창신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소·고발을 견뎌 내며 멧집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근이사를 경질하면서도 후임을 바로 선임하지 않아 후보자의 이름만 하마평에 오르게 해 태권도계 혼란을 가중시킨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소송보다는 건강한 토론 문화 형성 기대”

그렇다면 최창신 회장은 과연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을까?

Q 벌써 임기가 1년을 훌쩍 넘겼네요. 태권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을 텐데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태권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정부에서 체육행정 최고 자리에 있으면서 각종 체육 단체를 지원·육성해 왔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태권도 관련 언론을 맡아 경영하면서 취득한 정보가 적지 않아요. 이렇게 얻은 소중한 정보와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협회를 이끌어 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듯싶다고 판단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람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디다.”

Q “인사가 만사이자 망사(亡事).”라는 말조차 유행하는 요즘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 상근이사를 비롯해 부회장과 사무처 인사에 대해 태권도인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인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했던 상근이사가 해임에 불복해 소송을 걸어 왔고, 보직 이사들도 협회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임시 이사회 소집을 위해 이사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가 끝난 뒤 며칠 뒤 임시 이사회 소집이 이뤄졌다.) 지난 선거에서 제가 당선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해 인사를 하다 보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앞으로는 인사에 더 신중을 기할 생각입니다.”

Q 새 상근이사 선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일하는 협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임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있는 반면, 거론되는 후보들이 책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회장께서 그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지 않나 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게 직접 찾아와서 자신이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근이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 가운데서 선택할 생각이었다면 이미 선임했을 것입니다. 더 좋은 책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KTA와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너무 많다는 지적입니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었나요?

“세상에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개성과 주장이 워낙 강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소송에도 단 한 건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KTA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독단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업의 목적, 전개 과정, 결과 등을 놓고 건

강한 토론을 벌이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섯 가지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다”

Q 건강한 토론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태권도계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업 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마련하셨습니까?

“KTA의 목적은 태권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며 국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경기인 및 팀을 지원·육성하며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사

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다른 사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다섯 가지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Q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2020 도쿄 올림픽을 최우선 목표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전에 올해 있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과 각종 그랑프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대회를 통해 올림픽으로 가는 교두보를 더 높고 강하게 만드는 게 협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6월에 있었던 WT(세계태권도연맹) 무주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해 국민을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첫출발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도쿄 올림픽은 가라테의 증가에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라테는 도쿄의 중심부에서 치러지지만, 태권도는 중심에서 벗어난 외곽 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여건을 딛고 최선을 다해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훈련 방법과 선수 보호 등 체계적 시스템을 도입해 도쿄 올림픽에서 꽃을 피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두 번째 그리려는 그림은요.

“전국 규모 국내 대회의 수, 품질, 방식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회와 경기장 문화의 개선이 올해의 중점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데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권도 증가입니다. 축구·야구 선수의 몸값은 수 천 억 원에 달하는데, 태권도 최고 선수는 고작 2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관중이 들어와야 합니다.

관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론과 TV가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미 구상은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1,000~2,000명 출전하면, 대여섯 개 코트에서 경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때문에 예선전은 시도별로 치르고 본선만(16강전 또는 8강전) KTA가 치르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회는 훨씬 깔끔해지겠죠. 16강전과 8강전은 두 개 코트에서, 준결승전과 결승전은 한 개 코트에서 각각 경기가 치러지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아나운서가 선수를 소개하고, 정

“
사업의 목적,
전개 과정, 결과 등을 놓고
건강한 토론을 벌이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





장을 차려입은 지도자가 세컨드를 보고, 라운드 걸이 등장하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감동적 대회를 치러 낸다면, 자연스레 TV와 광고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대회에서 생기는 이익금은 선수에게 주거나 태권도 발전을 위해 사용하려 합니다.”

Q 세 번째 계획도 궁금해지는데요.

“도장 경영 활성화예요. 도장이 살아야 태권도가 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에서, 전체 8개 체급 금메달을 석권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전 체급 출전도 불가능하고요. 도장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장 관련 세미나와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해 일선 도장 지도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성인을 도장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성인이 태권도에 흥미를 느껴야 어린이와 노인으로 이어집니다. 자전가 타기가 좋은 예죠. 자전거를 즐기는 성인이 늘어나면서, 남녀노소가 즐기는 운동이 됐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기능이 발전하며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태권도를 즐겨야 도장이 삽니다. 도장 경영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으며,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Q 네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남았네요. 묶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사 제도 개선과 생활 체육 활성화입니다. 심사 제도 개선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할 만합니다. 협회에 내는 소청 제기 중 90% 이상이 심사 관련 문제일 정도이죠.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완

벽하게 분석연구한 뒤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도 협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심사 제도 개선은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사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국기원과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으려 합니다.

엘리트 체육이 목표를 정해 놓고 계획에 의해 힘들지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을 통해 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강제성을 갖는 스포츠라면, 생활 체육은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생활 체육은 몸속에 엔도르핀을 흐르게 해 사람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죠. 협회는 생활 체육 전문 교수와 논의해 누구든지 태권도를 생활 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창신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짚다



어제 높은 지지, 그러나 얼마 안 돼...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는 고 김운용 총재, 정치인, 기업 회장, 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이 권력을 잡아 온 일부 태권도인을 왜 '구태'로 규정지어 왔는지를 뚜렷하게 엿보여 준 선거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와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최 회장은 당

시 태권도계가 찾던 인물이었다. 최 회장이 많은 표를 받아 당선된 까닭이다. 이렇게 태권도 종가의 수장이 된 최 회장은 신속하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예상치 못했던 인물을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등 강한 추진력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사회 구성 이후 최 회장의 인사 스타일이 드러나자, 많은 태권도인이 고개를 가우뚱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상 촬영과 저장 및 활용 장비 입찰 과정

에서 문제가 드러나자, 시민 단체에서는 최 회장 사퇴를 주장하며 연일 집회와 시위를 벌여 나갔다. 최 회장은 예상치 못한 최대 고난과 마주했고, KTA 내에서는 이 고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입찰 과정을 진행했던 당사자들과 회장 사이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KTA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러한 틈새를 보였기 때문인지 태권도인들

은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며 KTA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태권도계를 혼탁한 분위기에 빠뜨렸다.

게다가 측근인 줄 알았던 인사들은 회장을 불신 임하겠다는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려다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엔 행정 난맥상을 꼬집겠다며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을 지지하고 당선시킨 뒤 KTA 주요 인물로 떠오른 이들은 이제 오히려 균열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처럼 최창신호가 분열되기 시작한 이유는 회장을 단지 지지하고 감사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KTA 운영을 둘러싼 각자의 '자분 챙기기'에 목소리를 내며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근이사 경질을 둘러싸고 회장 과 이사진의 견해가 어긋나면서 논란이 일었는가 하면, 대의원총회 선임과 관련한 일부 이사와 공방전이 가열되기도 했다.

오늘
지나친 의사소통, 오히려 역효과

이같이 최 회장의 KTA 운영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최 회장을 지지했던 이들의 일부가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대로 최 회장의 KTA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지지자는 거의 없다. 선거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거나 떠나면서, 최 회장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회장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한 인사는 KTA를 운영함에 있어 선거 때의 지지자들이 계속 옆을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KTA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모는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당연하다. 결국 일은 사무처와 선임 임원들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 스스로 선거 때의 지지자가 없어도 KTA 운영을 잘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 회장이 선거 때 지지자들은 물론 사무처, 이사회, 언론 등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많은 사람과 소통한다는 자체를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는 않을 성싶다. 하지만 많은 소통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재고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다.

위에서 말했듯, 최 회장은 선거에서 당선된 뒤

“저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같은 태권도인이니 모두 안고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그렇지만 굳이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로만 KTA를 운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다. 당선된 지 1년도 훨씬 넘었다. 최 회장을 바라보는 많은 태권도인은 지지자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상근이사를 애써 지지자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물론 당시 지지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당신을 지지했기 때문에 회장에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절대 상근이사는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첫 상근이사를 지지자 가운데에서 선임했었지만, 이 인사는 “능력을 떠나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구태여 지지자 중에서 상근이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물론 지지자 가운데에 적임자가 있으면 외면할 이유가 없겠지만….

내일
기대감 회복 가능성 높아

무엇보다도 내일이 중요하다. 최 회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난 1년 4개월 남짓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 효과를 태권도인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부족했던 점은 수정·보완해 KTA 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태권도인의 최창신

호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생기게 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최대한 준비해 나가면서 일하는 KTA로서 남은 임기 동안 최 회장이 밝힌 다섯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KTA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올해 역점 사업인 ‘경기장 문화의 핵심적 변화’는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사업이다. 그래야 태권도계가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다.

만약 반발에 부딪쳐 중도에 포기하거나 시도 자체도 못해 본다면 다른 사업도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KTA 이사회와 사무처, 각 시도 협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협조로 공고한 KTA 운영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의사 결정 과정의 시스템화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취임 초 KTA 건물 매입을 시도했다가 대의원총회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실패했던 사례에서 얻어야 하는 교훈이기도 하다. 취임 초기라 준비가 부족했겠으나, KTA 이사회와 사무처 그리고 시도 협회가 각자 따로일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대로 보여 준 셈이다.

현재 경기장에서 큰 말썽이 없고 국제 대회 성적이 좋은 만큼 얼마든지 분위기 반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회장이 많은 업무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새 상근이사를 잘 선임한 후 새 상근이사와 사무처에 더 많은 일을 던져 준다면, 다시 처음 회장에 당선됐을 때의 지지를 회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최창신호에 바란다

종주국 협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글 김철오 국기원 이사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는 태권도 4개 단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 전신인 대한태수도협회가 1961년 창설되었으니 무려 57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국기원이 1972년, 세계태권도연맹(WT)이 1973년, 태권도진흥재단이 2005년에 각각 설립된 점과 비교하면 그 역사성과 정통성에서 단연 으뜸이다. KTA에서 길러진 인재들이 국기원·WT·진흥재단으로 흩어져 오늘날 세계 태권도 행정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KTA는 종주국 협회이다 보니 그 구실이 대한체육회 가맹 타 경기 단체와는 달라야 한다. 타 경기 단체는 국제 대회에 가서 메달만 많이 따면 되지만, KTA는 경기력 향상은 물론 전국 1만 개 회원 도장에도 소홀할 수 없다. 출산을 저하로 인한 어린이 수련생의 감소로 도장 경영 상태는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회원 수가 타 경기 단체보다 월등히 많다 보니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첫출발한 최창신호는 그 어느 때보다 짊어져야 할 책무가 막중하다.

KTA 전무이사과 부회장을 거쳐 WT 사무처장과 국기원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필자로서는 새 출발하는 KTA가 가야 할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KTA는 경영이 힘든 일선 도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특히 성인 수련생을 유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도장은 성인이 수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복수의 관장이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 도장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도장에 대해서는 KTA가 발전 기금에서 일정액을 융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또 전국 도장들은 어린이들이 하교하는 오후 3시 이전에는 텅 비어 있다. 오전 시간 아파트 인근 도장들은 시설을 그냥 놀려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간대를 활용해 동네 노인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게 가능하도록 KTA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둘째, KTA는 경기 규칙과 전자 호구 개발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원래 경기 규칙 제정은 KTA의 업무였다. 연간 전국적으로 수백 개 대회가 열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종주국 협회는 경기 규칙에 관한 한 가장 많은 자료와 사례 및 연구 기관이 있다. 태권도를 가장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경기 규칙도 종주국 일선 사범과 코치가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규칙은 WT 주도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개정되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지난해는 한 해 동안 두 차례나 경기 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일선에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경기 규칙 개정엔 KTA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규칙 소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최상의 경기 규칙을 항상 연구해 WT에 제시해야 한다.

전자 호구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고라는 국내 IT 업체의 협조를 얻어 최선의 전자 호구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종주국에는 어느 나라보다 태권도 인적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경기 규칙과 전자 호구를 연구하고 실험해 세계 무대에 내놓을 의무가 있다.

셋째, 행정에 관한 문제다. 종주국답게 협회 행정도 선진화되고 독자적일 필요가 있다. KTA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취지에 맞게 행정 조직도 개편돼야 한다. 지금의 협회 행정 체계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맞춰 소극적으로 편제가 이뤄져 있다. 하지만 KTA는 연간 예산 100억 원이 넘는 거대 단체다. 관련된 인구로는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 중 1위다. 협회 행정에 보다 많은 태권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를 증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듯싶다. 또 집행부에 다양한 인력풀을 보강하고 지난 선거 당시 반대파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제는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집행부를 흔들고 보는 해묵은 관행이 깨져야 한다. 반대편에 섰던 태권도인도 더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KTA**

최창신호에 바란다

행정체계 효율성 제고해 순항 위한 동력 확보하자



클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

2016년 11월 28일, 제28대 대한태권도협회 수장으로 선출된 최창신 회장은 자신감이 넘쳤다. “다른 경기 단체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훌륭한 조직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장으로서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체제는 주위의 기대 속에 순항을 기원하며 닳을 올렸다. 각계 인사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적폐 중 하나였던 기술전문위원회를 혁파했다. 또 도장사업부를 신설해 일선 태권도장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홍보 마케팅도 보강했다. 아울러 심판 처우 개선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임 심판제를 도입하고 우수한 초등학교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강화 훈련도 시행했다.

‘최창신호(號)’가 출항한 지 시나브로 1년 5개월이 됐다. 되돌아보면 식상한 표현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합리적 행정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힘차게 출발했지만 거센 풍랑과 암초에 걸려 순항하지 못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모든 책임을 최 회장에게 돌릴 수 없지만, 강점으로 내세웠던 ‘행정’에서 잡음과 논란이 많았다. 또 지지층을 공고히 하면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포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지지층의 일부가 이탈하면서 최창신호의 동력과 기반이 흔들렸다.

따라서 지금처럼 최창신호를 운항해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 하루빨리 정무적 감각과 책임감이 강한 상근 이사를 선임하고, 보직 부회장들의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몇몇 임원들도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참된 마음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순항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최 회장은 여덟 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 합리화 ▲태권도 수련 인구 다변화를 통한 도장 활성화 ▲동

승 보호자 탑승 의무 폐지 추진 ▲국가대표 선발전 및 훈련 체계 정비 ▲경기장 문화 개선 ▲심사제도 개선 ▲유관 단체 공조 강화 등이다.

여덟 가지 공약 중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미비한 것도 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는 해도 늦장을 부려선 안 된다. 특히 행정체계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는 더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최 회장 체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대한체육회가 경기 가맹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등급 분류에서 C등급이다. 다른 경기 단체가 대한태권도협회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최 회장의 말이 무색하다. 올해 안에 대한체육회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충족해 B등급이 되도록 임직원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전에 보여 줬던 강단과 담대한 결기를 최 회장이 보여 줬으면 좋겠다. 이는 소통과 교감을 중시하되 강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회장 체제는 희망적이다.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을 잘 이겨 내며 내공도 쌓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나 새롭게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할 요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개혁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이 말의 진정성과 실현 의지를 믿는다. 



부 른 다,
가 자,
그 리 고
포 효 하 자!



응비의 나라를 활짝 펴라!
 천하를 움켜쥐려는 야망에 불타는 몸놀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도약하고 약동하는
 움직임은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뒤흔든다[驚天動地(경천동지)].
 기운차게 내지르는 주먹은 허공을 가르다.
 세차게 내뿜는 발길은 공기를 쪼갬다.
 아침 해가 하늘에 떠오르는 [旭日昇天(옥일승천)]
 기세는 사해를 움츠리게 한다.

‘태권도 종가’의 성가를 드높여라!
 열국(列國)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종주(宗主)의 자존심을 곧추세운다.
 ‘태권 도령’과 ‘태권 남자’는 정상에서 사자후를
 토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제23회 아시아 겨루기 선수권대회(5월 25~26일)와
 제5회 아시아 품새 선수권대회(5월 24일)가 그들이
 용틀임할 마당이다.
 가자, 베트남 호치민으로!

한국 태권도, 아시아를 또다시 호령하라



한국 태권도가 용틀임한다. ‘종가’로서 빼어난 몸놀림으로 자존심을 한껏 곧추세울 한마당은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겨루기)다. 오는 5월 25~26일 이틀(일수 기준)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펼쳐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종합 우승을 노린다. 김종기 감독(58)이 이끄는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은 그날 정상에 우뚝 서 포효를 터뜨리리라 다짐하며 투혼을 불태우고 있다.

‘종가’ 한국, 다시 자존심을 곧추세울까?

한국은 태권도 발상지이다. 그런 한국에 아시아 마당은 어쩌면 좁을지 모른다. 2년 전에 열린 지난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결과를 보면 한국의 종합 우승이라는 목표치는 결코 높지 않다. 2016 필리핀 대회에서, 한국은 금 6개, 은 2개, 동 2개를 각각 획득하며 가뿐하게 정상에 올랐다. <표 1> 참조 2위 이란(금 3개, 은 2개, 동 3개)을 가볍게 제쳤다. 딱 두 배의 금메달을 거둬들였다. 3위 타이베이(금 2개, 은 2개)보다는 세 배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어쨌든 3강은 한국·이란·타이베이였다. 4위 중국(금 2개, 동 5개) → 5위 태국(금 1개, 은 2개, 동 2개) → 6위 우즈베키스탄(금 1개, 은 1개, 동 2개) → 7위 필리핀(금 1개, 은 1개, 동 1개)이 뒤를 이으며 금맛을 봤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 가맹국은 모두 마흔세 나라다. 한국이 몸담은 동아시아에 7개국을 비롯해 서남아시아에 7개국, 동남아시아에 11개국, 중앙아시아에 5개국, 서아시아에 13개국이 각각 포진해 있다. 이들 가운데 필리핀 대회에서

한 개의 동메달을 딴 4개국(팔레스타인·인도네시아·카타르·인도)을 포함해 모두 18개국이 메달을 쟁다.

그렇다면 필리핀 대회에서 이뤘던 형세는 이번 베트남 대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까? 큰 변동은 없으리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인다. ‘아시아 5룡’으로 일컬어지는 한국·이란·타이베이·중국·태국이 올 대회에서도 강세를 떨치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감독의 전망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무주

에서 열린 WT(세계태권도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엿볼 수 있듯 이란·타이베이·중국·태국 정도가 우리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강호들이다.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했다.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은 종합 우승의 개가를 올렸다. ‘태권 도령’ 세 명(김태훈·정윤조·이대훈)과 ‘태권 남자’ 두 명(심재영·이아름)이 금빛 발차기를 뽐냈다. 당시 ATU 가맹국 가운데 중국(6위: 금 1개, 동 3개) → 이란(11위: 은 3개, 동 1개) → 태국(13위: 은 1개, 동 2개) → 우즈베키스탄(14위: 은 1개, 동 1개) → 타이베이·베트남(공동 15위: 은 1개) → 요르단·카자흐스탄(공동 18위: 동 1개) 등이 메달을 땀다. 이를 무대를 좁혀 베트남 대회에 대입해 보면, 앞서 말한 5강이 선두권을 이루고 우즈베키스탄·베트남·요르단·카자흐스탄이 5강을 넘볼 다크호스로 손꼽힌다고 할 수 있다.

우승 재현 드라마는 이미 시작됐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과녁은 종합 우승이다. 김종기 감독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신 있게 정중양에 적응시키겠다고 밝혔다.

“각국 모두 이번 대회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초전으로 삼고 있다. 아시안 게임에 앞서 서로의 전력을 탐색할 수 있는 마지막

<표 1> 2016 필리핀 아시아 선수권 대회(겨루기) 종합 순위

순위	국가	메달		
		금	은	동
1	한국	6	2	2
2	이란	3	2	3
3	타이베이	2	2	0
4	중국	2	0	5
5	태국	1	2	2
6	우즈베키스탄	1	1	2
7	필리핀	1	1	1
8	카자흐스탄	0	1	4
	타지키스탄	0	1	1
9	베트남	0	1	1
	캄보디아	0	1	1
12	몽골	0	1	0
	마카오	0	1	0
14	요르단	0	0	5
	팔레스타인	0	0	1
15	인도네시아	0	0	1
	카타르	0	0	1
	인도	0	0	1

무대다. 엔트리 신청이 마감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누가 출전할지는 확실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지난해까지 드러난 결과를 볼 때 각국의 주목할 만한 선수는 대략적으로 파악했다. 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김 감독은 전력 노출을 꺼려 노리고 있는 정확한 금메달 수는 밝히려 하지 않았다. 두루뭉술하게 자체 전력을 평가했다. 그 말속에 담겨진 뜻에서 유망 종목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으로 반타작에 가까운 결실을 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 각 8체급씩 모두 16개 체급에 걸쳐 자웅을 겨룬다. 김종기호는 남 9명, 여 13명 등 모두 22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22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금을 수확해야 기대치를 충족한다. 그동안 성적을 감안할 때 우승이 유력한 체급은 ▲남자부에서 -58kg(장준), -80kg(김훈·김지훈), +87kg(인교돈·이승환) ▲여자부에서 -49kg(강보라·심재영), -67kg(김잔디·서소영), -73kg(오혜리) 등이다. 그리고 여자부 -46kg(이예지), -53kg(하민아·임규별)도 충분히 금메달을 넘겨볼 만한 힘을 갖췄다.

한국 태권도의 간판 격인 두 월드 스타인 이대훈(남자 -68kg)과 김태훈(-58kg)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달 초에 열리는 2018 WT 월드컵 그랑프리 시리즈 1(로마)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리핀 대회는 포기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팀 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분명 존재한다. 더구나 10대 선수가 네 명씩이나 된다는 점도 이런 시각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김 감독은 이를 일축했다. “장강의 앞 물결은 뒤 물결에 밀리게 마련이다. 오히려 신예의 넘치는 패기가 빛날 때 더욱 모미가 있지 않을까?”라며 ‘10대의 반란’을 기대했다.

실제로 10대 4명(장준·이예지·강보라·김민선)은 금메달이 확실시되거나 유력하다. 이들은 지난 2월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제주)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며 이번 대회 금기 대주로 떠올랐다. 네 명 가운데서도 장준과 강보라는 한국의 종합 우승 달성을 이룰 10대 쌍두마차다. 장준은 올 1월 2017 WT 월드컵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중국 우시(歙錫)) -58kg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성할 수 있는 자질을 뽐냈다. 비록 결승전에서 김태훈에게 졌으나 이미 10대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보라가 보이는 상승세도 대단하다. 강보라는

남자 -58kg 장준

2000.04.16 | 홍성고
- 2017 WT 월드컵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58kg 준우승
- 2017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페더급 우승
- 2016 세계 주니어 선수권 -51kg 우승



남자 -63kg 조강민

1996.06.04 | 한국체육대학교
- 2015 춘천 코리아 오픈 -58kg 우승
- 2013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라이트급 우승



남자 -68kg 신동윤

1995.10.13 | 삼성에스원
- 2016 월드컵 선수권 혼성부 단체전 우승
- 2015 춘천 코리아 오픈 -68kg 우승
- 2015 세계 선수권 -68kg 3위



남자 -68kg 김석배

1997.10.13 | 삼성에스원
- 2016 아시아 선수권 -63kg 우승
- 2015 춘천 코리아 오픈 -63kg 우승
- 2014 세계 주니어 선수권 -59kg 우승



남자 -74kg 김대용

1997.04.01 | 한국체육대학교
- 2017 회장기 대학 대학 -74kg 우승



남자 -80kg 김지훈

1997.10.08 | 충남대학교
- 2016 대학 개인 -80kg 우승



남자 -80kg 김훈

1992.04.04 | 삼성에스원
- 2016 코리아 오픈 -74kg 우승
- 2015 WT 월드컵 그랑프리 시리즈 1 -68kg 우승
- 2015 춘천 코리아 오픈 74kg 남자 단체전 우승



남자 +87kg 인교돈

1992.06.27 | 한국가스공사
- 2017 WT 월드컵 그랑프리 파이널 +80kg 준우승
- 2017 WT 월드컵 그랑프리 3 +80kg 우승
- 2017 세계 선수권 -87kg 3위



남자 +87kg 이승환

1993.08.02 | 한국가스공사
- 2017 유니버시아드 -87kg 준우승
- 2016 코리아 오픈 -87kg 3위



여자 -46kg 이예지

2001.08.18 | 포항해공공업고
- 2015 세계 카дет 선수권 -44kg 우승



여자 -49kg 강보라

2000.11.13 | 성주여자고
- 2016 아시아 유소년 선수권 -49kg 우승
- 2015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밴텀급 우승





여자 -49kg 심재영
1995.09.14 | 고양시청
- 2017 세계 선수권 -46kg 우승
- 2016 코리아 오픈 -46kg 우승
- 2014 코리아 오픈 -46kg 우승



여자 -53kg 하민아
1995.11.09 | 삼성에스원
- 2015 세계 선수권 -49kg 우승
- 2012 세계 주니어 선수권 -52kg 우승



여자 -53kg 임금별
1998.06.23 | 한국체육대학교
- 2015 세계 선수권 -53kg 우승
- 2014 세계 주니어 선수권 -55kg 준우승



여자 -57kg 이아름
1992.04.22 | 고양시청
- 2017 WT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1 -57kg 우승
- 2017 세계 선수권 -57kg 우승
-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57kg 우승



여자 -57kg 김민선
1999.07.12 | 한국체육대학교
- 2015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웰터급 3위



여자 -62kg 김소희
1992.07.28 | 삼성에스원
- 2017 WT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1 -57kg 준우승
- 2017 세계 선수권 -62kg 3위
- 2013 세계 선수권 -57kg 우승



여자 -67kg 서소영
1991.08.24 | 서울시청
- 2016 춘천 코리아 오픈 67kg 우승
- 2015 월드컵 선수권 단체전 3위



여자 -67kg 김잔디
1995.07.24 | 용인대학교
- 2017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67kg 우승
- 2017 세계 선수권 -67kg 3위



여자 -73kg 오혜리
1988.04.30 | 춘천시청
- 2017 세계 선수권 -73kg 준우승
- 2016 WT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67kg 우승
- 2015 세계 선수권 -73kg 우승



여자 +73kg 김나나
1992.03.10 | 인천광역시 동구청
- 2017 WT 월드 그랑프리 시리즈 1 +67kg 준우승
- 2015 춘천 코리아 오픈 +73kg 우승



여자 +73kg 이다빈
1996.12.07 | 한국체육대학교
- 2017 WT 월드 그랑프리 파이널 +67kg 준우승
- 2017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73kg 우승
- 2016 아시아 선수권 -73kg 우승



2015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밴텀급과 2016 아시아 유소년 선수권 -49kg에서 각각 우승하며 기대주로 각광받았다. 그 기세는 해가 갈수록 치솟았다. 올 국가대표 선발 대회에서, 이 체급 절대 강자인 2017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 정상에 올랐던 김소희까지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 필리핀 대회에서, 금을 획득<표 2> 참조 했던 김석배(남자 -63kg)와 인교돈(남자 -87kg)은 각각 한 체급씩 올라 2연패에 도전한다. 역시 금을 따냈던 이다빈(여자 -73kg)도 +73kg에서 2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렀던 하민아(여자 -49kg)와 이아름(여자 -57kg)은 결코 좌절은 되풀이될 수 없다며 단단히 설욕을 버리고 있다. 지난해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 여자부 -46kg에서 깜짝 우승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심재영과 같은 대회 여자부 -73kg에서 은메달을 땀던 오혜리도 정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투지를 불태운다.

지난 2월 11일 인천 선수촌에 입촌하며 '금메달 사냥 100일 작전'에 돌입한 김종기호는 한 치도 빈틈없는 강행군을 벌이며 결전의 그날을 기다린다. 오전 웨이트·서킷 트레이닝, 오후 전문 기술·실전 훈련, 저녁 자율 개인 훈련 등으로 탄탄한 전력을 다지고 있다. 지난 3월엔 베트남·일본과 합동 훈련을 벌이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4

<표 2> 2016 필리핀 아시아 선수권 대회(겨루기) 한국 성적

순위	체급	수상자
1	남자 -63kg	김석배
	남자 -68kg	김제업
	남자 -87kg	인교돈
	여자 -53kg	김민정
	여자 -73kg	이다빈
2	여자 +73kg	안새봄
	여자 -49kg	하민아
3	여자 -57kg	이아름
	남자 -74kg	김 훈
	여자 -62kg	전채은

월 6~11일 멕시코와 치르는 합동 훈련 뒤 대회 개막 닷새가량을 남기고 호치민으로 떠날 로드맵도 짜여져 있다.

“태권 중주국 한국을 찾는 외국 팀이 많다. 안방에 앉아서 실전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다. 5월부터는 코치와 선수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바탕을 둔 관계 형성을 마무리 한다. 지도자는 선수 마음을 읽고, 선수는 지도자를 믿어야 한다. 상호 간 굳은 믿음의 ‘찰떡궁합’이 이뤄질 때, 자연스럽게 좋은 과실을 거둘 수 있다.”

김 감독의 소신인 ‘인간 관계론’은 과연 달콤한 과실로 나타날까? 그 가능성은 무척 높다고 보인다. **KA**

INTERVIEW

진천선수촌 = 글 최규섭 사진 J&J 미디어 제공

김종기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

“‘증가’의 자존심에 걸맞은 결실 올리겠다”

“최강의 전력은 아니다. 그렇다고 약체 전력도 아니다. 기대를 충족할 만한 무난한 전력이라고 생각한다.”

김종기 국가대표팀 감독(58)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초연한 표정을 내비쳤다. ‘승부사로 이름난 명조련사답게 냉정한 시각으로 형세를 분석했다.

■ 지난 2월 국가대표팀 선발전에서 신예 돌풍이 일어다. 그래서인지 국가대표팀 전력이 악화됐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 “그렇지 않다. 물론 10대 고교생이 세 명(선발전 당시는 네 명)씩이나 뽑힘으로써 외형상으로 느껴지는 힘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대교체는 늘 있게 마련이다. 오히려 신선한 바람이 분 데 만족한다.”

■ 목표를 달성하는 데엔 차질이 없다는 말인지?

■ “그렇다. 온 힘을 다하면 뜻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한다.”

■ ‘증가’로서 한국 태권도에 대한 기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목표를 밝혀 달라?

■ “당연히 종합 우승이다. 사전에 전력 노출을 피하려는 전략상 목표치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이번 대회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전초전이라 할 만하다. 아시안 게임에서 5~6개의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에 대입해 이번 대회 목표치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 무엇일까?

■ “동기 부여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세계 태권도연맹(WT)이 부여하는 올림픽 포인트 40점을 획득한다. 2020 도쿄 올림픽 출전에 초점을 맞춘 선수라면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금을 노릴 성싶다. 나를 비롯한 우리 코칭스태프는 이 점을 잘 깨닫고 있다. 그만큼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 코치진과 호흡은 잘 맞는가?

■ “대단히 만족할 만한 환상적 호흡을 이루고 있다. 모두 맡은 바를 최대한 이루려고 애쓴다. 고마울 따름이다. 특히 코치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전문회 코치(48)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독과 코치진 간, 감독과 선수 간 교량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

■ 태권도계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솔직하게 밝혔으면 한다.

■ “경기 단체 지상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성적 일 듯싶다. 이를 위해선 전 태권도인들이 한마



김종기 | 1960.06.26 | 대한태권도협회 전임 감독

음 한뜻이 되어 한다. 그야 선수가 본받고 하고 싶다는 의욕으로 총만대 120%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

김 감독은 ‘우승 제조기’로 불릴 만하다. 2013년 처음 대한태권도협회 전임 감독으로 선임돼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래 풍성한 수확을 올렸다. 그해 푸에블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8년 만에 종합 우승을 되찾으며 개성가를 불렀다. 남녀 각각 세 체급씩 여섯 체급을 휩쓰는 대단한 성과였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도 기세를 이어 갔다. 남 셋과 여 셋 등 모두 여섯 개의 금을 따내며 소리 높여 승전고를 울렸다. 4년 전 광주 아시안 게임보다 두 개가 는 금메달 숫자였다. 2년 동안 휴식기를 가진 뒤 2017년 사령탑에 복귀해 여전히 녹슬지 않은 조련술을 뽐냈다. 이해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다섯 명(남 셋·여 둘)을 정상으로 이끌며 한국 태권도에 종합 우승을 선물했다.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그날그날 최선을 다하자.” 김 감독이 좌우명으로 삼은 인생철학이다. 그렇기에 오늘을 충실히 산 뒤 내일을 기약하려 온 힘을 쏟는다. 두 달 뒤 김 감독이 그날의 어제인 오늘의 노력을 되새기며 웃음을 지을지 무척 기대된다. **KFA**

겨루기 대표팀 코칭스태프



코치 전문희
1970.01.25
한성고등학교 감독



코치 이동완
1975.05.24
대한태권도협회 전임 코치



코치 이석훈
1979.10.01
동의대학교 교수



코치 이원재
1980.10.30
한국가스공사 코치



코치 양소이
1984.01.01
대한태권도협회 전임 코치



의무 김동휘
1983.08.09
대한태권도협회



전력분석관 장세웅
1979.07.06
대한태권도협회

한국의 빛나는 금빛 연기, 호치민을 수놓는다

2연패(霸)를 몰러 나간다. 한국 품새 국가대표팀이 아시아 마당을 휩쓸려는 투혼을 불태운다. 금빛 발차기가 빛날 무대는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다. 오는 5월 24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펼쳐질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3회 및 2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쌓으려는 열망에 가득 차 있다. 6년 전 역시 호치민에서 벌어진 제2회 대회 때, 한국은 첫 우승의 달콤한 꿈을 꿔다. 그리고 2년 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4회 대회 때, 한국은 역시 홀로 정상을 거닐었다. 한국의 파죽지세가 돋보였던 이 대회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용솟음치는 기세를 뽐내려 한다.

한국, 징검다리 우승 징크스 깨다

한국은 2008년 중국에서 열린 원년 대회엔 참가하지 않았다. 한 번 거르고 4년 뒤 열린 제2회 대회에 첫 얼굴을 내민 한국은 태권도가 기원한 나라다운 모양새를 빛냈다. 한국 여자 품새를 대변하던 강수지가 29세 이하에서 금을 차지하며 개선가를 부르자, 황왕곤·이진한·김성희·성연화·이숙경이 화답의 노래를 불렀다.<표>참조 모두 개인전에서 수확한 금 6개였는데, 당연히 정상을 밟은 나라는 한국이었다. 제3회 대회(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금 5개, 은 2개)은 아깝게 패권을 내줬다. 은 한 개 차이로 이란(금 5개, 은 3개)에 우승을 내주

고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섞에 누워 쓸개를 맛보며[臥薪嘗膽(와신상담)] 설욕을 버린 한국은 제4회 대회서 맹위를 떨치며 왕좌를 되찾았다. 각각 2관왕에 오른 오창현·강소희·서영애를 비롯해 모두 8명이 9개의 금을 따냈다. 압도적 우세를 보인, 역대 최고의 성적이었다.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이만 한 위업을 이룬 적은 없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려 한다. 징검다리식 우승 징크스를 깨고 첫 연속 우승의 승전고를 울리려는 야망에 불타고 있다. 이제까지 다섯 번 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은 짝수 대회(2·4회) 때만 패권을 안았다.



<표 1> 아시아 품새 선수권 대회 한국 역대 수상자

회	연도	개최지	메달	구분	수상자
1	2008	중국		불참	
2	2012	베트남 호치민	금	남자 29세 이하 개인전	황왕곤
			금	남자 39세 이하 개인전	이진한
			금	남자 39세 초과 개인전	김성희
			금	여자 29세 이하 개인전	강수지
			금	여자 39세 이하 개인전	성연화
			금	여자 39세 초과 개인전	이숙경
		종합	1위(금 6개)		
3	2014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금	남자 30세 이하 개인전	윤한동
			금	남자 40세 이하 개인전	배진홍
			금	여자 40세 이하 개인전	이해진
			금	여자 50세 이하 개인전	김연부
			금	페어전	이해진
			은	남자 50세 이하 개인전	오혁주
			은	여자 30세 이하 개인전	이재희
			종합	2위(금 5개, 은 2개)	
			금	남자 30세 이하 개인전	오창현
			금	남자 40세 이하 개인전	송기성
금	남자 50세 이하 개인전	이진한			
금	남자 60세 이하 개인전	김재진			
금	남자 60세 초과 개인전	권형남			
금	여자 30세 이하 개인전	강소희			
금	여자 50세 초과	서영애			
4	2016	필리핀 마닐라	금	30세 이하 페어전	오창현
			금	30세 초과 페어전	강소희
			은	여자 40세 이하 개인전	성연화
			은	여자 50세 이하 개인전	성연화
			은	여자 50세 이하 개인전	하인숙
			동	30세 초과 단체전	송기성
			동	30세 초과 단체전	김재진
			동	30세 초과 단체전	권형남
종합	1위(금 9개, 은 2개, 동 1개)				
5	2018	베트남 호치민		?	

<표 2> 제5회 아시아 품새 선수권 대회 금메달 수

구분	나이	남	여	계
개인전	30세 이하	1	1	2
	40세 이하	1	1	2
	50세 이하	1	1	2
	60세 이하	1	1	2
	65세 이하	1	1	2
	65세 초과	1	1	2
	소계	6	6	12
페어전(2명)	30세 이하	1(혼성)		1
	30세 초과	1(혼성)		1
	소계	2(혼성)		2
단체전(3명)	30세 이하	1	1	2
	30세 초과	1	1	2
	소계	2	2	4
총계		18	18	



한국, 걸림돌 걷어내고 정상으로 간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번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지난 1월 말 선발전을 치러 뽑았다. 남녀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은 풍년 가을 부를 태세를 갖춰 가고 있다. 아직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가 구성되지 않아 합숙 훈련을 벌이지 못하고 있긴 하다. 그래도 '종가'의 자존심을 곧추세우려는 이들은 저마다 구슬땀을 흘리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각자 훈련에 여념이 없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은 이번 대회를 2014년 3월 19일 제정된 WT(세계태권도연맹) 품새 경기 규칙에 따라 치르기로 했다. 이에 맞춰 개인전 연령 구분이 보다 세분화하면서, 금메달 수가 네 개 늘었다. 남녀 모두 공통으로, 종전 50세 초과 종목이 60세 이하, 65세 이하, 65세 초과로 나뉘어졌다. 단, 세계 선수권에서 금을 다투는 자유 품새는 종목 자체로는 실시되지 않는다. 자유 품새는 단체전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서 연기해야 하는 두 가지 품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대회에서 종합 순위 산정에 절대적 요소인 금메달 수는 모두 18개<표 2> 참조다. ▲개인전에 남녀 각 6개씩 12개 ▲페어전(혼성)에 2개 ▲단체전(3명)에 남녀 각 2개씩 4개 등 모두 18개 세부 종목에서, ATU 회원 43개국 이 금을 놓고 각축을 벌인다.

ATU는 또 회원국의 고른 성장과 한 나라의 독주를 피하기 위해 한 나라가 4개 디비전 이내(개인전 기준)에서만 출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한국은 여자가 3개 디비전에서만 출전해 개인전에선 총 7명이 금을 노린다. 단체전은 남녀 모두 30세 이하에만 출전한다. 허승재 ATU 품새 심판 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선발됐다. 특히 단체전은 경희대학교가 2명(강완

진·최동아)이 뽑힌 점을 빼면 팀별로 골고루 대표가 나왔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태성 가천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보이면서도 한 가지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전 종목에 출전해야 그만큼 종합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여자 개인전이 풀 쿼터를 채우지 못한 점은 아쉽다."

한국의 종합 우승을 이끌 쌍두마차로는 강완진(개인전 남자 30세 이하)과 나태주(단체전 남자)가 손꼽힌다. 허 부위원장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강완진의 우승 전선엔 이상 징후가 없다."라고 낙관했다. 강완진은 단체전에도 출전해 2관왕을 노린다. 정 교수는 "나태주의 기량은 세계 정상 수준이다. 외국 선수들도 그의 연기를 모방할 정도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개인전 남자 30세 이하 금을 놓친 적이 없다. 제2회(황왕곤·29세 이하) - 제3회(윤한동) - 제4회(오창현) 등 출전 3개 대회에서 연거푸 금 연기를 펼쳤다. 강완진은 이 맥을 이어 갈 힘과 솜씨를 지녔다는 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일치한다.

김연부(개인전 여자 50세 이하)에도 눈길이 간다. 이 대회에서, 김연부는 이번 한국 팀 12명 가운데 유일하게 메달 맛을 봤다. 제3회 대회 개인전 여자 50세 이하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연부는 4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린다. 김효민(개인전 여자 30세 이하)도 시선을 끌어모은다. 허 부위원장은 "나이(18)에 비해 대차게 연기하는 김효민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이 종합 우승으로 가는 데 어느 나라가 걸림돌이 될까? 정 교수는 대만·베트남·이란·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을 꼽았다. 허 부위원장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홍콩을 먼저 든 뒤, 필리핀을 다크호스로, 급성장한 태국·대만을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나라로 각각



개인전 남자 30세 이하 강완진
1998.11.08 | 경희대학교
- 2017 종별 선수권 대학부 페어전 우승
- 2016 협회장배 선수권 남고 3학년부 우승



개인전 남자 40세 이하 김도경
1984.01.06 | 대전광역시협회
- 2016 WT 세계 선수권 40세 이하 3위
- 2016 대통령기 단체 대학 태백부 우승



개인전 남자 50세 이하 김학동
1977.09.23 | 교수회
- 2017 실업연맹 최강전 성인4부 우승
- 2016 계명대학교 총장배 태백2부 우승



개인전 남자 60세 이하 배웅신
1967.07.17 | 화랑체육관
- 2016 우석대학교 총장기 지태2부 우승
- 2014 나사렛대학교 총장배 장년2부 우승



개인전 여자 30세 이하 김효민
2000.01.06 | 한국체육대학교
- 2017 협회장배 선수권 여고 3학년부 우승
- 2016 코리아 오픈 17세 이하 3위



개인전 여자 40세 이하 김은주
1984.02.11 | 청지회 태권도장
- 2017 협회장배 선수권 장년부 페어전 우승
- 2016 대통령기 단체 대학 장년부 페어전 우승



개인전 여자 50세 이하 김연부
1972.01.22 | 국가대표 참태권도장
- 2017 협회장배 선수권 지태1부 우승
- 2014 아시아 선수권 50세 이하 우승

단체전 남자



나태주
1990.12.21
K타이거즈



한영훈
1993.11.28
가천대학교



강완진
1998.11.03
경희대학교

단체전 여자



곽여원
1994.03.18
강화군청



윤지혜
1997.10.05
한국체육대학교



최동아
2000.01.12
경희대학교

점찍었다. 그렇다면 공약수인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대만·태국을 한국의 우승 전선에 영향을 줄 복병으로 손꼽을 수 있겠다.

한국, 변수를 다스릴 여의봉 갖나?

ATU는 이번 대회에 새 품새와 자유 품새를 도입해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시험 무대인 이번 대회 성격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전은 ▲예선전과 8강전에선 공인 품새 1(고려·금강·태백·평원·십진)과 2(동일)가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선 공인 품새(동일)와 새 품새[비각 2·비각 3(나르사)]가 각각 실시된다. 또 단체전은 ▲예선전과 8강전에선 공인 품새(고려·금강·태백·평원·십진)와 새 품새[비각 2·비각 3(나르사)]가 ▲준결승전과 결승전에선 새 품새(동일)와 자유 품새가 각각 연기된다. 이 같은 경기 규칙 변경이 순위 다름에 크게 작용할 여지가 많으리라 예상된다. 새 품새 채택은 가라테를 의식한 데서 비롯됐다. 허 부위원장은 “가라테는 순간적 힘이 폭발적이다. 동작을 보면 경쾌할뿐더러 엄숙하다 못해 멋져 보일 정도다. 이를 압도하기 위해 새 품새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연성에 의해 도입된 새 품새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로 구성돼 있다. 송남정 우석대학교 교수는 “공인 품새 구성 요소인 앞

차기·돌려차기·옆차기 등 기본 발차기 외에 새 품새는 다채로운 발차기로 구성돼 있다. 선수들로서는 무척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비각은 뛰어 옆차기·나래차기·발붙여 차기·540도 뒤후려차기·뛰어 몸돌아 뒤차기·돌려차기 3단계·뛰어 돌개차기 등으로, ▲나르사는 뛰어 몸돌아 뒤차기·나래차기·뛰어 뒤후려차기·뛰어 돌아 빗겨차고 돌려차기·540도 뒤후려차기·가위 3방차기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라고 소개했다.

문제는 새 품새와 자유 품새 채택이 지난해 말에서야 결정되는 바람에, 이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송 교수는 “자유 품새에서 프로그램 완성 작업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더구나 완성된 프로그램을 소화해 능숙하게 연기하는 데엔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 어느 팀이 이 아킬레스건을 보다 더 잘 치유할 수 있었느냐가 성적을 좌우할 요소일 듯싶다.”라고 내다봤다.

과연 한국은 이 변수를 상수로 만드는 여의봉을 갖출 수 있을까? 대회의 막이 올라가면 그 실현 여부가 판명된다. **KT**

도움말 허승재 아시아태권도연맹 품새 심판 부위원장
정태성 가천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송남정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INTERVIEW

글 최규섭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송남정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아시아 품새 발전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는 결실을 올리기를”



“결실에 영향을 줄 변수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 태권도의 저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수다. 4연패 과녁에 명중하리라 본다.”

송남정 우석대학교 교수는 서슴지 않고 낙관론을 내비쳤다.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이 결림돌을 건어 내고 정상에 오르리라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품새가 세계적으로 지평을 넓혀 가는 추세에 앞장서며 힘을 쌓아 온 한국 품새의 능력을 굳게 믿고 있음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 먼저 품새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싶다. 품새의 외연 확장이 두드러져 보이는데 긍정적 현상인지 궁금하다.

“품새는 격세지감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선 14년 전 제1회 대한태권도협회장배 품새 대회에서 비로소 싹을 틔웠다. 그 뒤 2년 간격으로 WT(세계태권도연맹)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와 아시아 품새 선수권 대회가 잇달아 창설되며 국제화의 물결을 탔다. 올해엔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내년엔 팬암 게임에서도 첫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짧은 연륜에도 비약적 성장은 품새 수련 인구 증가를 비롯한 태권도 저변을 넓히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ATU(아시아태권도연맹)는 이번 대회부터 자유 품새와 새 품새를 처음 채택했다. 기존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보는가?

“그럴 개연성이 높다. 먼저 자유 품새는 2012 WT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 때 첫선을 보였는데, ATU도 이번 대회부터 신설했다. 심판의 채점 기준이 있긴 해도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판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 품새는 더 그렇다. 지난해부터 보급이 시작된 데다 올 초까지도 채점 기

준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선수는 물론 심판마저도 새 품새의 순서와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다. 과연 객관적 채점 기준과 공정한 심판 판정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하는 시선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 품새와 자유 품새에서 어떤 경연이 펼쳐지고 점수가 나오느냐가 희비를 가를 변수로 작용하리라 본다.”

▶ WT가 자유 품새를 도입한 지 6년이 흘렀다. 이번 대회가 첫 무대이긴 하나, 한국의 수준은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을 듯하다.

“‘음...’ (잠시 땀을 들인 뒤) 꼭 그렇다고 보긴 힘들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2016년까지 공인 품새 국가대표만 선발해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왔다. 2012년부터 참가한 다른 나라에 비해 자유 품새 규정에 맞는 기술 발휘와 신체 기능 향상에 소홀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KTA는 국내 대회에서도 자유 품새를 실시해 기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 다만 공인 품새와 뚜렷하게 다른 발차기 기술 발휘가 추가된 자유 품새를 짧은 시간에 소화해 내야 하는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공인 품새와 자유 품새·새 품새가 구사해야 하는 기술이 그렇게 다른지?

“구성된 발차기 위주로 살펴보자. 공인 품새는 기본 발차기(앞차기·돌려차기·옆차기)가 주를 이룬다. 이에 비해 자유 품새·새 품새는 뛰어난 순발력과 민첩성을 요하는 도약 및 회전발차기가 대종을 이룬다. 게다가 자유 품새는 아크로바틱한 동작까지 요구한다. 이런 발차기를 능숙하게 발휘하려면 적절한 신체 조건과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무리한 훈련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결국 부상을 부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될까 염려스럽다.”

▶ 자유 품새는 리듬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으로 비유되곤 한다.

“음악 반주에 따른 연기 때문일 듯싶다. 자유 품새는 기존 품새와 다르게 음악이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다. 리듬 체조나 피겨 스케이팅처럼 음악은 안무의 분위기를 이끄는 데 중요하게 구실한다. 선수가 동작과 음악이 조화를 이룬 연기를 펼쳤을 때, 팬은 더 큰 감동을 받지 않을까?”

▶ 지도자에게도 음악적 소양이 필요하겠나.

“당연하다. 음악적 감각을 갖춘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자유 품새와 새 품새가 요구하는 다양한 발차기의 숙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 지도자에게 또 다른 덕목이 있나?

“축구로 말하면 히딩크·박항서 감독이 보여준 지도력이라고 할까? 지도자라면 선수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해결할뿐더러 목표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덕목을 겸비한 지도자로 구성된 코칭스태프라면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경기력을 발휘하게 만들리라 본다. 한국 품새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이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 끝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팀에 바라는 바를 들려 달라.

“대회 개막까지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공인 품새 훈련을 비롯해 ▲자유 품새 안무와 훈련 ▲새 품새 숙지 및 훈련 ▲그리고 팀워크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선수의 끊임없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가 하루바삐 구성돼야 한다. 부디 대회를 앞둔 선수들이 부상 없이 훈련에 정진함으로써 지닌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 좋은 결과를 내길 간절히 바란다.” **KTA**

“소통과 화합으로 태권도가 진흥할 수 있는 밀알 되겠다”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의 성지화 업무뿐 아니라 태권도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마케팅 활동을 동시에 펼쳐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관행을 뛰어넘는, 보다 창조적 업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지난 2월 20일 취임한 이상욱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63)은 기업이 출신답게 보다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업무 추진에 관심이 많은 듯했다.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출신인 그는 대우그룹을 거쳐 중앙아시아 투자 자문 업체인 리타산업 대표를 역임했다. 그가 낙점된 것은 기업 경영 마케팅 전략을 태권도진흥재단 업무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이란 정부의 기대감 때문이었다.

3 월 하순 그와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그는 업무 파악을 위해 무주 태권도원에서 한 달 이상 상주하며 주말에만 집이 있는 서울을 다녀간다고 했다.
자리에 앉아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태권도원에 기여할 점을 찾았는가?

그는 “태권도원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한 이미지 광고와 태권도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이라면 태권도원 방문이 버킷 리스트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는 딱 모범 답안을 내놨다.
그는 이와 함께 “태권도원에 더 많은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개발해 당일 방문객을 늘여

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 이를 위해 전국 태권도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계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마케팅위원장을 역임했지만, 그는 국내 태권도인 사이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무역과 경영 컨설팅 사업을 펼치면서 2008년 중앙아시아태권도연맹 창설 부회장을 지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마케팅 수단으로 태권도의 가치를 일찍이 외국에서 발견한 셈이다. 당시 그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체육대학에 태권도학과 개설을 주선하는 등 이미 사업가 이력에 태권도 이력을 더한 셈이다.

그렇지만 국내 태권도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업무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궁금했다. 그의 대답이 흥미로웠다.

“밀린 숙제가 없는 게 오히려 강점”이라는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국내 태권도인들과 연줄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봐주고 할 것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으리라는 대답이었다.

이번엔 한 달 간의 업무 파악 뒤 가장 시급한 재단의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상징지구 건립”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왔다. 사실 상징지구는 대한태권도협회를 비롯한 태권도 단체들과 지자체 등에서 176억 원을 출연해 이미 사업비가 마련됐고, 2020년까지 완공하게 된다. 이 사업은 최초에는 태권도의 철학과 정신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공간과 고단자들을 위한 수련 및 커뮤니티 장소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0년 이상 건립 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사후 활용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많았던 곳이다.

“당초 설계처럼 고단자들이 수련하는 그런 활용 방안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다. 보다 범용적으로 활용되도록 칸칸이 막은 방을 특 터나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다 구체적 활용 방안은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상의해 구체화하겠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속에 포함된 태권도를 진흥재단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도 궁금했다. 이미 민간 전문가, 태권도 단체, 태권도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TF팀을 통해 정부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를 발굴했고 지난 2월 초부터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태권도원과 국기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재단은 이미 태권도 문화 콘텐츠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정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공공 기관으로서 국정 과제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태권도계 간 가교 역할 충실히 수행해 궁극적으로 태권도 진흥과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

그렇다면 향간에 떠도는 국기원과 통합 문제에 대한 신임 이사장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했다.

“국기원의 여러 업무 중 연수 기능은 현재 태권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재단 처지에서는 향후 국기원의 다른 업무들, 특히 승품·단 심사와 같은 핵심 기능도 태권도원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통합은 명분과 시기, 당사자



무주 태권도원 T1 경기장



밤에 바라본 무주 태권도원 전경

간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공공 기관이고 국기원은 민간 단체이므로, 그에 따른 통합 과정의 절차상 확인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통합을 말하기보다 먼저 재단과 국기원이 서로 소통하여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힘을 합치는 게 태권도 진흥에 있어 긍정적 모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끝으로 진흥재단 법적 업무이기도 한 태권도 진흥 업무와 관련해 그는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글로벌 홍보, 태권도 외교 활동 강화, 태권도 비활성화 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끝낼 무렵 그는 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 계획을 부쩍 꺼냈다. 진흥재단의 업무가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된 회원 국가 209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되도록 다른 국가에서도 경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 우수 교육 기관과 협약을 통해 모든 직원이 국제 스포츠 행정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전북 무주 오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 탓에 인재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우수 인재를 진흥재단으로 유치하고 싶은 신임 이사장의 교육지책으로 느껴졌다. **KA**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태권도원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 2월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역사적인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식전 행사.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과 북한이 이끄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은 감동적인 합동 공연을 펼쳤다. 이날 합동 공연의 감격은 직후 열린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하나가 돼 한반도 깃발 아래 공동 입장을 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태권도는 비록 동계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개막식 식전 행사를 통해 ‘태권도의 뿌리는 하나’라는 점과 ‘우리는 하나’라는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켰다. 또 지난 50년 가까이 제각기 길을 걸어온 남북 태권도는 이번 합동 공연으로 남북 체육 교류의 물꼬를 트는 선봉장 구실을 자임했다. 북한 태권도로서도 비록 식전 행사이긴 해도 공식으로 올림픽 무대에 첫선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다.

순수 남북 태권도계가 일궈낸 성과

이번 WT-ITF 합동 공연은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와 그 배경이 다르다. 북한의 동계 올림픽 참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급진전됐다. 그러나 이번 남북 태권도 공연은 이미 남북 태권도계가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상호 교류에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 통합 논의의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WT 태권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승인 종목이 됐다. 이를 뒤늦게 안 ITF는 “원래 ITF 역사가 더 오래됐다”며 정통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 김운용 주도하의 WT는 1973년 결성된 반면, 최홍희가 이끄는 ITF는 앞서 1966년 서울에서 출범했다. 출범 시기는 뒤졌지만, WT는 김운용 총재의 발 빠른 대처와 외교력으로 1980년대 초반 이미 국제적으로 ITF를 능가했다. 당시 IOC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통해 WT와 ITF 가운데 어느 단체가 각국의 승인을 많이 받았는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3으로 WT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홍희의 극렬한 반발에, IOC는 “유사 종목을 또다시 승인할 수 없으니 두 단체가 통합을 논의하라.”라며 발을 뺐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WT와 ITF는 2006

년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기간 두 단체의 행정 및 기술 통합 문제를 다룬 ‘태권도 통합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의하고 2007년부터 실무 회의를 했다. 그렇지만 40년 이상 떨어져 진화해 온 WT와 ITF 태권도는 겨루기나 품새의 기본 동작은 물론 용어와 경기 규칙에도 차이가 있었다.

마침내 WT와 ITF는 2014년 8월 유스 올림픽이 열린 중국 난징(南京)에서 조정원 WT 총재와 당시 ITF 총재였던 장웅 IOC 위원이 만나 합의 의정서에 서명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합의 의정서에는 ▲ 상호 인정과 존중, 양 단체 주관 대회 및 행사 교차 출전 ▲ ITF 선수의 올림픽 출전 추진 ▲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자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참석해 보증인 구실을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5월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식에서, WT와 ITF 태권도 시범단이 사상 처음으로 합동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이후 지난해 6월 무주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개·폐막식에도 ITF 시범단이 방문해 공연을 펼친 바 있다.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방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아 구성된 남북 태권도 시범 공연단이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합동 공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붉은색 하의 도복이 남측의 세계태권도연맹(WT), 흰색 상하의 도복이 북측의 국제태권도연맹(ITF) 선수단이다.

남북 태권도, 평창에서 평화의 메신저가 되다!

으로 이뤄진 남북 체육 교류로 주목을 끌었다. 2007년 국내에 ITF 지부가 출범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ITF 시범단이 방한한 이후 10년 만의 일이었다.

헬기를 타고 무주 세계 선수권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최고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북한의 동계 올림픽 출전을 희망하는 운을 띄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에서 열린 WT 대회에서 ITF 시범단이 시범을 보이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급한 뒤, 개막식에 참석한 장웅 위원과 ITF 소속 북한 태권도 시범단을 향해 “태권도에서 거둔 성과가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격려했다. 개막식이 끝난 뒤, 기념 사진 촬영 때 북한 시범 단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자, 문 대통령이 직접 “파이팅!”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조정원 WT 총재와 리용선 ITF 총재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을 구두로 합의했으며,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참가가 결정되면서 8개월 만에 남북 태권도가 또다시 ‘하나’가 됐다.

앞으로 남북 태권도 교류가 활성화하면서, WT와 ITF 간 협력의 폭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리 총재는 지난 2월 11일 WT 서울 본부를 방문해 “양 단체 간 통합된 룰로 합동 경기를 치르자.”라는 제안서를 조 총재에게 전달했다. 두 단체의 합의 의정서에 따르면, ITF 선수의 올림픽 출전의 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올림픽 태권도를 주관하는 WT는 “WT 룰에 따라야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교황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멜초르 산체스 데 토카 교황청 문화평의회 차관보는 오는 6월 바티칸

에서 남북 시범단 합동 공연을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강원도와 서울을 찾은 ITF 시범단

ITF 시범단은 올 2월 7일 시범단 26명, 임원 6명으로 구성돼 방한했다. 임원단에는 리용선 총재, 장웅 위원, 황호영 ITF 부총재, 조지 비탈리 ITF 대변인 등이 포함됐다. 남북 합동 시범단은 그 이틀 뒤인 9일 역사적인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식전 행사 합동 공연에 이어 10일에는 강원 진로교육원에서 합동 시범을 펼쳤다. 12일 서울로 이동한 북한 시범단은 서울시청에서 세 번째 합동 공연에 이어 14일 MBC 상암홀 공연을 끝낸 뒤 15일 귀국했다. 네 차례 공연 때마다 WT 시범단과 ITF 시범단이 각각 25분을 맡았고, 최종 10분은 양측의 합동 시범으로 펼쳐졌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합동 공연에서 보듯, 남북 태권도가 명칭과 기술 면에서 다른 점이 많았다. WT 시범단이 고난도 공중 회전 동작을 가미한 발기술 위주의 화려함을 강조했다면, ITF 시범단은 화려하진 않아도 위력적인 손과 발기술을 선보였다. ITF 시범단은 마지막 순서로 단일 민

족의 연무선을 바탕으로 만든 통일틀(품새)을 선보인 뒤 마지막 동작에서 “조국 통일”을 외치며 시범을 마쳤다. 공연 마지막에 남북 시범단은 WT 시범단의 발동작과 ITF 시범단의 손동작으로 꾸민 무대를 선보였고, 최동석 WT 시범단 감독이 잡은 송판을 송남호 ITF 시범단 감독이 파괴하며 합동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날 조정원 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제일 좋은 점은 이 자리는 우리말로 해도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민족 동질성을 강조한 뒤, “한 뿌리에서 태어난 태권도가 그동안 어떻게 변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오늘 합동 시범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재는 답사를 통해 “이번 합동 공연은 태권도로 민족의 기상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중 민족의 태권도를 하나로 이루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 체전 개회식과 폐회식을 서울과 평창에서 함께 치를 것과 전국 체전 마라톤 대회를 평양에서 출발해 서울로 끝인하는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KA**



▶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범단이 2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 공연에서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정책 입안 ... 2022년까지 1,740억여 원 투입

노년층과 소외 계층을 위한 태권도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 관리 개념을 담은 특성화 도장이 육성된다. 또 명품 도장 인증 제도가 실시되고 존경받을 만한 생존 태권도인에 대한 명인제도 추진된다. 문화체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태권도인을 대상으로 공청회에 들어갔다.

태권도 바우처, 명품 도장, 태권도 명인제 도입 ... 국제 태권도 대학원대학교 설립

새로 도입되는 태권도 바우처 제도는 60세 이상 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으로 도장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 계층 바우처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바우처 제도란 정부가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에 비용의 일부를 대주는 제도다. 태권도에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출산율 감소로 경영 악화를 치닫고 있는 도장의 경영 수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장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수련에 건강 개념을 도입한 특성화 도장을 육성

하기로 했다. 이 도장에는 휴식 시설과 체력 향상 용품을 비치토록 해 기존 헬스 체육관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춘 도장에 대한 명품 도장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도자의 인성, 지도 역량, 수련 프로그램, 경영 능력, 수련생 만족도,

시설 등을 기준으로 명품 도장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의 태극권처럼 일반인 참가가 쉬운 보급형 품새를 개발해 품새 태권도의 일상생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품새의 보급은 인근 도장의 지도자가 담당해 전 연령층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태권도 국제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국내외 태권도 인재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학원대학교를 처음에는 단기 아카데미 과정으로 시범 운영하다가 단과 대학원 형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 학교에는 해외 수련생 90%에 국내 수련생 10%로 구성하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추천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학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권도 문화 콘텐츠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태권도 콘텐츠 발굴 연구팀을 구성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태권도의 문화 콘텐츠화 정책을 연구해 왔다. 국내 태권도 전문가들로 추진 TF팀을 구성해 태권도의 정체성, 산업화, 세계화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입안했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무주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3월 22일과 29일 국기원에서 두 차례 공청회를 더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가 태권도에 대한 대대적 지원책을 밝힌 것은 태권도가 전 세계 2만여 개 도장에서 1억 명이 수련하는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심도 깊은 콘텐츠 개발 등 질적 성장에는 소홀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태권도를 수련하는 인구의 저연령화 추세가 확대되고 겨루기 태권도가 주류가 되면서 태권도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 ▲태권도의 세계화·현지화 과정에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중심점이 약화되고 있는 점 ▲종합격투기 등 유사 격투기에 밀려 국내외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예전 같지 못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책 보고서는 대응 전략으로 ▲태권도의 철학 가치를 담은 정체성 강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건강한 태권도 산업 생태계 조성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10대 핵심 과제와 43개



의 세부 추진 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정책 보고서의 정체성 부문은 ▲태권도 가치 재발견- 태권도학 연구 체계 개선, 원류 태권도가 치 재조명 ▲명품 교육 시스템 구현- 지도자 육성 시스템 고도화, 명품 태권도 도장 프로그램 개발 ▲태권도 상징성 강화- 태권도 자산의 상징화, 태권도 라카비움[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또 산업화 부문은 ▲태권도 상품 명품화 - 한국 상징성 기반 태권도 명품 개발, 태권도 마케팅 시스템 구축 ▲관람형 콘텐츠 육성 - 태권도 프 로화 기반 조성, 전문 공연 콘텐츠 발굴 ▲산업 진흥 기반 조성 - 태권도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조성 ▲미래 시장 선점(4차 산업) - 차세대 기술 융·복합, 글로벌 태권도 시장 선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세계화 부문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 태권도 리더스 포럼, 태권도 국제 기구 위상 강화 ▲태권도 문화 확산- 태권도 문화 축제 활성화, 문화원 연계 국외 거점 구축 ▲국제 교류·협력 증진 - 차세대 글로벌 리더 육성, 태권도 ODA 지원 체계 개선, 국제 대학원대학교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태권도의 세계화가 태권도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중 ‘국기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육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발굴된 태권도 문화 콘텐츠 가운데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우선 선정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까지 1,740억여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KTA**



경기도태권도협회 행정타운 전경

‘행복 공동체’ 추구하는 전국 최고·최대 시도 태권도협회

시도 협회 최초로 사옥 마련

2018년 3월 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의미 있는 태권도 행사가 열렸다. 경기도태권도협회가 태권도 단체 중 처음으로 사옥을 마련해 행정타운 입주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과 오현득 국기원 원장을 비롯한 국내외 태권도인들, 국회의원, 경기도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경기도태권도협회 사옥 입주를 축하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사옥은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85 소재 토지 243평, 연면적 895평의 5층 건물로, 경기도태권도협회가 지난해 53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후 10억 원의 리모델링비를 투자해 3개월 공사 끝에 완공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이 건물의 1~3층을 임대하고 4~5층을 사용한다. 이 행정타운엔 태극·금강실 회의실, 고객 민원실, 수련실, 전시실, 공제조합 사무실 등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다.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은 입주식 인사말에서 “경기도가 인천시와 분리된 이후 37년 만에 50만 회원의 염원인 전용 회관을 갖게 됐다. 앞으로도 우수 선수 육성, 태권도인의 권익 신장, 해외 교류 활성화,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경기도 태권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역사와 발자취

경기도태권도협회는 1962년 창립해 1981년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함에 따라 인천시태권도협회와 분리됐다. 지역 특성상 우수한 태권도 팀과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소년 체육대회와 전국 체육대회에서 해마다 선두권을 이어 왔다. 2016년과 2017년 전국 체육대회에선 태권도 종합 우승 2연패를 달성했다.

현재 회원 도장은 31개 시군에 약 2,500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연간 승품·단 심사 인원도 12만 명을 넘어 17개 시도 태권도협회 중 '슈퍼협회'를 자랑한다.

자산 규모와 사업 예산

경기도태권도협회의 2017년 수입액은 약 74억 7,000만 원. 그 중에서 심사 시행비는 56억 원, 도장 등록비는 6,600만 원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심사 시행비(수입)는 57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도태권도협회 수입 지출 발생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 회계 약 68억 원, 기금 회계 약 13억 3,000만 원, 사옥 임대 수익 사업 약 1,500만 원이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정관 제4조(사업) 1항 16조에 의거해 지난해 약 54억 원의 5층 건물을 매입해 건물 매도자로부터 1~3층 임대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법에 근거해 승계받았다. 곧 전

국 조직체인 태권도공제조합이 출범하면 사무실도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도태권도협회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자산(현금) 총계는 일반 회계와 기금 회계 및 수익 사업을 합쳐 약 190억 원에 이른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부동산(전용 체육관 건립 부지)은 절차를 거쳐 56억 원에 곧 매매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과 중점 사업

2016년 5월 공식 출범한 제10대 김경덕 회장 체제 집행부는 ▲회원 복지 향상 ▲행정타운 건립 추진 ▲시군 지부 행정 체계화 직무 교육 ▲승품·단 심사 질적 향상 ▲심사 체계 정립 및 결격 사유 보완 ▲일선 도장 활성화 등 여섯 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회원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연금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97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연금 수혜 대가자들이 있는데, 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 임기 동안 실질적 보완책을 검토해 많은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해외 태권도 교류와 지원

2016년 10월 경기도태권도협회는 40만 회원의 영어권 국가 해외 진출과 교류,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인디애나주태권도협회(회장 홍순필)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 행정타운 입주식에서, 김경덕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최창신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오른쪽서 세 번째)을 비롯한 태권도 인사들과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에 분교 210개를 두고 있는 베델대학교(Bethel College)를 방문한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직원은 앞으로 개설될 예정인 태권도학과에 대하여 학교 측과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서로의 계획이 잘 이뤄진다면 경기도에 베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신설해 태권도의 기술과 정신을 익힐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후 김 회장은 미국 4대 도시인 시카고의 K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해 인터뷰하며 미주 교민에게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역량과 태권도의 가치를 설명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이 밖에도 중국 랴오닝(遼寧(요녕))성과 산둥(山東(산둥))성 및 저장성(浙江(절강))성 태권도협회를 비롯해 재중국 대한한인태권도협회, 대만 장화현태권도협회, 러시아 리페츠크주태권도협회, 인도 콜카타주태권도협회, 스페인태권도협회, 뉴칼리도니아태권도협회 등 해외 태권도 단체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아울러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태권도 지원 사업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짐바브웨에서 태권도

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도복과 용품을 후원했다. 짐바브웨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양경찬 씨는 “태권도 후원 용품이 도착한 날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에서 날아온 박스를 연 순간, 상자 가득 들어 있던 새하얀 도복을 보며 학생들은 환호성을 울리며 천진난만하게 좋아했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오는 10월 국군의 날을 맞아 제3야전군 태권도시범단을 지원하고, 1,000명의 제3공수특전여단 장병들에게 도복과 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 사업과 청사진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다가올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태권도 산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권도콘텐츠연구소와 공동으로 ‘4차 산업 시대에 태권도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 회장은 “태권도가 사는 길은 시대적 부름에 부응해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4차 산업시대에 태권도가 발전하려면 태권도 생체학과 태권도 기공학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태권도연수원

을 건립해 무도 태권도를 복원하고, 태권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심화 교육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복안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태권도 신흥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여러 나라에 태권도 전공 학생들을 파견하고, 해외 기술 교류 단체의 수련생 유치에도 힘쓰려 한다.”라고 밝혔다.

투서와 고발에 강경 대응

경기도태권도협회는 몇 년 전부터 진정과 투서, 고소와 고발로 몸살을 앓아 왔다. 집행부 임원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회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저해하기도 했다.

경기도태권도협회는 이러한 분쟁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진정·투서·고발에 의한 폐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참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 경기도태권도협회는 회장도 맘대로 하지 못하고 임원도 맘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투명하게 정보와 자료를 공개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마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경덕 경기도태권도협회 회장



15초를, 다득점제, 5인조 단체전 등 태권도 경기 룰 대변화 이끌어

태권도 경기의 재미와 흥미를 논할 때 늘 '최고의 시절'은 없었다. 늘 아쉬운 점만 있었을 뿐이다. 그럴 때마다 태권도계에서는 보다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는 지금의 전자 호구와 헤드기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박빙의 승부에서는 불꽃 튀는 접전으로 태권도의 묘미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기가 많았다. 2분 3회전 내내 상대와 탐색전을 하느라 공방도 없이 우세승으로 이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선제공격 이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공격하는 선수의 공격을 되받아 차 특점을 올리는 수비형 전략이 더 승산 있었다. 어려운 기술을 사용해도 몸통과 얼굴, 회전과 직선 기술 모두 1점이던 시절 태권도 경기에 대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2007년 2월 2일 출범한 대한태권도협회 산하 한국실업태권도연맹(이하 실업연맹) 탄생이 그 전환점이 됐다.

획기적 제도 개선으로 대개혁 바람 일으켜
실업연맹 탄생 이후 태권도 경기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실업 태권도인의 권익과 자치적 활동을 통한 실업 태권도 발전을 위해 탄생된 만큼 태권도가 보다 대중적 선호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체적으로 새로운 경기 룰 개발을 시도했다. 공식적 대회 경기 룰은 최고 상위 기관인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KTA) 순으로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실업연맹은 비공식 경기에 새로 개발한 경기 룰을 적용해 대회를 치르기 시작했다. 재미있고 재미없는지 필드 테스

트를 최고 상위 기관이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 산하 단체가 인큐베이터 구실을 통해 그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설득해 시작했다. 탄생 첫해부터 대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실업연맹이 출범 후 2007년 4월 13일 첫 개최한 제1회 한국실업태권도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장에서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재미없는 태권도는 가라!”라는 심정으로 새롭게 시도한 경기 룰이 의외로 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변화의 방점은 ‘수비 지향적’ 태권도를 ‘공격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1분 넘게 발 한 번 안 차도 됐던 경기에 제동이 걸렸다. 5초 간 공격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심이 ‘10초’를 선언하고, 이후에도 공방이 없으면 양 선수 중 공격 의사가 없는 선수에게 ‘경고’를 주는 ‘15초 룰’이 첫 선

을 보였다.

또 심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기의 다이나믹함을 유도하면서, 관중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사각 경기장을 원형으로 변경했다. 당시 사방 10m였던 경기장이 원형으로 변화하니, 78.5m²로 11.5m²가 줄었다. 뿐만 아니다. 몸통과 얼굴의 구분, 회전 등 기술 난이도에 따른 가점을 주는 다득점제를 첫 시도했다.

15초 룰 도입은 태권도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 우선 수비 지향적 경기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존 경기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발차기와 움직임이 늘었다. 또 가점제로 인하여 돌려차기 위주였던 기술 패턴에서 돌개차기(360도 회전)와 뒤돌려차기 등 다양한 기술 구사로 바뀐 점이 대변혁 중 하나다.

첫 시도에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자칫 KTA 산하 단체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탐탐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시 양진방 KTA 기획이사는 실업연맹의 새로운 시도에 박수를 보냈다. 말 그대로 “동생(산하 단체)이 형(상위 단체)보다 더 나은 생각을 했다. 실제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다 경쟁이 심한 대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부적 규칙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KTA나 WT도 도입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회가 막을 내린 후, 수개월이 지나 9월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7 남한산성배 전국 실업 최강전이 또 한 번 태권도계에 큰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 경기장부터가 마치 프로레슬링 또는 격투기 경기장으로 착각될 만치 변했다. 장내 아나운서의 사우팅 소개로 대형 LED가

반짝거리며 양 문이 열리면 선수가 등장하고, 그 길에는 햇불과 드라이아이스 효과 등이 선수를 빛나게 했다. 낮선 분위기 속에서 첫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히려 한층 업된 경기력을 펼쳤다. 경기 휴식 시간엔 유명 댄스 음악에 라운드 걸까지 등장했다. 그야말로 태권도 경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때 태권도계를 뒤흔든 사건은 ‘5인조 단체전’과 ‘3인조 단체전’이었다. 기존에 5:5 단체전이 있었던 해도 전혀 다른 개념의 단체전이 시작됐다. 선수 교체로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조차도 ‘뛰어 들어가자마자 공격 모드’에 일반 관중도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후 실업연맹은 2:2 경기도 시도했고, 5인조 단체전을 더욱 보완했다.

그 결과 2010 WT 월드컵 투어에 5인조 단체전이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고, 이듬해 2011 WT 경주 세계 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시범 경기를 펼쳤다. 이 기간 WT는 집행위원 회의에서 5인조 단체전을 월드컵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현재 WT가 매년 연말 주최하는 WT 월드컵 선수권(구 월드컵)은 5인조 단체전으로 진행된다. WT는 뿐만 아니라 2024 하계 올림픽에 남녀 혼성으로 이뤄진 단체 팀을 구성한 5인조 혼성 단체전을 추가 세부 종목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실업연맹은 엘리트 선수가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에 국가대표로서 출전한 것 이외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실업리그와 프로리그 출범을 위해 경기 룰 개발과 그 환경 마련에 애쓰고 있다.

“만형다운 소임 다할 터”

실업연맹은 KTA 산하 연맹체 중 만형 격이다. 출범 시기로는 가장 늦다. 그럼에도 태권도 엘리트층 가장 위인 실업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KTA 산하 단체는 실업연맹을 포함해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한국여성태권도연맹 등 총 다섯 개 연맹체로 구성돼 있다.

2007년 KTA 산하 단체로 정식 인준을 받은 실업연맹은 10년 가까이 김태일 회장 체제였다. 1~3대 회장을 역임한 김태일 회장은 재임 기간 ‘재미있는 태권도’를 지향한 결과 5초 룰, 5인조 단체전, 다득점제, 경기장 변화 등 태권도 경기 기술 변화를 주도했다.

이어 2016년 12월 4대 수장에 선출된 김영훈 회장은 정통 엘리트 태권도인으로서 경기 지도자, 일선 태권도장 운영, 중소기업 경영, 국회 보좌관, 시정 의원, 프로 축구단 단장 등 다양한 경험의 소유자만큼 실업연맹 새 시대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

김 회장은 “재임 기간 #공정 #섬김 #경청 #소통 #화합 #혁신 #자금 등 일곱 가지 키워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하 단체 중 만형다운 모범된 단체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회원 화합으로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 1년 3개월 실업연맹 수장으로 서 느낀 점에 대해 “실제 회장이 되어 연맹 살림을 살펴보니 이렇게 열악한지 상상도 못했다. 다른 연맹체와 달리 회원 수가 적어 대회 개최지를 구하는 것 또한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 국가대표 대부분이 배출되는 만큼 상위 단체인



김영훈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왼쪽)은 2013 푸에블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때 한국 선수단 단장을 맡았다.



KTA가 행정 지원을 대폭 늘려 줬으면 한다.”라고 바람을 밝혔다.

실제 실업연맹은 타 연맹체와 달리 등록 팀이 25개에 불과하다. 등록 회원 수도 20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부담은 소속 팀들도 함께 겪는다. 소속 실업 팀이 매년 연회비로 400만 원을 낸다. 재정이 좋은 실업팀이야 큰 부담이 아니지만, 영세한 팀들로서는 큰 부담이다.

실업연맹은 회원 연회비로 사무실 운영과 사무국장과 간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하면 잔고가 바닥난다. 김 회장은 이런 사정을 알고 취임 첫해 약 1,000만 원을 출연해 협회 살림이 바닥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취임식도 생략했다. 집행부에서는 새 회장의 취임식을 준비하였으나, 뒤늦게 안 김 회장이 준비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신 지난해 광양시에서 열린 제11회 한국 실업태권도연맹 회장기대회 개최식에서 회장 인사말로 취임식을 대신했다.

김 회장은 “회장이라는 직책은 봉사직이다. 실업연맹을 보다 발전시켜 보겠다고 출마해 당선됐다. 바쁜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 허례허식할 필요가 없어 취임식 준비를 중단시켰다. 취임식에 들어갈 비용으로 지난 대회 부족한 예산을

썼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사는 최소화하고 회원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일에만 예산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대회 개최 비용 정산은 실업연맹이 직접 하지 않기로 했다. 대회를 유치한 지자체에서 보통은 주최 측인 협회나 연맹에 보조금을 주면, 연맹은 그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실업연맹은 아예 모든 집행을 해당 지자체가 하도록 했다. 실업연맹은 자부담 금액만 집행하고 정산에 참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그간 아끼고 아낀 예산으로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릴 2018 ATU(아시아태권도연맹)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실업연맹 소속 팀 한 명씩을 추천받아 워크숍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팀 지도자들이 매년 달라지는 국제 대회 정세를 수시로 파악해야 함에 따라 경기력 분석과 국제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될 워크숍 경비는 실업연맹이 80%를, 소속 팀이 20%를 각각 부담하는 방법으로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매년 대회 개최지 유치로 골머리를 앓

는데, 실업 최강전 대회를 당분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월 28일 강원도 철원군청에서 이현종 철원군수를 비롯해 양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2020년까지 3년간 철원군에서 이 대회를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실업연맹은 주요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단체다. 더 많은 선수가 각 소속 팀에서 훈련에 매진해 실력을 향상시켜 국가대표가 되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뒷바라지할 것이다. 아울러 은퇴 후 선수의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선수들의 미래를 걱정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수년 전에 프로축구팀 단장을 역임했다. 축구에 비해 태권도 실업팀은 매우 열악하다. 선수들의 권익과 복지가 매우 부족하다.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미래 태권도의 영광도 이어질 수 있다. 선수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꾸밀 수 있도록 실업연맹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연맹 집행부나 소속 회원 모두가 만행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KTA**



신인 등용문 종별 선수권대회, 치열한 각축전 펼쳐

2018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고등부·일반부)가 지난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이하 일수 기준) 경상남도 창원군 창녕 군민체육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고등부와 일반부 선수 1,727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고등부 10체급과 일반부 8체급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회 개회식은 둘째 날인 17일 김충식 창녕 군수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과 박상수 경남태권도협회 회장을 위시한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대 규모 대회에 걸맞은 접전의 연속

창녕에서 전국 규모의 태권도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녕군은 '스포츠 중심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태권도를 포함해 축구·정구·유도 등 여러 종목의 전국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전국 단위 태권도 행사가 이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별 선수권대회는 아직 제 기량을 완전히 펼치지 못한 신인의 등용문이라는 구실을 하고 있다. 대회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국 대회 입상 경력을 갖지 못한 선수들만이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도 유명하다. 한때는 한 체급에만 500여 명이 출전한 적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등부의 경우 학년별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처럼 많은 선수가 한꺼번에 출전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도 최대 규모 대회답게 매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며 파란이 일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종별 선수권대회는 전년도 중학교에서 거둔 성적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2~3학년보다 1학년의 기량이 더욱 주목받는 무대다. 1학년 중에는 중학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던 선수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참가하는 경우가 때문에 주니어 국가대표급 선수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신인 선수로는 남고부 1학년 핀급에서 우승한 강원

사대부고 성준영, 여고부 미들급 1학년부에서 우승한 성안고 진가연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학 진학을 앞둔 2~3학년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 대회 입상을 목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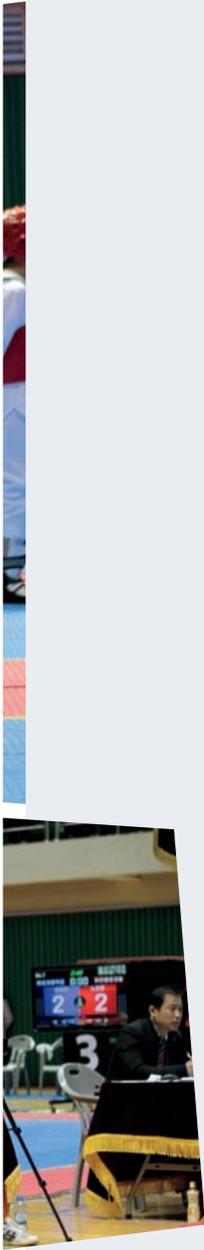
대회 마지막 날 하루 동안 개최된 일반부는 참가 선수가 고등부에 비해 많이 적은 편이었다. 총 1,700여 명의 참가 선수 중 일반부는 남자부만 84명이 참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여자부는 참가 선수가 부족해서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경기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이 대회 일반부에는 주로 2년제 대학 선수들이 참가한다. 이 선수들에게는 다른 무대보다도 전국 규모인 종별 선수권대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학교 장학금 수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대회에서, 절대 다수가 2년제 대학 소속인 가운데 30대와 50대 일반인 선수가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등부와 품새부 종별 선수권대회는 4월 11일부터 9일간 충청남도 예산에서 열린다.

누가 화제의 인물과 유망주로 눈길 사로잡았나?

위에서 말했듯, 이 대회는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룬다. 그런 만큼 매 대회가 열릴



남자 -68kg급 변기찬 관장





강원사대부고 성준영

때마다 걸출한 새 얼굴이 나타나곤 한다. 또 화제를 모으는 인물도 등장한다. 이번 대회도 그랬다. 화제의 인물과 새 얼굴이 선보였다. 그 중 3선을 소개한다.

변기찬, 솔선수범한 노익장

이번 대회 마지막 날인 3월 23일,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선수가 몇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남자 -68kg급에 출전한 변기찬이다. 1961년생, 말 그대로 내일모레가 환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의 선수가 대부분인 이번 대회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나섰다. 종별 선수권대회가 전년도 입상 경력이 없는 선수가 참가하는 무대라고 하지만, 정식으로 대한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는 A급 대회 중 하나다. 이런 대회에 올해 신여덟의 변기찬은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졌다.

변기찬의 상대인 신성대학교 박준범은 이제 가스무 살로, 나이 차이가 마흔에 육박한다. 그래서일까, 경기 전 변기찬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조심해라.”, “다치면 어떻게 하나.” 등...

경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이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실력 차가 확연했다. 무엇보다 어쩔 수 없는 나이 차가 가장 큰 원인인 듯싶었다. 1회전이 끝나고 약간의 다리 부상으로 더 큰 부상을 우려한 변기찬은 기권했다. 예상된 결과였다. 그러나 칭찬받아 마땅한 도전이기도 했다. “잘했다.” 팬들의 함목소리가 입증하는 대목이다.

환갑을 앞둔 변기찬이 왜 이러한 무모한 도전에

나섰을까?

“솔선수범하고 싶었습니다.”

변기찬은 현재 여수에서 태권도장(왕호체육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다. 그러면서 대한태권도협회 소속의 품새 상임 심판이기도 하다. 변 관장은 “태권도인은 많다. 그렇지만 직접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인은 사실 많지 않다. 선수로서 경기장에 올라간 것은 거의 40년 만이지만, 그 체험을 직접 하고 싶었다.”

변 관장은 1980년대 초반, 도 대표로 전국 체육 대회에 출전한 경험이 있는 겨루기 선수 출신이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데다 몸은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전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새로운 품새가 겨루기 경기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몸으로 체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변 관장의 솔선수범은 다른 태권도인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첫째, 말만 태권도인이 아닌, 직접 수련하는 태권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 줬을 뿐만 아니라 정식 경기에까지 나서면서 귀감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겨루기와 품새가 이미 큰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품새를 잘하면 겨루기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겨루기 선수도 품새를 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직접 몸으로 증명하기 위해 나섰다.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권도인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 최근 성인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을 지도하겠다는 태권도 관장과 사범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변 관장은 되묻고 있다.
“당신은 태권도를 정말 하고 있는가?”

성준영, 중학교 때 침체에서 탈피하다

이 대회는 차기 스타를 꿈꾸는 신인의 도전장으로 수놓아진다. 이번 대회서, 뜨거운 각축 끝에 주목받은 유망주가 등장했다. 강원사대부고 성준영이다.

남자 고등부 1학년 핀급 결승에서, 성준영은 울산 스포츠과학고의 강적 원종원을 만났다. 성준영은 원종원에게 얼굴 공격 등을 허용하며 2회전까지 3:8로 뒤지고 있었다. 승부의 분수령이 된 것은 3회전 종료 30초전부터다. 몸통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동점까지 따라잡은 성준영은 종료 30초 전부터 원종원과 이번 대회 명승부 중 하나로 꼽히는 난타전을 펼쳤고, 결국 종료 3초 전 득점을 성공하면서 11대9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정덕호 강원사대부고 코치는 “준영이는 초등부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던 선수였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며 사춘기를 맞은 준영이가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많이 성숙해졌고 태권도에 대한 자세가 달라졌다. 동계 훈련을 특히 열심히 했고, 그 결과가 이번 대회서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성준영의 플레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나이답지 않은 차분한 경기 운영이 돋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뒤지고 있어도 정신력에서 흔들리지 않는 점이 성준영의 장점이다.”라고 덧붙였다.

2018년 한 해 어떤 성장을 보일지 기대되는 성준영이다.

박진서, '제2의 이대훈' 꿈꾼다

한국 최고의 태권도 명문고 중 하나인 한성고에서도 색별이 발굴됐다. 남자 고등부 1학년 밴텀급의 박진서다. 박진서는 이번 대회에서 64강전부터 준결승전까지 다섯 경기를 모두 RSC승을 거두며 결승까지 올라갔다.

파죽지세로 올라가던 박진서를 가로막고 선 것은 충남체고의 우경수였다. 결승전 2회전까지 앞서가던 선수는 우경수였다. 그러나 박진서의 강점 중 하나는 바로 체력이다.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박진서는 우경수를 몰아붙였다. 결국 경기는 29:21로 역전되며, 박진서가 1학년 종별 최강자로서 우뚝 섰다.

이한철 한성고 코치는 “진서는 기본기가 잘돼 있고 모든 발차기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이번 결승전에서 보여 줬듯, 체력도 강해서 경기에 뒤지고 있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체력·순발력·유연성 등 3박자를 고루 갖춰 앞으로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진서는 형을 따라서 태권도를 하다가 형처럼 선수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다. 한성고가 배출한 최고의 스타 이대훈과 비슷한 경우다. 형을 따라서 한성중-한성고를 거치며 태권도 선수의 길을 걸은 이대훈은 형을 앞서는 청출어람의 좋은 보기가 됐다.

역시 형을 따라서 대원체육관-신관중을 거쳐 한성고에 진학한 박진서는 자신의 롤 모델인 이대훈처럼 형을 능가하는 유명한 태권도 선수가 되고자 한다. '제2의 이대훈'을 꿈꾸는 박진서를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다. **MA**



한성고 박진서





‘꽉 찬 허공, 하나 된 태권도!’

허공(虛空)이 꽉 찼다. 찌렁찌렁한 기합 소리, 에너지는 강력했다. 피부 숨털이 곤두서고 머릿카락이 쭈뼛 섰다.

국기(國技) 태권도. 이념과 정치를 걷어 내니 남과 북이 따로 없었다. 태권도를 통해 남이 북이 되고 북이 남이 되며 모두가 하나가 됐다. ‘쿵쾅’ 뛰는 심장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공감(共感)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의 위대한 승화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갈라진 태권도를 하나로 뭉치게 했다. 지난 2월 9일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식전 행사는 남북 태권도 합동 공연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다. 국민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된 태권도에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다. 사흘 뒤인 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합동 공연에서도 국민의 관심은

식지 않았다. 분단의 역사가 안겨 준 태권도의 차이는 결코 다름이 아니었다. 본질을 흐뜨리지 않았고 다름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차이가 낳은 새로운 창조에 오히려 모두가 감사했다. 북한의 태권도가 목직한 산이라면 남한의 그것은 유려하게 흐르는 물과 같았다. 북한의 태권도는 실전 무도에 가까웠고, 남한의 태권도는 스포츠의 세련미가 남달랐다. 둘은 느낌과 형식에선 미세한 차이가 났지만 뿌리는 결국 하나라는 사실을 힘찬 몸짓을 통해 웅변했다. 발차기와 지르기라는 태권도 기술의 두 축에선 민족의 보편적 정서가 느껴졌고, 그 정서는 고스란히 가슴으로 전해졌다. 하나의 뿌리와 공통의 정서. 태권도에는 더는 분단의 장벽이 없다. 허공을 가득 채운 힘찬 기합 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발차기와 지르기에 돌이 없다. 오로지 하나다. **KA**

홍매화와 왕소군의 춘래불사춘

매년 첫 태권도 대회의 시작은 2월에 열리는 제주 평화기 대회다. 그러나 제주라 해도 2월은 아직 겨울. 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태권도 대회의 시작은 올해의 경우 경남 창녕에서 시작된 종별 선수권대회라고 할 수 있다.

봄내음과 꽃소식을 기대하며 남쪽 창녕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며 꼭 보고 싶었던 꽃은 매화, 그중에서도 홍매화(紅梅花)였다. 무척 순결해 보아서 범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백매화가 아니라 여인의 붉은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듯한 홍매화를 카메라에 담고 싶었다. 그러나 기자를 맞은 것은 때아닌 봄눈. 춘분(春分)인 3월 21일, 창녕에는 8년 만에 봄눈이 내렸다. 봄내음과 꽃소식을 기대하며 남쪽으로 내려온 태권도인 중에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기자만은 아니었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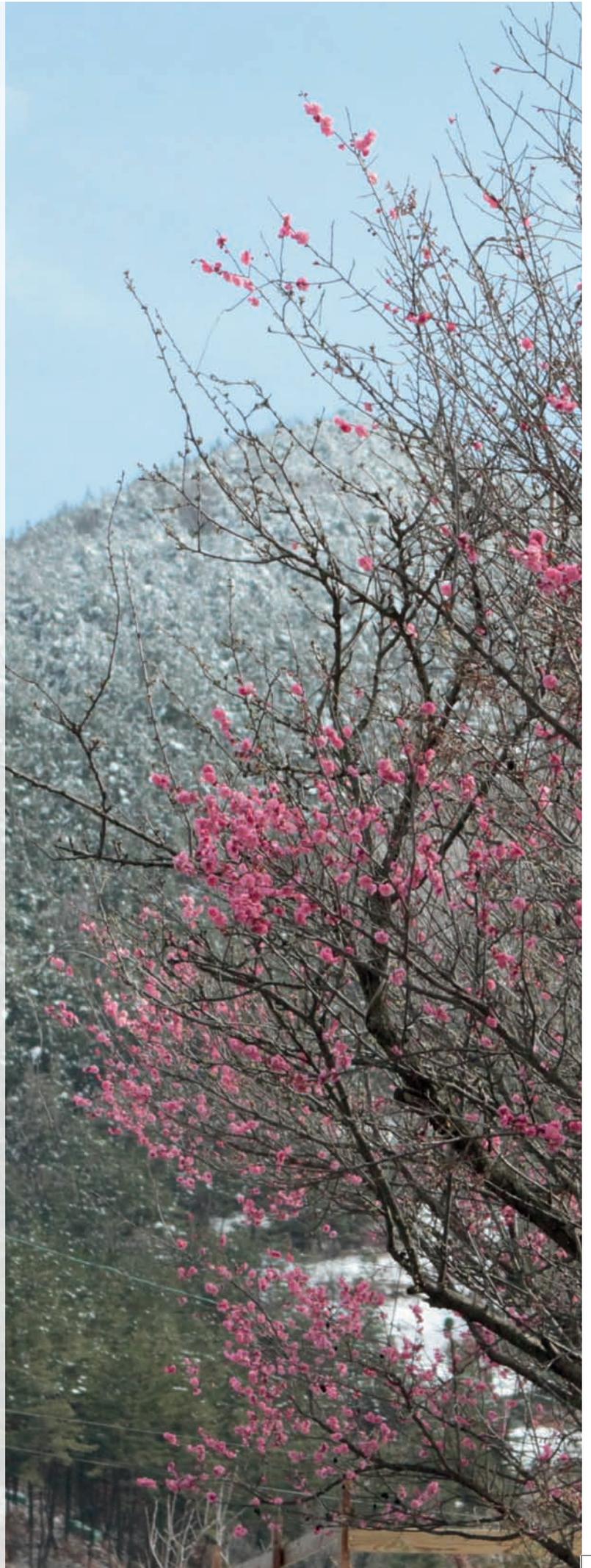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이 말은 당나라의 시인 동방규(東方虬)가 중국의 4대 미녀 중 하나로 꼽히는 왕소군(王昭君)을 생각하며 지은 ‘소군원(昭君怨)’이라는 시에서 유래했다.

“胡地無花草(호지무화초 / 오랑개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 / 봄이 와도 봄 같지 않구나)
自然衣帶緩(자연의대완 / 자연히 옷 띠가 느슨해지니)
非是爲腰身(비시위요신 / 이는 허리 몸매 위함이 아니었도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미모로 기억될 정도인 왕소군의 운명도 알겠다. 본디 한나라 황제의 궁녀였던 왕소군은 북방의 흉노와 화친을 위한 조건으로 흉노왕에게 보내지게 된다. 한의 황제는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린 화공의 그림을 근거로 해서 궁녀들 중에서 미모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왕소군을 흉노왕에게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해. 화공은 뇌물을 주는 궁녀들은 예쁘게 그리고 아닌 궁녀들은 볼품없이 그렸기 때문이다. 왕소군은 외모가 뛰어났으나 화공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던 것. 흉노왕에게 왕소군을 보내기 직전, 왕소군의 실물을 본 황제는 크게 노했고, 그 화공의 목까지 잘랐으나 약속한 왕소군을 보내지 않을 수는 없었다.

정당한 미모를 평가받았다더라면 흉노의 땅으로 시집가지 않았을 왕소군이지만, 뇌물을 주지 않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결국 미래가 불투명한 척박한 흉노의 땅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 왕소군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다시 춘래불사춘. 태권도 경기장이 많이 바뀌었다. 사람도 바뀌었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시간은 흐르고 봄은 오는 것. 그러나 때로는 봄이 왔어도 그 봄이 아직 느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 아, 그리고 기자는 홍매화를 찾았다. 홍매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경기장 근처에 있었다. 홍매화의 위치를 기자에게 알려준 분은 김경일 경기위원장. 저 홍매화는 창녕 군민체육관 뒤쪽에서 찾았다.





국기원 건립에 얽힌 비화

한국 태권도 역사를 반추(反芻)해보면 고비 고비마다 원로들의 중대한 결심이 있었다. 태권도 명칭 결정, 태권도 중앙도장(국기원) 건립,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가입, 관통합, 미국체육회 가입,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등이 그것이다. 그 어느 하나도 시기를 놓쳤거나 머뭇거렸다면 오늘날 올림픽 종목에 빛나는 태권도의 세계화는 요원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국기원 건립은 태권도 발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국기원은 태권도 이론과 기술,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이를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태권도의 상징과 같았다. 각 관별로 무질서하게 이뤄지던 승단 심사와 교육을 비롯해 제반 사무가 협회 단일 창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은 국기원이 창립됐기에 가능했다. 이후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로 발돋움한 국기원은 국내외 태권도 수련자들을 통합하는 명실상부한 세계태권도본부가 됐다. 하지만 1971년 첫 삽을 뜰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역경이 도사리고 있었다.



첫 건립 계획은 김용채 회장 때부터

국기원 건립 구상은 5, 6대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역임한 김용채 회장 시절 이뤄졌다. 국기원 건립 필요성이 협회에서 불거지자 당시 집권 공화당 국회의원이던 김용채가 힘을 썼다. 그는 당시 김종필 총리를 찾아가 협조를 구했다. 그의 노력으로 1970년 국회 추경예산에서 그 당시로는 거금인 3,000만 원의 국기원 건립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용채는 양택식 서울시장을 찾아가 건립 부지 제공 약속도 받아냈다. 하지만 그 해 말 김용채가 협회장에서 물러나면서 국기원 건립은 흐지부지 되는 듯 했다.

김용채가 물러난 것은 김운용 때문이었다. 김용채의 증언이다.

“하루는 청와대 경호실 박종규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김운용이 태권도에 관심을 보이며 태권도협회장을 맡았으면 하는데 태권도원로 몇 분에게 의사를 타진해보니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 나는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라 2대 연임을 했기에 그만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물러났다.”

1971년 1월, 당시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이던 김운용이 대한태권도협회장이 되면서 국기원 건립은 급물살을 탄다. 약관 40세인 신임 회장은

의욕에 불타 있었다. 회장이 되자마자 이종우, 엄운규 등 그를 영입한 두 태권도 관장을 대동하고 김종필 총리 자택을 인사차 방문했다. 김종필은 그 후 국기원 개관식에도 참석하고 국기원 정문에 ‘국기원’이라는 휘호도 써주며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당시 태권도계는 한 달에 200명 정도 받던 승단 심사는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했고, 전국대회는 서울운동장 배구장에서 열던 열악한 실정이었다. 태권도 발상지인 한국에 외국인 수련자에게 내놓을 만한 중앙 도장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김운용 신임회장은 자신을 영입한 태

권도인들의 중앙도장 건립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읽고는 이를 밀어붙인다. 국기원 건립 공식적인 첫 언급은 그의 취임 기자회견에서였다. 옛 대한체육회 맞은 편 무교동 뉴서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상대로 중앙도장 건립 계획 질문이 들어왔다. 당시는 모든 종목 회장들이 전용경기장 건립을 약속하던 시절이었다

“중앙 도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말로 건설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계획입니까?”

기자의 기습 질문에 김운용은 순간 당황했다. 김운용은 옆자리에 배석한 이종우 지도관장에게 살짝 물어봤다. 이종우는 ‘3억 원’이라고 쓴 쪽지를 건넸다. 당시는 시멘트 한 포대가 270원, 철근 1톤이 1만 원 하던 때였다. 김운용은 아무 리 봐도 액수가 너무 크다 싶어 1억 원을 줄여 2억 원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신문에는 “2억 원을 들여서 태권도 전당을 건설하다”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다. 이종우는 이후 국기원 건설본부장으로 선임돼 현장에서 국기원 건립을 진두 지휘했다.

국기원 부지 선정

중앙도장을 짓는 데는 우선 부지 선정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건립 기금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구입비는 엄두도 못냈다. 당시 서울 강남은 칠성사이다 공장만 덩그러니 있을 뿐 허허벌판이었다. 부지 물색을 위해 이종우, 엄운규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성남의 남한산성 부근과 서울 한남동 타워호텔 부근, 연세대 봉원사 부근, 강남 역삼공원, 잠실 등이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종우가 밀었던 타워호텔 부근은 리틀엔젤스 공연단이 땅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 제외됐다.

김운용은 빌릴 수 있는 서울시 소유지 이곳 저곳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택식 시장을 찾았다. 둘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친한 사이였다.

“국기원을 건설하기 위해 땅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다면 시유지를 좀 빌려주세요.”

“잠실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때 잠실은 황무지였고 서울시 개발예정 지역이었다.

“잠실은 올림픽경기장과 같은 것을 만들기에 는 좋지만, 우리 중앙 도장은 2,000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훗날 잠실에 실제로 올림픽경기장이 건설될 줄은 김운용도 몰랐다.

양 시장은 접근성을 고려해 강남 도로변의 땅을 지원해 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강남 한복판 우뚝 솟은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던 김운용은 이를 거절했다. 이미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김운용은 “역삼동에 있는 가장 높은 장소가 좋을 것 같은데...”라며 지도에서 한 장소를 지목했다. 지금의 국기원 부지다.

그즈음 김운용은 이종우와 엄운규에게 중앙도장 부지로 역삼공원이 좋다고 가보라고 했다. 이들이 그 곳에 가보니 질퍽한 진흙땅에 자갈이 많았다. 그런데다 역삼공원 주위는 봉우리가 솟아 올라와 있는 야트막한 야산이었다. 엄운규와 이종우는 “여기에 어떻게 건물을 짓냐”며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김운용의 생각은 달랐다. 평지보다 높은 곳에 지어야 상징성과 함께 태권도의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

1 1971년 국기원 기공식.
2 1972년 완공 당시 국기원 전경.



다. 또 높은 곳이어야 무예 수련에 적합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 역삼공원을 최종 부지로 결정했다. 중장비를 동원해 산봉우리 주위를 평탄하게 만들었다.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도 600만 원이 들어야 했다.

오일 쇼크로 공사를 늦췄다면

우여곡절 끝에 부지는 확보됐지만, 건설 자금이 없었다. 건립예산만 2억 원이 필요했다. 당시 승단비가 1,000원이던 시절이었다. 그 가운데 100원씩을 때 국기원 건립 기금으로 모은 것이 고작 200만 원에 불과했다. 태권도인들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액수였다. 김운용이 앞장서 모금활동에 나섰다. 명분이 좋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후원을 이끌어내기가 수월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이 300만 원, 정주영 회장 동생 정인영 회장이 200만 원, 대농 박용학 회장이 200만 원, 두산 50만 원, 풍한제지 200만 원, 진로에서 1,000만 원 등을 내놓았다. 공사를 맡은 동양고속건설이 1,000만 원을 기탁했다.

1971년 11월 30일 마침내 국기원 기공식이 거행되고 1년 예정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기공식에는 민관식 문교장관, 김영관 해군참모총장, 송요찬 전 내각수반, 김종락 야구협회장이 참석해 첫 삽을 떴다. 송요찬은 김운용이 군 시절 모시던 직속 상관이었다. 건설은 동양고속건설이 맡았다. 물론 공사비는 외상이었다. 건설자재 확보도 문제였다. 김운용이 나서 시멘트는 쌍용, 유리는 한국유리, 철근은 인천제철, 목재는 동아기업, 지붕은 벽산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 같은 재계의 적극적인 지원은 김운용이 청와대 경호실에 적(籍)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박종규 실장이 이끄는 경호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위세를 떨치고 있어서 기업의 후원을 얻기가 수월했다. 박 실장과 함께 정부에서는 김종필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기원 건립은 청와대 사업이라는 인식이 재계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중동 오일쇼크가 발목을 잡았다. 오일쇼크로 인해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1년 안에 공사를 마치려던 당초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을 상황이었다. 이종우 건설본부장 등 주위 참모들은 3년 계획으로 공사를 늦추면 어떻겠느냐고 비판적인 건의를 하곤 했다.

하지만 김운용은 이에 반대했다. 당초 건설 계획을 늦춘다면, 당시의 한국 경제 사정으로는

3 1970년대 중반 국기원 부근 전경.

4 국기원 건립 현장.



2-3년이 걸려도 공사가 끝나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국기원 건립은 기회가 왔을 때 해내야 한다며 주위를 설득했다. 김운용의 독려 속에 공사는 계속 됐다. 수도물이 들어오지 않아 동네 우물물을 길러 공사 현장에서 사용했다. 나중에 김종필 총리에게 얘기해 수도물을 끌어왔다. 전기는 준공식 하루 전날 한국전력에 요청해 끌어왔다. 돈이 없어 청기와지붕은 한국 슬레이트에 부탁해 슬레이트를 올리고 푸른 칠을 했다. 청기와를 올리는데 드는 600만 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기원 팔각정은 진로 장익용 사장이 세워줬고 대문은 인천제철 사장이던 송요찬 전 내각수반이 협찬했다. 전화는 일반전화와 경비전화 1대씩 놓고 전화기는 청와대에서 가져왔다.

1년 뒤인 1972년 11월 30일 국기원이 완공돼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대지 2,300평, 지상 3층 건물로 227평의 경기장과 2,000명 수용의 관객석을 갖춘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 즉 국기원이 완공된 것이다. 1972년 12월 9일 국기원 준공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송요찬 전 내각수반, 김택수 체육회장, 심창유 문교차관, 양택식 서울시장, 독일 대사, 미국 골프오일 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줬다.

국기원이 푸른 숲으로 둘러싸이게 된 사연도 흥미롭다. 한번은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에 다녀오다 먼발치에서 국기원을 보고는 “나무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산림녹화 사업에 매진하고 있을 때였다. 양택식 시장이 곧바로 5,000그루의 나무를 국기원에 심어줬다. 양 시장은 이어 경북 청송에서 아름드리 은행나무 두 그루를 옮겨와 심었다. 국기원은 이렇게 국가의 관심 속에 재계의 십시일반(十畝一飯)이 모여 당초 예정대로 건립됐다.

만약 오일쇼크로 국기원 건립이 늦어졌다면 이

후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세계선수권대회 개최, GAISF 가입이나 미국체육회 가입 같은 모든 일정이 줄줄이 늦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1994년 태권도 올림픽종목 채택도 담당할 수 없었을 것 같은 아찔한 순간이기도 했다. 일에는 매사에 때가 있는 법이다. 국기원 명칭에 얽힌 사연도 흥미롭다. 김운용은 처음에는 중앙도장의 명칭을 ‘국기관’이라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스모의 전당을 이미 국기관으로 부르고 있었다. 일본과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국기원으로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격적으로 태권도 세계화 추진

현대 태권도는 1972년 국기원 건립으로부터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30여개 관 통합, 승단 심사 통일, 지도자 교육 과정 설립, 도복 제정, 품새 개발, 경기 규정 제정, 전자호구 개발, 한마당 창설 등이 이어져 성장과 안정을 가져왔다. 국기원 건립 이후 두드러진 것은 태권도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1973년 5월에는 제1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국기원에서 개최됐으며, 이어 세계태권도연맹(WTF)이 창설됐다. 이후 태권도는 GAISF, CISM, FISU, 아시안게임, 팬암게임, 아프리카게임에 가입해 올림픽 종목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가운데 사마란치 IOC 위원장을 비롯,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찾은 전 세계 스포츠 인사들이 모두 국기원을 찾아 태권도 시범공연을 보면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안고 갔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채택됐고, 국기원은 공식 연습장으로 제공됐다. 마침내 1994년 파리 IOC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까지 국기원은 그 중심에 있었다. **KA**

1960년대 옥외에서 열린 태권도 경기

1962년 11월 태권도 경기규칙이 제정되고 대한체육회에 가입하는 등 태권도가 무술에서 스포츠로 전환했지만, 경기장 여건과 환경은 열악했다. 한성여고가 학교체육관을 빌려주지 않으면 마땅히 경기할 곳이 없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장을 구하지 못하면 서울 동대문운동장 배구장에 임시방편으로 '옥외 태권도 경기장'을 설치해 경기를 했다. 콘크리트로 만든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전하는 사람들과 내빈들을 위해 만든 임시 천막, 그리고 천막에 새겨져 있는 '칠성사이다' 광고 문구, 시계탑 아래의 '범포 신발' 광고가 당시의 시대상과 운치를 느끼게 한다. 눈에 띄는 것은 이동식 마룻바닥을 이음새로 엮어 만든 정방형(正方形)의 임시 경기장. 당시 태



권도 경기에 대해 이승완 태권도 원로(태권도 국가대표 1기)는 “전진하면서 앞차기를 하던 선수가 발바닥이 이음새에서 빠져나온 조각에 박힌 상태로 발차기를 하기도 했다. 햇볕에 달궈진

마룻바닥에서 경기를 한 선수들은 대개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다. 휴식 시간에는 열기가 오른 발바닥을 물수건으로 식히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1960년 중반을 풍미했던 경희대 선수들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봉황을 수놓은 기(旗)를 내걸고 대통령하사기쟁탈 태권도단체대항전이 열렸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도장, 학교, 군 팀들이 출사표를 던져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각 팀들은 나름대로 훈련도 많이 하고 필승전

략을 가지고 출전, 과연 첫 패권(霸權)의 영광을 어느 팀이 거머쥘 것인지 모두 궁금해 했다. 이 대회에서 주장 유기대 선수가 이끄는 경희대 팀이 탁월한 기량과 투지를 불태우며 승승장구, 정상에 우뚝 섰다.

이 대회가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태권도의 중요성을 인식,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었고, 고위층과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막후 실력자 장태화 당시 서울신문사장의 공이 컸다.

대회 종료 후 기념사진을 찍은 경희대 선수단. 왼쪽부터 최영렬(태권도신문 사장), 유기대(대한태권도협회 고문), 두 사람 건너 유형환(전 전북태권도협회장), 김인수(전 동성고 교사). 항상 선봉장으로 승리를 기록하며 팀의 사기를 올려주었던 최권열(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 잠시 자리를 비웠는지 보이지 않는다. **KA**



1988 서울 올림픽 태권도 남자 밴텀급 금메달리스트 지용석

1988년 9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장충체육관은 태권도 열기와 흥분으로 출렁였다.

88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태권도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남자 32개국 120명, 여자 16개국 63명. 태권도 모국(母國)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올림픽 태권도 경기를 앞두고 한국태권도대표팀도 긴장하긴 마찬가지. 남자대표팀 이승국·김세혁 코치와 여자대표팀 김영인·박필순 코치는 남녀 각 8체급에 참가하는 대표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에 주력했다.

한국은 첫날 경기에서 남자 플라이급 하태경 선수와 여자 플라이급 추난률 선수, 남자 웰터급 정국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여자 웰터급 김지숙 선수가 은메달을 따내 남녀 동반 종합우승을 향한 쾌조의 출발을 했다.

주위의 관심은 9월 18일 열리는 남녀 밴텀급과 미들급 경기에 쏠렸다.

한국 남자 밴텀급은 지용석 선수가 나섰다. 청주 출신으로 한국체육대학교에 진학해 1986년 아시아태권도대회와 1987년 헬싱키 월드컵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지용석 선수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다.

하지만 올림픽 첫 경기를 앞두고 긴장감과 부담감이 밀려 왔다. 그를 키운 정만순 스승과 가족, 그리고 동고동락을 함께 한 선·후배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예선부터 결승까지 다양한 공격 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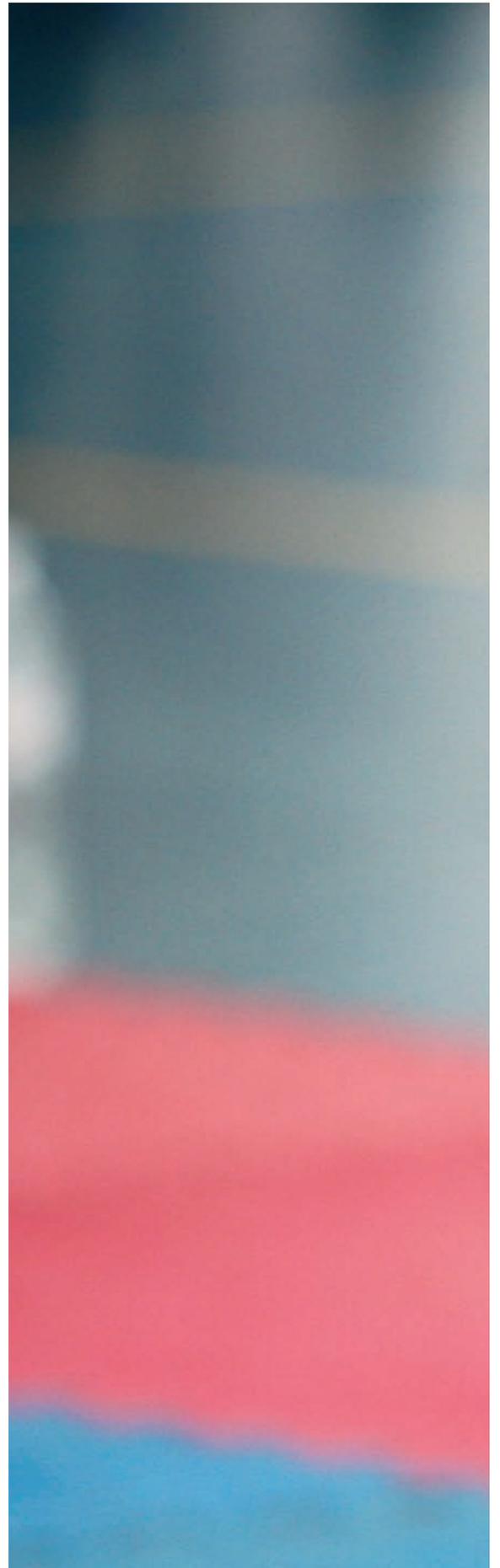
1988년 9월 18일.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다. 지용석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예선 1차전에서 터키 선수에게 다양한 공격을 구사하며 4대1로 가볍게 이겼다.

그리고 8강전에서 프랑스 선수를 만나 파이팅 넘치는 몸놀림으로 경기 시작부터 상대 선수를 세차게 몰아치며 승기를 잡았다. 1회전 종료 직전엔 프랑스 선수가 지용석의 오른발 돌려차기를 얼굴에 맞고 다운됐다. 2회전에서도 지용석의 공격은 계속됐다. 상대의 공격을 막으며 옆차기로 얼굴을 가격해 득점을 하는 등 경기의 완급을 조절하며 4대0으로 완승했다. 관중들은

지용석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준결승은 한국과 미국의 ‘빅 매치’였다. 관중들은 경기 전부터 “KOREA!”, “USA!”를 외치며 응원했다. 지용석은 재미교포 출신인 미국 선수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격과 방어를 주고 받았다. 미국 선수는 몸이 다부지고 몸놀림이 빨랐다. 관중들은 박빙의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2분 중반까지 승부를 가릴 수 없는 접전이 이어졌다.

그러던 2분 30초, 미국 선수가 오른발을 들며 지용석을 향해 밀고 들어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용석은 밀받아차기로 응수했다. 밀고 들어오던 미국 선수가 맞고 휘청거리자 주심은 스탠딩 다운을 선언했다. 2득점을 선취한 지용석은 자신감을 얻은 듯 거세게 몰아쳤다. 오른발







1988 서울 올림픽 태권도 남자 밴텀급 결승전에서, 지용석(왼쪽)이 스페인의 호세 사나브리아에게 발차기 공격을 퍼붓고 있다.

로 돌려찬 후 왼발 뒤후리가 미국 선수의 머리 위로 스쳐가자 관중들은 탄성을 터뜨렸다. 3회전에서도 지용석이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다.

이윽고 시작된 결승전. 지용석은 이란 선수를 제치고 올라온 스페인의 호세 사나브리아와 맞붙었다. 1회전부터 차근차근 호세 사나브리아를 몰아붙여 경기의 주도권을 잡은 지용석은 받아차기와 내려차기로 착실히 득점을 올리며 안정된 경기를 펼쳤다. 호세 사나브리아는 패색이 짙어지자 몸싸움을 하는 등 분전했지만 역전을 할 수 없었다. 지용석은 호세 사나브리아를 2대 0으로 꺾고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금메달 획득 후 힘들었던 나날 회상

지용석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내려차기와 뒤돌려차기, 얼굴 내려차기, 뒤후리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기술을 구사하며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하는 공격기술을 자주 선보여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자 밴텀급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선 지용석은 만감이 교차했다. 문득 1984년 인대 부상으로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나날이 떠올랐다. 그 때마다 그는 ‘할 수 있다’는 생활신조를 마음에 품고 앞으로 나아갔다. 몇 년 동안 국가대표 2진에 머물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같은 큰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행운처럼 찾아온 88서울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를 움켜쥐고 정상에 올랐다.

지도자 생활 거쳐 대학교수로 후진 육성

그는 1989, 1990년 전국체전 일반부에 출전해 우승하는 등 선수 생활을 계속하다가 은퇴한 후 모교인 청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 학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그 후 1996년부터 청주대 태권도부 코치로 활동하며 고성석·김향수·김학환 등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했다.

태권도 지도자 생활도 순탄했다. 2002년 월드컵태권도대회 대표팀 트레이너,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표팀 코치 등을 역임하고 2007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을 받았다.

200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태권도 수련 정도가 청소년들의 골밀도 수준과 신체구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2004), 태권도 몸통 돌려차기 동작에 대한 운동역학적 분석(2008) 등 여러 편의 논문을 쓰며

교수의 꿈을 키워 나갔다.

그리고 2010년 청주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다. 당시 그는 “태권도를 비롯한 체육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능력 있는 태권도인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많아질 것이다. 학생들이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1988 서울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한 지용석.

글 서완석 사진 일간스포츠 사진 연감(1989), 김운용닷컴

1988 서울 올림픽과 태권도

태권도가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결정된 것은 1985년 6월 2-6일 동독의 동베를린에서 열린 제90차 IOC총회에서였다. 당초 서울올림픽 시범종목으로는 야구와 배드민턴으로 결정된 상태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올림픽 개최국은 두 종목에 한 해 시범경기를 열 수 있었다. 시범종목으로 열린다는 것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가는 필요조건이었다. 따라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노리는 태권도로서는 서울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들어가야만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다. 태권도는 서울올림픽에 시범종목이 아닌 전시종목으로 열릴 참이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운용은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수장이기도 했던 김운용의 어필에 사마란치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섰고, 마침내 태권도가 배드민턴을 끌어내리고 시범종목으로 승격했다. 즉, 태권도와 야구가 시범종목이 되고 배드민턴이 전시종목으로 물러섰다. 훗날 김운용은 자서전을 통해 “서울올림픽 개막 행사 때 시범까지 보일 태권도가 시범종목에서 빠진 것을 그냥 둘 수 없었다”고 솔회했다. 배드민턴은 4년 뒤 열리는 바르셀로나올림픽에 이미 정식종목으로 승격될 것이 예약돼 있었다. 하지만 직전 대회인 서울올림픽에서는 태권도에 밀려 시범종목에서조차 빠지는 모양새가 됐다.

서울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1988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잠실체육관에서 열렸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공식 연습장으로 제공됐다. 국기원은 그 해 2월부터 5개월간 보수공사에 들어갔고, 국기원에서 실시되던 각종 대회와 승품



태권도 중주국답게 첫날 3개 체급을 석권한 한국의 하태경(왼쪽·남자 플라이급), 추난열(가운데·여자 플라이급), 정국현(남자 웰터급)이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들어 보이고 있다.

단 심사는 다른 경기장에서 치러졌다. 올림픽 시범경기에는 남자 32개국 120명, 여자 16개국 63명이 참가했다. 당시 한국 남자대표팀은 중주국답게 금메달 7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했다. 하지만 여자대표팀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미국에 밀려 2위에 그쳐 충격을 줬다. 최근들어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재미없다는 지적이 많지만 서울올림픽 당시 치러진 태권도 경기의 격렬함은 역대 최고였다는 평가다. 지금도 호사가들에 의해 당시 경기 영상이 유튜브 등에 올라 온라인상에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시범경기임에도 사마란치 IOC 위원장과 수많은 IOC 위원들이 경기장을 찾아 시상까지 하며 태권도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이는 1994년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좋은 인상을 준 계기가 됐음은 물론이다.

9월 17일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올림픽 개회식 식전행사로 펼쳐진 태권도 시범은 전 세계로 중계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육군 비호 태권도단 808명과 미동초등학교 시범단 200명 등 1,008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원은 ‘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태권도의 우수성과 예술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 또 태권도를 전 세계로 홍보하고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개회식 태권도 시범에 대해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얘기를 김운용으로부터 전해들은 사마란치는 “꼭 하라”는 주문을 넣었다. 사마란치는 2년 전인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펼쳐진 태권도 시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김운용은 2015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서울올림픽을 광복 이후 역사에서 6·25 전쟁에 비견할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본다”면서 “무엇보다 축 늘어져 있던 한국 국민이 ‘우리는 할 수 있고, 해 냈다’고 느끼면서 의식을 개혁하게 됐고, 약소국이었던 대한민국이 문화국가로서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A**



1988 서울 올림픽 태권도경기장을 찾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왼쪽)과 김운용 총재.



서울 올림픽 개막식 식전 행사로 열린 태권도 시범 경연에 참가한 육군 비호 태권도 선수들이 공중 격파 시범을 보이고 있다.



태권도, 가치와 문화를 입힌



세상은 변하고 경계는 모호해졌다.

변화의 급격한 요동은 늘 경계의 지점에서 싹트기 마련이며 그 확장성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역사의 새 주인이 결정된다. 한국이 세계에 선물한 태권도 역시 시대에 따라 그 경계를 넓혀왔다. 경계의 확장은 새로운 지형을 만들고, 새 지형은 비전과 가능성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무도(武道)에서 태동한 태권도는 경기(競技)로서 몸집을 불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토확장을 꿈꾸고 있는 태권도의 미래와 비전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태권도 자체가 인류의 보편성을 가득담고 있는 무도 스포츠라 새로운 영토확장을 위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은 그리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계를 넓혀갈 태권도가 지향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다.

목표를 향한 항해와 망망대해에서 그냥 떠도는 표류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을 갖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는 항해와 로드맵 없이 떠도는 표류는

그 결과에선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1. 가치의 색깔을 더하라!

태권도의 외연확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치다. 현대 사회에서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적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이다. 가치의 이름을 대신했던 경제적 효용성이 더 이상 사회를 떠받치는 힘을 잃었는지 의미있는 가치에 대한 갈증이 시대정신으로 떠오르고 있다. 태권도 역시 그 길을 걸었다. 무도 태권도에서

경기 태권도로 경계를 넘어선 뒤 한동안 정체에 빠졌다.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후 심판의 불공성과 재미없는 경기라는 두 가지 약점이 불거지면서 한동안 올림픽 퇴출설에 시달리기도 했다. 다만 끊임없는 개혁작업으로 2012 런던올림픽, 2016리우올림픽에서 잇따라 정식종목 잔류에 성공하면서 큰 고비는 넘겼다. 위기를 넘긴 지금이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스포츠 태권도로서 올림픽에 잔류한 데 머물지 않고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선 태권도에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태권도에 접목해야 할까.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기 전에 예전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도 신선한 발상이다. 스포츠 태권도 이전의 무도 태권도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게 이러한 트렌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스포츠 태권도가 타자와의 경쟁, 즉 겨루기를 통한 승패에 집중돼 있었다면 무도 태권도는 그렇지 않다. 몸의 원리와 우주의 원리를 궁구하고 터득하는 게 무도 태권도의 기본정신이요, 지향점이다.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수련의 한 방법으로 태권도를 접근하는 게 무도 태권도의 가장 고귀한 가치다. 스포츠 태권도가 타자와의



경쟁을 추구한다면 무도 태권도는 수련의 한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태권도가 스포츠에 치중했던 과거의 모습은 시대적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무도인 태권도를 세계화하고 태권도가 지닌 위대한 가치를 대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선 무도 태권도를 스포츠 태권도로 변용시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 목표를 달성한 지금, 스포츠 태권도에 치중하면서 놓쳤던 무도 태권도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가치 개발도 필요하다. 태권도의 외연을 넓히고 태권도의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선 건강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접목해볼 직하다. 경제적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삶의 질을 높이 평가하는 현대 사회에선 아마도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을 듯싶다. 어차피 태권도가 강인한 육체의 수련과 그에 걸맞는 바른 정신의 함양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의 가치는 태권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남녀노소가 함께 할 수 있는 태권도를 만들기 위해선 겨루기

에 집중된 지금의 태권도로선 한계가 있다. 겨루기에 견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품새를 더욱 보급하고 이를 발판삼아 태권도에 건강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접목해가는 작업을 한시바빠 서둘러야 한다.

내재적 가치 발굴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간파한 가치 창출도 고려해볼 문제다. 태권도가 시대적 이슈를 선점하고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 대표적 사례는 2016 리우올림픽 난민 대표팀 구성 건이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리우올림픽 이전에 세계 난민선수들에 대한 올림픽 출전티켓 배분 문제를 이슈화했던 국제경기단체(IF)로서 큰 주목을 받았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평화라는 가치를 추구한 태권도와 WT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며 리우올림픽에서 난민올림픽대표팀을 구성해 지구촌에 희망을 전해줬다. WT 김일출 사무차장은 “희망을 꿈꾼 올림픽 최초의 난민대표팀 구성에는 평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 태권도의 역할을 빼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올림픽 난민대표팀 구성을 통해 올림픽무대에서 태권도의 위상은 한껏 높아졌다”고 어깨를 으쓱했다.

태권도에 가치를 더하는 건 태권도의 외연확장의 필수 요건이다. 태권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새로운 영토가 생겨야 태권도의 국제적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2. 문화의 옷을 입혀라!

스포츠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고도화된 문화 콘텐츠다. 문화는 곧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문화의 시대인 21세기는 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성을 떨 수밖에 없다. 경제적 생산양식이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현대는 삶의 총체적 양식인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스포츠는 이제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스포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내재된 정교한 장치 때문이다. 스포츠는 판타지(fantasy) 구조를 띠고 있다. 현실의 나약한 주체는 스포츠를 통해 영웅을 발견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암울한 현실을 탈출하는 기대감과 희망이 스포츠 안에서 싹이 트고, 사람들은 거대한 집합적 주체를 통해 억눌린 자아를 분출함으로써 스포츠가 지닌 매력에 흠뻑 빠진다. 공감(共感), 스포츠의 가장 위대한 힘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인 공감은 결국 문화 콘텐츠의 핵심이다.

태권도가 외연을 확장해 새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선 문화의 옷을 입고 다양한 융·복합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트렌드는 이미 시작됐다. 태권도의 화려한 액션이 문화의 옷을 입게 된 건 ‘난타’에 착안한 논버벌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의 잇따른 공연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호평을 받으면서부터다.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수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태권도 융·복합 퍼포먼스는 ‘점프’를 꿈꿀 수 있다. 논버벌 퍼포먼스 ‘점프’는 2003년 7월 초연 이후 40여 개국 56개 도시에서 공연하며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 대통령상 수상’, 공연최초 한국무역협회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 ‘2006년 영국 웨스트엔드 피콕 씨어터 전회 매진 기록’, ‘2005, 2006년 연속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판매 1위’, ‘2006년 프린지 코미디상 수상’ 등 수많은 기록을 남기며 관객들과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이후 태권도 논버벌 퍼포먼스는 다양한 작품으로 쏟아졌고, 국가대표 시범단은 2013년 ‘탈’을 시작으로 올해 ‘킥

스 시즌 3'까지 '키스 시리즈' **본문 사진 참조**를 잇따라 소개하며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소재지원 관련사업에 최종 선정된 '키스'는 2016년 초연 당시,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의 정점'이라는 호평 속에서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다. 최근 서울 공연을 성료하고 지방투어에 들어간 '키스 시즌3'는 탄탄한 스토리에 다 ICT(정보통신기술) 도입으로 한결 화려해진 무대예술을 선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태권도의 융·복합은 한류(韓流) 확산이 결정적이다. 세계를 들끓게 하는 K팝의 열풍과 그에 따른 한류의 확산은 태권도의 융·복합 문화 콘텐츠에 날개를 달아줬다. 문화라는 새 옷을 입은 태권도는 콘텐츠 가치를 인정받으며 외연 확장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3. 성공 열쇠는 스토리텔링!

경계를 허물고 외연을 확장하는 태권도의 새 트렌드는 1997년이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태권도를 단순히 무술 또는 스포츠로 인식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김치, 한복, 불국사 등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문화 상징물로 선정했다. 태권도계 역시 그 무렵부터 태권도를 문화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태권도가 지닌 교육, 건강, 관광의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며 태권도를 문화콘텐츠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한국 정부도 태권도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가치와 문화를 입힌 태권도의 새 트렌드의 성공 열쇠는 무엇일까? 태권도가 경기력에만 목을 맬 때와 달리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성공하기 위해선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치와 의미를 더할 때도 그렇지만, 태권도에 문화의 옷을 입힐 때는 스토리텔링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스토리텔링의 성공 요소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서사적 구조 자체의 탄탄함이며, 두 번째는 태권도라는 콘텐츠를 담는 형식의 다양성이다. 전자는 태권도와 융·복합하는 문화의 특성에 잘 맞는 에피소드를 작위적이지 않게 전개하는 게 핵심이다. 태권도가 연극이라는 형식과 만날 때는 태권도가 갖는 몸의

퍼포먼스에 치중하느라 서사의 전개가 다소 어색하고 인위적이라는 문화계의 평가는 귀담아들 만하다.

스토리텔링의 형식 또한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현재까지는 연극이라는 형식에 태권도를 많이 담아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다. 종합예술인 오페라는 물론 만화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예술의 그릇에 태권도라는 내용물을 담을 수 있게 유연하면서도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태국의 무에타이도 '옹박'이라는 영화 한편으로 새롭게 뒀다. 주연배우 토니 자가 와이어 액션 없이 대역도 쓰지 않고 연기했다는 내용이 홍보되면서 무에타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폭발했다. 무술에 관심없는 사람조차도 무에타이를 알게 되면서 영화라는 미디어의 파괴력을 절감했다. 태권도 역시 영화라는 플랫폼에 올라탈 수 있다. 지금까지 태권도를 영화로 한 작품은 적지 않지만 흥행에서 대박을 친 작품은 별로 없다. 다만 최근 태권도의 글로벌화를 실감할 수 있듯 외국에서 태권도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해 기대감이 크다. 일본에선 지난 2014년 가츠키 히데유키 감독의 '태권도 혼'이 제작됐고, 대만에선 지난 2009년 총 20부작의 태권도 드라마인 '열혈청춘'이 방영됐다. 태권도가 스토리텔링에서도 경쟁력 있는 소재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어떤 미디어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통한 스토리텔링도 태권도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격투기 무대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 태권도 출신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이다. 입식 타격기의 바다 하리(모로코)와 종합격투기(MMA) 최고봉인 UFC 라이트급 챔피언 출신 앤소니 페티스(미국) 등은 태권도를 수련한 선수들이다. 이들과 태권도의 인연을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엮어내는 것도 태권도의 외연확장과 문화영토 개척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스포츠는 육체와 정신의 변증법적 통일체다. 육체와 정신을 이어주는 게 바로 감정이며 그 감정을 움직여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우리 시대 태권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가치를 더하고 문화를 입혀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꾸미는 게 지금의 태권도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지향점이다. **KTA**



‘태권 소녀’, 청춘의 나래를 활짝 펴고 비상하다

『태권도』 선정
2·3월의 선수
강보라



바람은 신선했다. 시원하고 산뜻한
몸놀림은 감동마저 자아냈다.
다양하고 화려한 솜씨를 뽐내는 10대
소녀가 내뿜는 매력의 심연에 빠져들
어찌 할 수 없었다.
강보라! 만으로 막 17세를 넘어선
소녀가 일으킨 격랑에 좌초의 운명을
벗어날 존재는 없었다. 2018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 대회(겨루기,
2월 2~3일, 제주 한라체육관)는
그녀를 위한 무대였다.
대단한 기세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태권 한국’의 밝은 앞날을 기약케 하는
희망의 빛이요 꿈의 등장에, 아무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태권도』가 복간되며 선정한 ‘PLAYER
OF THE MONTH’ 영광의 첫 수상자
(2·3월)는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다.

돌풍은 모두를 쓰러뜨렸다

시선을 잠시 50여일 전 겨루기 국가대표 선발
무대로 돌려 보자. 강보라가 일으킨 돌풍의 크
기를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확실한
포인트 전술로 매 경기 상대를 압도하며 큰 점
수 차로 물리쳤다. 첫판서 안유란(경희대학교)
를 25:8로, 승자 준결승전서 김소희(한국가스공
사)를 15:8로, 승자 결승전서 조혜진(영천시청)
을 21:11로 각각 꺾었다. 최종 결승전에선, 패자
전에서 김소희를 물리치고(3:3 우세승) 부활을
꿈꾸던 조혜진을 다시 13:3으로 따돌리고 정상
에 우뚝 섰다. 그야말로 거칠 게 없이 대를 쪼개
는 형세[破竹之勢·파죽지세]의 승승장구였다.
이 체급에선, 당초 김소희가 강력한 우승 후보
로 손꼽혔다. 김소희는 2016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금을 비롯해 2017 제2차 월드 그랑프리
(모로코 리바트)와 2017-2018 월드 그랜드슬램
챔피언스 시리즈[중국 우시(無錫)]를 휩쓴, -49
kg급의 절대 강자라 할 만한 월드 스타다. 그런
데도 김소희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 움직임의 강
보라에 휘말려 당황한 플레이 끝에 속수무책으
로 승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국가대표 티켓을 따내는 순간,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고 환호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걸음마를 떼
자마자 도복을 입은 이래 명암을 함께해 온 아
버지였다. 이 대회에서도 계속 세컨드석에 앉아
경기 운영을 지도한 아버지, 강호동 씨였다.

부녀의 정, 최강자를 만든다

강보라는 네 살(이하 우리 나이) 때 무도의 길에 들어섰다. 강호동 태권전수관과 강호동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이끌려서였다. 시작은 태권이었다. 열한 살 무렵엔 태권꾼의 반열에 오를 만큼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 여섯 살부터 태권도도 함께 익혔다. 그해 말 1품을 뒀다. 어쩌면 천성 태권도인으로서 운명을 타고 났는지 모르겠다.

그녀는 아버지와 실과 바늘 사이이다. 아버지가 경상북도 성주군 일대에 팀을 만들 때마다 학교를 옮겨 다녔다. 성주초등학교 → 성주 중앙초등학교(5학년 때 전학) → 명인중학교 → 성주여중(3학년 때 전학) → 성주여고, ‘창단 감독’이라는 별호가 자연스럽게 붙은 아버지를 따라 움직이며 조련받았다.

그녀는 걸으로는 부드럽고 순하게 보인다. 그러나 속은 곧고 굳세다. 그래서인지 감춰진, 오뎅이 같은 승부 근성이 오늘날 그녀를 있게 했다. 경기에서 지면 패인을 곰곰이 되씹으며 밤잠을 설쳤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한 일화는 이를 잘 엿보인다. 3학년 때 경북에서 열린 한 지역 대회에 그녀는 처음 선수로 출전했다. 결승전에서 저준우승했다. 첫 농사 치곤 관상은 수확이었다. 그런데 이후 각종 지역 대회에서 그때 그 상대에게 번번이 쓴맛을 봤다. 네댓 번 계속되는 패배는 좌절을 부를 만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달랐다. 오히려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다. ‘다음번 만큼은...’ 스스로를 달랬다. 이듬해 한 지역 대회 결승에서 다시 만났다. 승자는 그녀였다. 그것도 통쾌한 점수차 승이었다.

비로소 자신감이 붙었다. 아울러 실력은 나날이 다달이 늘었다. 다시 1년이 흘러 5학년이 됐다. 2011년, 그녀는 전국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렸다.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초등학교 대회 페더급에서 당당히 맨 위에 올랐다. 또다시 1년이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패배와 낯설은 모습이었다. 이해에 두 개 대회를 휩쓸었다. 5월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대회, 6월 여성부장관기 여성 대회(이상 라이트급)에서 그녀의 위에 자리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상승세는 꺾일 줄 몰랐다. 1학년 때 전국 대회 3관왕[종별 선수권·협회장·평화기(이상 플라이트급)]에 오를 만큼 무풍지대를 내달렸다.

하늘이 시기했을까? 2014년 후반부, 그녀를 줄곧 괴롭히던 왼쪽 무릎 부상이 도졌다. “쉬지 않

고 운동을 계속하면 앞으로 도복을 입지 못할지 모른다.”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여 6개월가량을 쉬어야 했다. 그 여파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지경에까지 내몰렸다.

그러나 병마도 그녀를 쓰러뜨릴 수는 없었다. 2015년에 들어서며 되돌아온 그녀는 도리어 더 강해졌다. 이해 2월 제8회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최종 선발 대회 밴텀급에서 예상을 깨고 1위를 하며 대표로 뽑혔다. 그리고 두 달 뒤 타이베이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 밴텀급서 우승해 국제 무대 첫 정상에 오르며 개신가를 불렀다. 7월엔 제6회 아시아 유소년 국제 대회를 자신의 무대(-49kg)로 만들었다. 이에 앞서 5월엔 전국 유소년체육대회 -48kg에서 우승하며 태권도 여중부 MVP에 뽑혔다. 그야말로 홀로 정상을 거닐었다.

여고생이 된 2017년은 다소 부진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정상 문턱에서 잇달아 넘어지며 2위만 세 차례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결코 허무하게 한 해를 넘기지 않았다. 그해 11월 남녀 우수 대회 겸 국가대표 예선 대회 -49kg에서 우승하며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해가 바뀌어 2018년이 됐다. 그녀는 마침내 성인 무대에서도 최고 강자가 됐다. 2월 국가대표 최종 선발 대회에서 모두를 잠재우며 ‘깜짝 우승’했다. “첫 성인 무대에서 별로 주목 받지 않은 듯싶다. 지닌 기량을 제대로 발휘한 점이 국가

대표 발탁의 원동력이라 본다.” 아버지가 평가한 대로 그녀는 자신만만했다. 매 경기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잃지 않았다.

비상의 나래는 언제, 어디서?

강보라는 창천(蒼天)으로 솟아오르려 한다. 그 희원(希願)의 무대는 오는 5월 25~26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벌어질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겨루기)다. ‘태권 증가’답게 종합 우승을 노리는 한국의 선봉장이 되리라 다짐하는 그녀다.

김종기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팀 감독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보라는 한국 여자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이끌 뛰어난 유망주다. 변수가 없는 한 금메달 획득이 유력하다.”

그녀는 상황에 맞게 전술을 운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남녀 스타일을 모두 구사할 정도다. 유연성도 좋다. 단지 아버지의 지적처럼 이따금 소극적으로 위축된 플레이를 보이곤 한다. 이 단점이 중요한 경기에서 나오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다시 말해 긴장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닌 솜씨를 뽐내면 우승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녀는 장밋빛 미래를 품고 있다. 박차고 내지르는 발과 주먹에 이상을 그득 안고 하늘 높이 날아가려 한다. 그녀가 한껏 비상할 그때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KA**



생년월일 2000.11.13
출생지 경상북도 성주군
가족 강호동(44), 이일문(46)씨 2남 2녀 중 첫째
신장/체중 165cm/48kg
학력 성주초 - 성주 중앙초 - 명인중 - 성주여중 - 성주여고(2년 재학 중)
입문 태권(4세), 태권도(6세 · 이상 우리 나이)
첫 우승 어린이 태권왕 겨루기 전국 초등학교 대회 페더급 1위(2011.06.26)
대표 경력 주니어(2015.02), 국가대표(2018.02)
국제 대회 경력
▶ 제8회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밴텀급 우승 (2015.04.11)
▶ 아시아 유소년 국제 대회 -49kg 우승 (2016.07.05)

사진으로 배우는 태권도 기술 <1>

귀는 눈을 이기지 못하고, 눈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무엇을 깨우칠 때 듣기보다는 보기가, 보기보다는 느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범이 백 번을 말한들 한 번 시범을 보이니만 못할 수 있다.
 『태권도』 지(誌)가 초보자들이 막연하게 알고 습득하려 했던 태권도 기술을
 연속 사진으로 배울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한 까닭이다.
 느낌을 살려 많은 연습으로 체득해 보자.

돌개차기

뒤돌며 뛰어 돌려 찬다.
 앞발을 축으로 몸을 한 바퀴 이상 뒤로 돌리며 뛰어 돌려 찬다.



- 활용**
- ▶ 360도 돌개차기
 - ▶ 540도 돌개차기
 - ▶ 720도 돌개차기

(뒤)후려차기

발을 뒤축 쪽으로 크게 돌리며 발바닥이나 뒤축으로 목표물을 후려갈기듯이 가격한다.
몸을 정면에 두고 무릎을 앞으로 접었다 펴며 발을 뒤축 쪽으로 돌려 찬다.
때로는 무릎을 접지 않고 편 채로 차거나 몸을 뒤로 돌리며 찰 수도 있다.
돌려차기, 몸돌려차기와 같이 원 이동을 하는 차기 기술에 쓰인다.



시범 이대훈
(2018 겨루기 국가대표팀)



활용

- ▶ 360도 뒤후려차기
- ▶ 540도 뒤후려차기
- ▶ 뒤후려차기
- ▶ 뒷발 후려차기
- ▶ 뛰어 뒤후려차기
- ▶ 발붙여 후려차기
- ▶ 앞발 후려차기
- ▶ 잡고 후려차기

뒤차기

무릎을 접었다가 뒤로 뺏으며 목표물을 찬다.

뒤축으로 상대방 배나 가슴 등을 가격한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자신의 앞에 있을 때엔 몸을 뒤로 돌리면서 찬다.

상황에 따라선 제자리에서 뒤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곧게 뺏어 찰 수도 있다.

시선은 차는 방향을 바라보며, 축이 되는 다리는 옆차기 때와 같이 무릎과 발목을 펴지 않아도 된다.

활용

- ▶ 뒤차기
- ▶ 뛰어 뒤차기



나래차기

두 발을 연이어 뛰어 돌려 찬다.
먼저 차는 발은 속이는 동작이기 때문에, 다리를 완전히 펴지 않고
나중에 차는 발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돌려 찬다.



시범 김태훈
(2018 겨루기 국가대표팀)



도움말 겨루기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사업부 부장 직무 대리
참조 『태권도 기술 용어집』(국기원·2010년)

강신철 남창태권도장 관장의 ‘황칠 도복’



무 덕관 출신인 강신철 남창태권도장 관장은 ‘이란 태권도의 대부’로 불린다. 1985년 국가대표팀 코치를 시작으로 1995년까지 지휘봉을 잡고 이란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다.

이란 남자 태권도가 한국과 함께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데엔 강 관장의 탁월한 지도력이 원

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란 태권도 발전을 위해 사범 교육을 비롯해 다양하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바른 사람을 키워 내는 도장이 태권도의 모 든 것이다.” 강 관장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소신인 도장 경영 철학이다.

공고 올바른 지도 철학으로 태권도계에서 존

경받는 강 관장의 애장품은 바로 42년 된 ‘황 칠 도복’이다.

1976년 청문도장에서 외삼촌과 사범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맞춤 도복을 제작했다. 그 후 42년간 이 도복과 태권도 인생을 함께했다. 지나온 세월과 젊었을 때 기운이 도복에 녹아 있기 때문에 가장 아끼는 물



건이 됐다.
 도복이 오래돼 색이 바래고 너절너절해지면서 황칠을 하게 됐다. 수십 번도 더 기워 입던 도복을 천연 염색 전문가가 작업해 반년 만에 세상에 하나뿐인 천연 황칠 도복으로 새롭게 보내왔다.
 강 관장은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

다.”라며 새삼 감회에 젖는 모습이였다.
 강 관장은 자신이 현재 운영하는 수원 남창도장 지하에 ‘강신철 태권도 갤러리’를 두고 있다. 이란 국가대표 팀에서 활동했던 사진, 제자들이 보낸 선물 등 강 관장의 태권도 인생을 고스란히 담은 물건들이 많다.
 그런데 인터뷰를 마치며 강 관장의 한마디에

더욱 진한 감동을 느꼈다.
 강 관장은 “황칠 도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체육관 수석 사범”이라고 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강 관장에게서, 제자에 대한 무한 애정을 느꼈다. **KTA**

태권도 사범의 소임



글 이종관 대한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태권도를 수련하고 사범의 길을 선택해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항상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다. 도대체 사범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사범의 구실이 무엇인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목적이 수련으로 함양된 태권도의 가치를 인간사회 속에 투영시켜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욕구를 이끌어주는 선생 이 사범이 아닐까 한다.

사범은 학위인사 학불염(學爲人師 學不厭) 행위세범 교불권(行爲世範 教不倦)에서 스승(師)과 모범(範)을 가져와 만든 용어이다. 학문으로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기 위해 배우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동으로는 세상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사범이 갖춰야 할 자제는 무엇일까.

첫째 열성적(熱誠的)으로 지도해야 한다.

항상 열성적이며 가르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정성은 신뢰와 같다(誠與信). 열성적으로 가르치면 제자들은 사범을 신뢰하고 따른다.

둘째, 창의적(創意的) 교육이 돼야 한다.

사범은 수련자의 의식을 틀 속에 가두지 않고 항상 사고가 열려있게 지도해야 한다. 옛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이 돼야 하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수련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돼야 한다.

셋째, 책임감(責任感)이 있어야 한다.

사범은 태권도를 통해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도덕적 책무가 있다. 사범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항상 타인에게 주목이 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범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지고 항상 반성하며 절제된 행동으로 수련자의 모범이 돼야 한다. 말을 하면 필히 행동이 있고 행동을 하면 꼭 결과가 있는 법이다.

넷째, 공평무사(公平無私)해야 한다.

수련생을 편애하지 말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신상필벌을 공정하게 한다. 상과 벌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제자가 잘못했을 때는 꼭 지적이나 꾸지람이 공평하게 돼야 신뢰받는 사범이 된다.

다섯째, 권위(權威)가 있어야 한다.

권위는 폭력이나 위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품위나 믿음에서 나온다. 권위를 지키려면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도 과단성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전문성(專門性)을 갖춰야 한다.

태권도에 관한 이론이 논리적이어야 하며 기술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는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곱째, 자애(慈愛)로워야 한다.

제자를 자식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훈육하여 바른 인성이 함양된다. 옛말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한 것은 군은 권위, 사는 지식, 부는 자애를 말하는 것으로 사범은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닌 명실상부한 군사부일체가 돼야 한다.

여덟째, 예의(禮義)를 갖춰야 한다.

사범은 수련생을 예로 대해야 한다. 무례한 사범은 무례한 제자를 만든다. 사범은 수련자를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이로써 태권도 사범이 갖춰야 여덟 가지 덕목을 살펴본다. 사범이 되기도 쉽지 않지만 좋은 사범이 되는 것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과 같아서 엄청난 절제와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그렇다면 사범의 구실은 무엇일까? 사범은 제자들에게 수련의 동기부여를 해주며 수련의 조력자 구실을 해야 한다. 또 사범은 태권도 발전을 위한 지도자가 돼야 하고 제자들의 갈 길을 알려주는 인도자의 사명도 있다. 그리하여 태권도 수련생들이 사회 각 분야의 인재로 등용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애정으로 보살피는 것도 사범의 구실이다.

제자는 선생을 닮아 간다는 말이 있다. 제자의 모습이나의 모습임을 항상 의식하면 사범의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알게 된다. 사범의 길을 선택한 사범 제현들에게 약간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PROPOSAL

『태권도』지 복간에 드리는
고언(苦言)

한규인 전 『태권도』지(誌)
편집인

폐간과 복간의 부침(浮沈)이 거듭됐던 대한태권도 협회 『태권도』지(誌)의 재복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십 수년간 『태권도』지를 편집했던 전 편집인으로서, 또 한 명의 태권도인으로 축하 말씀을 드린다.

바야흐로 태권도계에는 인터넷 뉴스와 전문지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많은 10여 개가 넘는 매체가 있다. 그러나 실정은 안타깝게도 각자도생(各自圖生)하기에 급급한 현실이라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태권도 중주국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오직 태권도 홍보와 발전을 위하여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인을 위하고, 태권도인에 의한 『태권도』지가 격월간으로 발행하게 된다하니, 고무적이며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작금의 현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기기의 출현으로 다양한 정보 홍수의 세상에 살고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 궁금한 것을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새삼스럽게 잡지 발간이 무슨 일인가?”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태권도에 관한 각종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사료적 가치로서의 유일한 자료가 대한태권도 협회에서 발간되었던 『태권도』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회자(膾炙)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료 및 자료 관리에 엄격하고 충실하지 못했던 태권도계에서의 『태권도』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매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승인한 전국 규모 대회(초·중·고·대학·실업·여성연맹 등)는 연간 40여 회나 된다. 『태권도』지는 협회 주관 40여 개의 대회 기록과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일반 태권도장 운영과 직결되는 생활체육 부문의 6~7개의 전국 규모 대회, 사

범 지도자 교육 3~4회 등의 내용과 각종 자료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7개 시도협회의 동정 및 일반 태권도장 사범들의 미담, 모범 사례 등 범태권도의 각종 자료를 『태권도』지가 섭렵하고 있음이다.

이외에도 각종 국제대회, 세계 209개국에 보급된 태권도인의 특수 동향,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원의 상황 등 태권도의 모든 부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주국 대한태권도협회의 『태권도』지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지는 태권도 언론으로서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태권도 수련생과 후학을 연구하는 전공자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에서도 근간이 되는 기본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듯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간되는 『태권도』지는 대한태권도협회의 기본 정책의 근간이 되어서, 임원이 바뀌어도 정간이나 복간의 부침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양해지는 품새 경기, 과연 현장 분위기는?



대 한태권도협회 정식 품새 대회는 1998년 용인대 총장기를 시작으로 공인 품새 대회가 개최됐다. 그후 품새대회는 별도의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될 만큼 새로운 태권도 경연 장르로 자리잡았다. 오는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품새경연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태권도 품새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새 품새'는 국기원과 아시아연맹이 주축이 돼 오는 8월 아시안게임을 겨냥해 개발됐다. '새 품새' 개발은 지난 1972년 태극 품새 개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같은 품새 개발은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 가라테를 정식종목으로 집어넣으면서 쿠미테(겨루기)뿐만 아니라 가타(품새)까지 채택한데 자극을 받았다. 따라서 새 품새의 성공여부는 향후 가라테의 도전에 맞서 태권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새 품새는 기존 태권도 공인 품새에서 다루지 않은 태권도 기술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경기용 품새이다. 앞 주춤서기, 치 지르기, 겨루기 발차기 등과 같이 기존의 공인 품새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새 품새와 자유 품새는 새로운 동작의 힘쓰기 및 회전, 고공 발차기와 겨루기, 아크로바틱이 추가되면서 기존 품새 선수단의 훈련법에 일대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대학 단위 품새팀 가운데 가장 먼저 품새 선수 육성과 관리에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과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경희대학교 품새부 단군을 찾아봤다. 과연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기존 훈련법은 총 2시간으로 1시간 동안 체력단련을 한 뒤 한 시간은 발차기, 공인 품새를 했다. 하지만 자유 품새와 새 품새가 도입됨으로써 연습시간을 늘려, 한 시간은 체력운동, 한 시간은 보조훈련(체조, 회전 발차기, 연결 발차기, 기본발차기)을 한 뒤 새 품새와 공인 품새로 운동을 마무리한다. 이렇듯 공인품새와 새 품새, 자유품새를 병행해 연습 비중이 늘어나고 훈련방식이 눈에 띄게 변화,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민우 경희대학교 품새부 감독은 "현재 품새 선수들의 발전된 기술들이 새 품새와 자유품새에 담기는 것은 좋지만 너무 화려한 기교에 치중되어 태권도의 공격과 방어의 기본적인 기술들이 묻히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또한 고난도 기술로 올라가는 만큼 부상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 또 그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원우 경희대 품새부 주장은 "갑작스럽게 도입된 부분에서는 선수들의 부상이 잦아지고 심적 부담이 커졌다"며 선수들의 불안한 마음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선수를 위해 자유품새, 새 품새의 체점의 체계적인 기준들이 제시돼야 하고 품새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자유품새와 새 품새에 대한 올바르게 정확한 판정을 위해 바뀐 품새 기술들에 대한 심판들의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FA**

글·사진 정혜나

변화하는 대학 문화 태권도학과 신입생 환영회

3월 16일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단호홀에서 진행된 태권도학과 신입생 환영회. 2, 3, 4학년 선배들 뿐 아니라 교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식순으로 국민의례, 학과장 인사말, 대면식이 진행됐다.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직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복직해 바로 학과장직을 맡은 김종헌 교수는 환영사에서는 “태권도학과와 태권도경기지도학과가 통합된 중요한 시기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학과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인지해 학

생 여러분이 대학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학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회를 필두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곧이어 대면식에서는 신입생 117명이 무대 위로 올라와 교수 및 재학생 선배들과 인사를 교환했다. 단체사진 촬영 이후 진행된 훈련단 및 동아리 소개에서는 각 주장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소속팀을 소개해주고, 몇몇 동아리에서는 신입생들을 위해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2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및 장기자랑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고, 다양한 선물을 준비해 나눠주며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장기자랑에는 춤, 노래, 개그 등의 장르로 총 10팀이 참여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재학생들의 넘치는 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행사 취지에 맞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가팀을 향해 환호해주고 큰 박수를 보내줬다. 장기자랑 종료 후 심사위원 채점을 통해 발표된 순위에 따라 교수들이 직접 상상을 진행하면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학생들은 문밖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행사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처럼 태권도학과 신입생 환영회가 달라지고 있다. 이전의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행사들과는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대학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 시대 흐름과 학생들의 인식변화에서 비롯된 건전한 대학문화는 앞으로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KFA**

글·사진 이태성



노력과 도전의 아이콘, 박준희

노력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이고, 도전이란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거는 사전적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두 단어로 떠오르는 선수 박준희는 레드블 킥잇 2015 격파 예선 1위 등 다양한 경력과 대한태권도협회 전 국가대표 시범단이자 현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 코치를 맡고 있다.

첫 시작

“대학 입학을 앞두고 SNS를 통해 처음 태권도 시범 동영상 접하였고 영상 속에 고난도 기술 격파들을 보면서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에 망설임 없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범과 기술

“가장 기억에 남는 시범은 첫 해외 파견입니다. 태권도 시범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목표

로 했던 것이 권위 있는 기관에 들어가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파견을 나가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파견 나갔던 ‘한·중 문화교류 행사 시범’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 있는 기술은 장애물발차기입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발차기를 많이 연습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체공을 느낄 수 있는 장애물발차기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슬럼프

“군 생활을 하면서 슬럼프가 한 번 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시범을 많이 하다보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발차기 연습을 멈추고 기초 체력 위주로 훈련 했던 것 같습니다. 시범을 다시 하고 싶고, 발차기가 다시 하고 싶어 질 때까지 체력훈련을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시범발차기는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발차기를 하고 버틸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평소 체력훈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목표와 다짐

“아직도 태권도 시범에 관해서 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계속 선수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KFA**

글·사진 공찬욱

경희대 품새부 '단군'을 아시나요?

국 조 '단군'은 경희대에서는 품새부의 이름이다. 단군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국내 품새대회에서는 꽤 알려진 팀이다. 작년엔 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2018년 첫 품새 대회였던 제 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강완진이 남자부 공인품새 1위, 자유품새 3위에 올랐고, 최동아는 자유품새 여자부 3위에 입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단군의 승승장구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뿐만 아니라 코칭스태프의 지원이 탄탄히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군의 코칭스태프 중 김무성 체력트레이너(Athletic Trainer: AT)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품새부에서 AT의 역할은

AT는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재활치료를 하고,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전민우 감독의 요청으로 작년 5월부터 단군의 AT로 합류했고, 특히 여자선수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김채린 서브 AT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Q 태권도 품새 종목 맞춤형 트레이닝은 어떤 것인지

크게 부상 예방과 퍼포먼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 예방의



경우 '상지'보다는 부상 빈도가 높은 '하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파워와 밸런스 향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Q 품새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은

제가 생각하기엔 'one leg squat(pistol) jump'입니다. 이유는 품새선수에게 중요한 근력, 파워, 밸런스 모두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Q 태권도 AT에 대한 전망은

자유품새와 새 품새가 생기면서 품새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도자분들이 AT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다른 종목처럼 여러 품새팀에서도 많은 AT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약 1년 동안 단군 AT를 역임하며 느낀 점은

고등학생 때 몸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몸이 많이 상한 채로 대학에 입학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잘 써주어도 몸 상태가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태권도 품새는 타 프로종목과 동일하게 유소년기부터 시작하는 엘리트 스포츠이며, 고령자들 까지도 대회에 출전하는 스포츠이다. 하지만 타 스포츠와는 다르게 선수들의 부상 관리에 지도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일부 뜻있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스트렝스(Strength) 트레이닝과 품새 훈련을 위한 체계적인 지도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더 나은 경기력과 부상 없는 긴 선수생활을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의 AT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다. **KFA**

글 김수진 사진 단군 제공

KTA 대학생 명예 기자를 신청한 까닭은?



대 한 태권도 협회에서 발행되는 태권도지(誌)는 2010년 12월에 중단된 뒤 7년 4개월 만인 2018년 4월부터 다시 발행된다. 나는 제 1기 KTA 대학생 명예기자단 선발 공지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보고 가슴 떨림을 느꼈다. 내가 좋아하는 태권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동참한다는 점에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KTA 대학생 기자단이 태권도지(誌)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겼다. 대학생 기자단에 지원하게 된 이유다.

우선 과거 발행됐던 태권도지(誌)를 꼼꼼히 살펴봤다. 태권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간의 역사와 함께 태권도 관련 철학, 역학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있었다. 또한 대회 소식과 국가대표 선수 활약상, 태권도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 등 시대별로 흥미로운 기사가 많았다. (이전에 발행됐던 '태권도지'는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새롭게 복간되는 태권도지의 방향은 모든 대학생 기자가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옛것을

살리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SNS를 통해 태권도인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또 온라인 시대 흐름에 맞춰 속도도 챙기는 발 빠른 태권도지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에는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등 태권도에 특히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생들이 모였다. 태권도를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대학생 기자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담아낼 때 복간된 태권도지는 더욱 생명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 역사기록이 다시 시작되는 뜻깊은 태권도지(誌)가 될 것 같다. **KFA**

글 박해진 사진 대한태권도협회 DB

태권도에 예술을 접목하는 행복한 동아리, 익스트림

경 희대 태권도학과 동아리 익스트림은 태권도에 춤과 예술을 접목해 공연하는 행복한 동아리다. 이 동아리가 운동을 할 때면 도장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희대 태권도학과 내에서도 분위기 좋은 곳으로는 익스트림이 으뜸이다.

이번 학기 동아리 11대 단장을 맡은 태권도학과 14학년 이찬기는 “익스트림은 다른 태권도 동아리와 달리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운동을 재미있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정답죠.”라며 동아리 자랑에 열을 올린다.

익스트림은 올해도 많은 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큰 대회만 해도 세계태권도 한마당, 우석대 추계 웰빙 태권체조 및 시범 페스티벌, 국회의장배 등이다. 익스트림은 직접 공연을 기획하는 능력 있는 팀이다. 동아리 단원들이 함께 모여 작품의 컨셉을 정하고 연출을 기획한다.

“개인적인 성격 탓이겠지만, 다른 사람과 비슷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통 태권도도 물

론 아주 좋아하지만 퓨전태권도를 더 선호합니다. 기존 태권도의 틀을 깰 수 있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재미를 위해 태권도에 춤과 예술을 접목시키기 시작하였지만, 점점 태권도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할 것인데, 그 발전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욱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장은 퓨전태권도에도 관심이 있지만 전통 태권도 공연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보다 요일별로 운동을 정해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귀띔한다.

“매주 월, 화, 수요일 8~10시에 경희대학교 백두도장에서 운동합니다. 대회와 시범 일정에 따라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시범작품을 창작하고 단원들과 함께 반복 연습을 진행합니다. 화요일에는 기본발부터 회전발차기, 도약 발차기 등 발차기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수요일에는 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동아리 단장으로서 보람은 뭘까.

“저희 익스트림은 모든 작품에 한 동작 한 동작을 단원들과 함께 창작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며 작품을 만들었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같이 직접 만드는 안무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스트림에는 태권도 전공자들보다 일반 학생들의 비중이 높다. 기본기부터 배워야했던 학우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기쁨이다.

“저는 술선수범하여, 동아리 단원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즐기는 단장이 되고 싶습니다. 더욱 밝고 재미있는 분위기에서 좋은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운동시간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다치지 말고, 항상 즐기며 행복하게 운동하자”며 오늘도 동아리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다. **KTA**

글·사진 박진주





지난 2월 24일 경기도 부평시의 한 MMA 체육관.
 이날 대성합기도, 제이폭스멀티짐, 옥타곤멀티짐 등 여러 체육관 소속 동호인들이 이종 격투기 대회를 가졌다.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갖고 훈련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는 그런 아마추어 대회였다. 이동희 태권도체육관 소속 선수들도 태권도의 명예를 걸고 출전했다. 필자도 그중 한명이었다. 정근표, 최성욱, 최현석, 장서진, 최민지, 유경민 등 총 6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 선전을 거듭하며 5명의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 상대한 체육관이 격투 전문 체육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였다.

태권도 수련생들, 이종 격투기에 도전하다



그들은 왜 이종 격투기에 도전했을까?

“태권도 수련생들이 왜 격투기?”라며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흔히 이종 격투기 하면 복싱, 무에타이, 주짓수, 레슬링 등을 생각한다. 격투기가 기술 향상을 위해 태권도를 하는 사례는 있어도, 태권도인이 격투기를 하는 것은 보기 드물다. 평소 무술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운 좋게 이 동희 사범을 만나게 됐고, 조금 더 실전적인 것

을 추구하다 경기에 나서게 됐다. 우리 선수 중에는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막 태권도 도장 개관을 준비하는 미래 관장,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 연세대에서 국제학부·경영학부·공과대학에 재학하며 수학 중인 일반 대학생, 그리고 마포구를 지키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까지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 태권도인은 어떤 이유로 매트가 아닌 케이지 안에 서게 된 것일까?

제일 연장자인 정근표 씨(50)는 자칭 ‘무도 마니아’다. 평생 무술을 연마하는 것이 꿈이다. 노인이 돼서도 꾸준히 태권도를 하는 그런 모델이 돼 보고 싶은 마음이다.

유경민 씨는 친구들로부터 ‘권사’라 불린다. 그렇다고 종교인은 아니고 주먹 권(拳)에 선비 사(士)를 쓰는 권사다. 얼마 전까지 유명 성인 태권도장인 가온태권도장에서 사범이었다. 허리 부상으로 재활 치료 중 이번 경기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유일한 홍일점인 최민지 씨(21)는 연세대 동아리 싸울아비 부회장이다. 무술에 매료돼 남녀 불문하고 스파링을 즐긴다.

정 씨는 “무술은 실전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아이키도나 태극권 같은 것은 실전이 없기 때문에, 정 씨는 이런 것들을 무도하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도라고 믿고 있다. 이들이 부상을 각오하고 이종 격투기 대회에 태권도를 대표해 뛰어든 이유다.

그렇다면 이들의 훈련 과정은 어떻게 궁금하다. 유 씨는 몸 풀기로 기본 스트레칭과 기초 체력 훈련을 하는데 흔히 ‘애니멀 스텝’이라 불리는 웅보와 최근 기능성 트레이닝으로 각광 받는 페르시안 클럽 & 케틀 벨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한다. 이어 겨루기에 필요한 특정 동작을 체득하기 위해 미트 워크를 3분 3라운드에서부터 5분 5라운드까지 점진적으로 늘려가며 훈련하고 특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약속 겨루기 같은 것을 역시 3분 3라운드~5분 5라운드를 뛰었다.

정 씨는 직장 때문에 단체 운동을 많이 빠져서 체력 보강을 위해 계단 운동을 많이 했다. 턱걸이도 많이 하고 특히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스

트레칭도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격투기 훈련 중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을까? 심기훈 씨(26)는 “복싱 선수를 할 때 체중 감량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더 강해지고 있네. 내 상대는 불쌍하구나.’ 하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재미있게 훈련했다.”라고 해결책을 밝혔다.

최 씨는 훈련 과정 중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스파링이었다고 말한다. 실전 감각을 키우도록 여자라고 봐 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훈련 초반에는 부상도 많이 당하고 힘 조절도 많이 못했다고 한다. 허벅지와 정강이에 멍이 퍼렇게 피어 있어 가족이 당장 그만두라고 할 때가 많았으며 미소를 지었다.

정 씨는 나이드 사람들을 위한 태권도 동작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다.

“병원에서도 태극권을 노인에게 가르치는데, 태권도도 동작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권도 품새는 나이 들면 하기 힘들어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태극권이나 팔괘장 같은 부드러운 무술 쪽 공부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국 유학생 신분인 심 씨는 잠시 도장을 떠난다. 미국 변호사가 목표이기 때문에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 대학에 복학한 뒤에는 학교 내에 혹은 인근에 도장을 만들어서 태권도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심 씨가 생각하는 사범상은 어떤 것일까. 심 씨는 ‘사범 = 존경’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승무관 공인 5단이던 아버지를 보고 성장한 때문인지 실전 같은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봐 왔고, 혹독하게 수련하는 태권도 사범들에게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스승인 이동희 사범은 태권도 수련생을 이종 격투기 대회로 몰아간 연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태권도는 역설적이게도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경기 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루기는 발기술은 자유로운 편이나 손기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품새는 정해진 형식만 시연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종 격투기 경기가 그나마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범은 지속적으로 타 무술과 겨루어 보는 과정을 통해 태권도의 강함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연구하고 싶어 한다. **KA**





01

제47회 전국 소년체전 인천 태권도 대표 최종 선발전 열려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인천 태권도 대표 최종 선발전이 지난 3월 18일 선학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태권도협회는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충주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전에 출전할 35명의 명단을 확정 지었다. 남초부 8체급, 여초부 8체급, 남중부 11체급, 여중부 8체급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내 고장의 명예를 위해 4월부터 ‘금빛 발차기’를 위한 강화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47회 전국 소년체전 태권도 인천 대표는 다음과 같다.

글·사진 박종석

- 남초부 ▶ -34kg급 양원준(경서초), -38kg급 김서훈(갑룡초), -42kg급 신동우(갑룡초), -46kg급 김성훈(부개서초)
-50kg급 민정우(부개서초), -54kg급 나현중(부개서초), -58kg급 권혁진(청천초), +58kg급 임찬술(부개서초)
- 여초부 ▶ -33kg급 최서아(관교초), -36kg급 정수연(경서초), -39kg급 한효원(경서초), -42kg급 김나연(정각초)
-46kg급 고다은(해서초), -50kg급 추수아(해서초), -54kg급 김민지(안산초), +54kg급 최슬아(작전초)
- 남중부 ▶ -41kg급 김우솔(구월중), -45kg급 박현민(구월중), -49kg급 양원석(북인천남중), -53kg급 황지웅(계산중)
-57kg급 조정재(계산중), -61kg급 최인수(산곡남중), -65kg급 정지우(산곡남중), -69kg급 김현민(구월중)
-73kg급 전진성(북인천중), -77kg급 김준상(관교중), +77kg급 이준화(용현중)
- 여중부 ▶ -40kg급 박경령(정각중), -44kg급 한예인(북인천중), -48kg급 임소현(부일중), -53kg급 오정민(북인천중)
-58kg급 남유림(부일중), -63kg급 이은채(남인천여중), -68kg급 오승주(북인천중), +68kg급 홍가은(부일중)

02

선수들과 ‘밤의 전쟁’ 치르는 지도자들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10대로 확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해 비디오품이다. 특히 숙박업소 성인 비디오품의 유해성은 이미 심각성을 띠지 오래다. 대한태권도협회 등이 주최하는 초·중·고교 대회는 매달 2~3차례 정도 열린다.

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경기장 근처 숙소에 한 달전부터 예약에 들어간다. 경기장이 가까울수록, 주위에 좋은 식당이 있을수록 인기가 많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어렵사리 숙소를 구했어도 또 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숙소 내 성인 방송 때문이다.

이 대회 기간 참가 선수들 대부분 모텔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태권도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주변의 모텔들은 중·고교 학생 선수들로 시끌벅적하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숙소에서 선수들과 ‘밤의 전쟁(?)’을 치른다. 모텔들은 일반 손님을 상대로 성인 비디오품을 방영한다. 모텔을 숙소로 이용하는 중·고교 학생 선수들이 성인 방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다.

지도자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사춘기 선수들이 성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성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또한 성인방송 시청에 따른 경기력 저하다. 수면을 방해해 이튿날 선수들의 경기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도자들은 업주에게 성인방송 방영 중지를 요구한다. 하지만 일반 숙박객도 받아야 하는 업주 처지에선 영업상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 학생 선수를 관리해야 하는 지도자 입장에서선 답답하지만 할 뿐이다.

인천 이 모 코치는 “경기장 주변 모텔을 구하기도 힘든데다 학생선수를 위해 성인방송 중단을 요구하면 업주가 일반 손님 핑계로 거절한다”고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중학교 선수 아들을 둔 학부모 김 모씨는 “모텔에서 아들이 동료와 함께 성인방송을 봤다고 말해 놀랐다”며 “성인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생인 이 모 선수도 “성인방송 때문에 고고 일찍 자자는 동료하고 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역시 고등학생인 박 모 선수 역시 “성인방송 시청으로 밤잠을 설쳐 경기를 망친적도 있다. 또 경기장에서 동료들 간에 성인방송이 화제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인 비디오품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들은 선수들과 한 방에 기거하는 등 ‘밤의 전쟁’을 치른다.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회 기간 동안 대한태권도협회가 관계기간과 협조해 학생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글 박종석

03

울산광역시협회, 도장 활성화 지도자 교육 개최

울산광역시태권도협회(회장 차도철)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울산교육청 외솔 회의실에서 2018년도 제1차 도장 활성화 지도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차도철 회장은 “1년 중 태권도장이 가장 바쁜 시기라는 2월의 마지막 주말, 여러 지도자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먼 거리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와 준 감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또 “교육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본인과 도장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만큼 그 열매는 더욱 값질 성스럽다. 앞으로 더 많은 태권도 지도자들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황보선 대한태권도협회(KTA) 강사는 표준화한 교육 과정과 내용을 제시하며 “일선 도장의 경쟁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KTA가 앞장서서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문자 KTA 강사는 태권도 수련 속 성장과 변화의 요인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위해 상황별로 요약하며 설명함으로써 지도자들한테서 호응받았다. 역사 강사로 나온 서성원 태권박스 미디어 기자는 태권도장이 처한 현실과 정부 규제를 설명한 뒤 태권도인의 사전적 의미와 태권도 명칭의 유래를 소개해 지도자들의 소양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

글·사진 강정덕



04

충남협회, 2018년 제3차 승품·단 심사 열어

충청남도태권도협회(회장 나동식)는 지난 2월 25일 예산군 윤봉길체육관에서 2018년도 제3차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응시자 1,600여 명과 학부모 등 4,000여 명이 심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대하게 열었다. 이날 심사장에는 나동식 회장, 황선봉 예산군수, 양승조 국회의원, 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이 참석해 응시자들의 승품·단 심사를 격려했다. 나 회장은 인사말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윤봉길 열사를 기리는 체육관에서 국기원 승품·단 심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지정 품새는 응시자가 직접 추첨을 통해서 품새를 실시했다. 충남협회는 머리 보호대와 몸통 보호 장비를 테이블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등 응시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해 참가한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심사장 입구에 포토 존 설치와 품·단증 식별 현수막을 게시하여 지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협회는 회원 중심 무도 질서 확립의 해를 맞아 부정 품·단증 발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글·사진 김영근



05

2018 전남 종별 태권도대회 성대하게 열려

지난 3월 17일~18일 강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18년도 전국 소년체육대회 도 대표 선발전 및 2018년도 전남 종별 태권도대회가 열렸다. 대회 기간 중 제12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대회에 출전할 라이트 미들급 박주아에게는 격려금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글·사진 양희락

- 남초부 ▶ -34kg 김훈희(여수무선초), -38kg 강민준(보성별교초), -42kg 김병현(여수동백초), -46kg 김민욱(무안삼향초) -50kg 이동현(여수동백초), -54kg 조연진(영광초), -58kg 이동준(여수시전초), +58kg 염승균(보성초)
- 여초부 ▶ -33kg 박준영(여수동백초), -36kg 김향기(무안초), -39kg 임혜린(여수동백초), -42kg 김아연(무안해제초) -46kg 서지혜(보성조성초), -50kg 나채윤(무안삼향초), -54kg 이주은(여수동백초), +58kg 김슬아(여수동백초)
- 남중부 ▶ -41kg배재홍(영광중), -45kg 신주환(전남체중), -49kg 이슬(여수구봉중), -53kg 김현빈(여수구봉중) -57kg 나찬수(영광중), -61kg 배현수(목포유달중), -65kg 박범진(광양중동중), -69kg 김광운(광양중동중) -73kg 구준범(전남체중), -77kg 박찬희(전남체중)
- 여중부 ▶ -40kg 위은서(목포유달중), -44kg 조희영(보성여자중), -48kg 유은비(전남체중), -53kg 이연주(여수여자중) -58kg 김서연(전남체중), -63kg 장희정(목포유달중), -68kg 박지연(순천남산중), +68kg 차시현(영광여중)



서영철 관장(오른쪽)과 김향기.

2018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겨루기 | 2월 2~3일 | 제주 한라체육관

남자부

- ▲ -58kg = ① 장준(홍성고) ② 윤여준(천안중고) ③ 윤혁준(한국체대)
- ▲ -63kg = ① 조강민(한국체대) ② 김민혁(강화고) ③ 박지민(용인대)
- ▲ -68kg = ① 신동윤(삼성에스원) ② 서강은(인천체고) ③ 장영우(경찰무공화)
- ▲ -74kg = ① 김대용(한국체대) ② 이승구(경희대) ③ 이화준(성남시청)
- ▲ -80kg = ① 김지훈(충남대) ② 남궁환(한국체대) ③ 박우혁(강원체고)
- ▲ +73kg = ① 이승환(한국가스공사) ② 변길영(동아대) ③ 배윤민(한국체대)

여자부

- ▲ -46kg = ① 이예지(포항해공업고) ② 김보미(수성구청) ③ 최희정(국군체육부대)
- ▲ -49kg = ① 강보라(성주여고) ② 조혜진(영천시청) ③ 김소희(한국가스공사)
- ▲ -53kg = ① 임금별(한국체대) ② 김민정(한국가스공사) ③ 선영희(용인대)
- ▲ -57kg = ① 김민선(서울체고) ② 정은비(한국체대) ③ 임소라(수성구청)
- ▲ -67kg = ① 서소영(서울시청) ② 문지수(춘천시청) ③ 김휘랑(인천 동구청)
- ▲ +73kg = ① 이다빈(한국체대) ② 명미나(성문고) ③ 전소희(청주시청)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1월 29~30일 | 제주 한림체육관

남자 개인전

- ▲ 30세 이하 = ① 강완진(경희대) ② 김선호(용인대) ③ 박광호(한국체대), 천현호(한국체대)
- ▲ 40세 이하 = ① 김도경(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② 노민기(청지회) ③ 강재홍(제이칼리쿠), 송기성(고수회)
- ▲ 50세 이하 = ① 김학동(고수회) ② 이진한(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③ 김성희(태아일체), 황병선(고수회)
- ▲ 50세 초과 = ① 배용신(화랑체육관) ② 임병영(서면체육관) ③ 박성울(안민체육관), 박춘성(완주군태권도협회)

여자 개인전

- ▲ 30세 이하 = ① 김효민(부일전자디자인고) ② 심소미(오산고) ③ 곽여원(용인대-일반부), 최지은(경희대)
- ▲ 40세 이하 = ① 김은주(청지회) ② 김미현(한국체대중평태권도장) ③ 이해진(청지회)
- ▲ 50세 이하 = ① 김연부(국가대표참태권도장) ② 하인숙(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③ 김효숙(국가대표참태권도장), 정문자(광주광역시 스포츠클럽)

자유 품새 남자 개인전

- ① 나태주(K타이거즈) ② 한영훈(가천대) ③ 강완진(경희대), 박광호(한국체대)

자유 품새 여자 개인전

- ① 곽여원(용인대-일반부) ② 윤지혜(한국체대) ③ 최동아(문경여고), 장한별(흑룡태권도장)

2018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고등부-일반부)

겨루기 | 3월 16~23일 | 창녕 군민체육관

남고 1학년부

- ▲ 핀 급 = ① 성준영(강원사대부고) ② 원종원(울산스포츠과학고) ③ 오석훈(인평자동차고), 전주원(사우고)
- ▲ 플라이급 = ① 이경전(대전체고) ② 김시윤(포항영신고)

③ 박지찬(강북고), 배상수(경남체고)

- ▲ 밴 텀 급 = ① 박진서(한성고) ② 우경수(충남체고) ③ 최원석(풍생고), 변준호(광양고)
- ▲ 페 더 급 = ① 신성민(울산스포츠과학고) ② 진호준(안중고) ③ 홍주형(충북체고), 현성훈(풍생고)
- ▲ 라이트급 = ① 권도윤(홍성고) ② 김태경(풍무고) ③ 이상렬(울산스포츠과학고), 유시훈(광양고)
- ▲ 웰 터 급 = ① 조정원(동성고) ② 김정제(포항영신고) ③ 김우진(영광공업고), 김민석(경남체고)
- ▲ L-미들급 = ① 김민규(운천고) ② 황정욱(울산스포츠과학고) ③ 김현승(강원사대부고), 최훈식(경상공업고)
- ▲ 미 들 급 = ① 김용빈(대전체고) ② 송현근(천안제일고) ③ 곽재원(포항영신고), 유승민(마산구암고)
- ▲ L-헤비급 = ① 전성민(다사고) ② 안원준(영천고) ③ 이상빈(청주공업고), 홍석화(청주신흥고)
- ▲ 헤 비 급 = ① 김상현(운천고) ② 조윤환(한성고) ③ 김민준(다사고), 조지훈(천안상업고)

남고 2학년부

- ▲ 핀 급 = ① 윤준호(신정고) ② 나희준(풍생고) ③ 하선우(청주공업고), 유승민(전주영생고)
- ▲ 플라이급 = ① 윤정호(전북체고) ② 최준영(충북체고) ③ 이혁륜(영천고), 이주혁(금정고)
- ▲ 밴 텀 급 = ① 최희재(광주체고) ② 조재연(양산고) ③ 유재현(인천체고), 이재섭(포항영신고)
- ▲ 페 더 급 = ① 김동현(아름고) ② 김창근(한성고) ③ 이치호(울산스포츠과학고), 남민재(영천고)
- ▲ 라이트급 = ① 최원근(한성고) ② 최민철(연제고) ③ 안태환(아탑고), 권혁진(안중고)
- ▲ 웰 터 급 = ① 박수연(남녕고) ② 이호성(성안고) ③ 정연수(삼일고), 장지훈(대전체고)
- ▲ L-미들급 = ① 박재영(대전체육고) ② 주영진(선인고) ③ 문무겸(경주정보고), 정재훈(속지고)
- ▲ 미 들 급 = ① 최민수(마산구암고) ② 송훈(인천체고) ③ 최재원(상모고), 장준하(전북체고)
- ▲ L-헤비급 = ① 윤세진(청주공업고) ② 정상현(인천송천고) ③ 정우성(광주체고), 방정혁(충남체고)
- ▲ 헤 비 급 = ① 이영진(강북고) ② 유정원(대전고) ③ 최요셉(충남체고), 김동욱(경남체고)

남고 3학년부

- ▲ 핀 급 = ① 김근영(충북체고) ② 민태영(안중고) ③ 이호준(강북고), 이동욱(경상공업고)
- ▲ 플라이급 = ① 권차현(충남체고) ② 정영훈(첨단고) ③ 이종민(강원사대부고), 나민수(남녕고)
- ▲ 밴 텀 급 = ① 임현진(충남체고) ② 전지오(강원사대부고) ③ 박준민(관악고), 김성진(창원용호고)
- ▲ 페 더 급 = ① 유재현(이리고) ② 서원우(대전체고) ③ 김진기(대전관저고), 김강현(포항영신고)
- ▲ 라이트급 = ① 박상현(한성고) ② 정동우(첨단고) ③ 김영민(충북체고), 박태정(태성고)
- ▲ 웰 터 급 = ① 이명준(경상공업고) ② 원혁(광주체고) ③ 이재훈(신정고), 한건(전북체고)
- ▲ L-미들급 = ① 최승민(영천고) ② 임동준(충북체고) ③ 염경은(청주공업고), 노창범(금정고)
- ▲ 미 들 급 = ① 김지욱(광양고) ② 송석빈(선인고) ③ 김경민(청주공업고), 이현식(송곡고)
- ▲ L-헤비급 = ① 김운우(강북고) ② 서민석(양산고) ③ 이영대(서산고), 이혁재(창동고)
- ▲ 헤 비 급 = ① 유정환(삼일고) ② 유용민(서산고) ③ 김태민(전남체고), 김명준(대전체고)

여고 1학년부

- ▲ 핀 급 = ① 황예빈(강화여고) ② 박연진(효정고) ③ 이선주(대전체고), 이다경(사온고)
- ▲ 플라이급 = ① 정아정(연제고) ② 최민희(공주영명고) ③ 이주영(창동고), 유지영(의정부공업고)

- ▲ 밴 텀 급 = ① 김수민(광주체고) ② 구나연(전북체고) ③ 이예은(성문고), 유은진(시온고)
- ▲ 페 더 급 = ① 이예린(울산스포츠클럽고) ② 채종만(백석고) ③ 박민영(울산스포츠클럽고), 송나연(성문고)
- ▲ 라이트급 = ① 남민서(울산스포츠클럽고) ② 서탄야(대전체고) ③ 박패트리시아(소사고), 박성글(전북체고)
- ▲ 웰 터 급 = ① 이재희(전남체고) ② 윤소영(시온고) ③ 김선진(충남체고), 성연우(풍무고)
- ▲ L-미들급 = ① 김서원(시온고) ② 오은빈(문학정보고) ③ 최하영(광주체고), 신유정(부산체고)
- ▲ 미 들 급 = ① 진가연(성안고) ② 조은진(백석고) ③ 구예빈(선덕여고), 신지영(영남체고)
- ▲ 헤 비 급 = ① 정수진(전북체고) ② 강민아(홍익디자인고) ③ 김민경(충북체고), 장서인(울산스포츠클럽고)

여고 2학년부

- ▲ 핀 급 = ① 이다현(리리아트고) ② 조은별(강화여고) ③ 한지윤(충남체고), 이승희(시온고)
- ▲ 플라이급 = ① 윤지연(리리아트고) ② 구해인(인천체고) ③ 정서현(광주체고), 김은진(창원용호고)
- ▲ 밴 텀 급 = ① 최유리(부천정보산업고) ② 채민희(양주고) ③ 이예진(인천체고), 한수빈(울산스포츠클럽고)
- ▲ 페 더 급 = ① 이승연(수원정보과학고) ② 신승희(부천정보산업고) ③ 김서영(양주고), 최슬비(무원고)
- ▲ 라이트급 = ① 조민지(울산스포츠클럽고) ② 김유정(서울아이티고) ③ 김은경(계산여고), 양연재(운천고)
- ▲ 웰 터 급 = ① 양윤정(제주중앙여고) ② 임소영(국제고) ③ 금지혜(강화여고), 박정은(부천정보산업고)
- ▲ L-미들급 = ① 신예슬(창동고) ② 김가영(창동고) ③ 정희덕(무원고), 최민서(계산여고)
- ▲ 미 들 급 = ① 전혜진(금정여고) ② 채명선(홍익디자인고) ③ 배소윤(가정고), 김윤주(국제고)
- ▲ 헤 비 급 = ① 정경민(문학정보고) ② 김민(풍무고) ③ 김도연(창동고), 윤아름(금정여고)

여고 3학년부

- ▲ 핀 급 = ① 허다은(소사고) ② 권유진(충남체고) ③ 박하은(풍덕고), 임태희(영광고)
- ▲ 플라이급 = ① 김수연(풍무고) ② 정예진(효정고) ③ 황선주(창동고), 박귀현(경남체고)
- ▲ 밴 텀 급 = ① 차아현(삼일공업고) ② 신소희(창동고) ③ 이지연(문학정보고)
- ▲ 페 더 급 = ① 이예빈(포항해운공업고) ② 조미아(양주고) ③ 남주희(시온고), 권주혜(대전체고), 장다슬(대전체고)
- ▲ 라이트급 = ① 조세은(충남체고) ② 김소정(풍덕고) ③ 강영경(수원정보과학고), 최지우(목포고부설방송통신고)
- ▲ L-미들급 = ① 송선영(전북체고) ② 우지원(대전관저고) ③ 김서정(한림디자인고), 윤민정(완산여고)
- ▲ L-헤비급 = ① 정태희(한림디자인고) ② 우다빈(대구보건고) ③ 강수빈(대구보건고), 김지혜(양주고)

제13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품새 대회
1월 31 ~ 2월 2일 | 제주 한림체육관

남자 개인전

- ▲ 초등 중학년부 = ① 박성준(별내초) ② 유민혁(인천영종초) ③ 김현수(이도초), 조정민(안산대월초)
- ▲ 초등 5학년부 = ① 김태욱(오정초) ② 오승현(개신초) ③ 김민서(구영초), 김민재(오정초)
- ▲ 중등 1학년부 = ① 이창현(송도중) ② 김승훈(원일중) ③ 강민석(월산중), 권경렬(하안중)

- ▲ 중등 2학년부 = ① 추종우(송도중) ② 윤제욱(동양중) ③ 박세정(성리중), 송원섭(매탄중)
- ▲ 고등 1학년부 = ① 이근영(부산디지털고) ② 정한들(정발고) ③ 신영환(광영고), 홍성운(신천고)
- ▲ 고등 2학년부 = ① 서관우(매원고) ② 김규열(신길고) ③ 김성빈(신일비즈니스고), 김영학(신천고)
- ▲ 대학 1부 = ① 강민서(경희대) ② 천현호(한국체대) ③ 강완진(경희대), 임준혁(한국체대)
- ▲ 대학 2부 = ① 박광호(한국체대) ② 이승준(한국체대) ③ 서원우(경희대), 조영진(경희대)
- ▲ 금강 1부 = ① 이경중(가온누리) ② 김한성(청지회) ③ 신명수(계명태권스쿨체육관), 우성무(계명태권스쿨체육관)
- ▲ 태백 1부 = ① 고진석(고비원주태권도장) ② 최경환(사범단) ③ 정명규(남창), 황규정(태권아리랑)
- ▲ 지태 1-2부 = ① 김민상(고비원주태권도장) ② 박신준(고수회) ③ 허동훈(고수회), 민창하(태권아리랑)

여자 개인전

- ▲ 초등 중학년부 = ① 김예인(서울신정초) ② 서채원(대구성산초) ③ 김나현(신광초), 이루다(서울신정초)
- ▲ 초등 5학년부 = ① 이경은(인천영종초) ② 장소연(부구초) ③ 은정혜(동원초), 이소연(김해구지초)
- ▲ 중등 1학년부 = ① 김효주(월산중) ② 류아연(신정여자중) ③ 장가은(양구여자중), 황교은(철산중)
- ▲ 중등 2학년부 = ① 이다혜(경수중) ② 이서진(문경여중) ③ 김진양(무등중), 이채은(신현여중)
- ▲ 고등 1학년부 = ① 최수빈(신길고) ② 전연서(경원고) ③ 김지우(경기영상과학고), 정지민(금오여고)
- ▲ 고등 2학년부 = ① 최수영(상모고) ② 이효민(경원고) ③ 박예은(개성고), 유승민(상모고)
- ▲ 대학 1부 = ① 김지수(경희대) ② 윤지혜(한국체대) ③ 김경희(한국체대), 최서인(경희대)
- ▲ 대학 2부 = ① 박해진(경희대) ② 최지은(경희대) ③ 박민지(우석대), 박소정(한국체대)

페어전

- ▲ 초등 고학년부 = ① 신동주·신유경(21C한국태권도전문도장 A) ② 김태현·박정은(경희대성훈태권도 A) ③ 박정민·오승현(경희대성훈태권도 B), 이경은·정하은(태권아리랑 A)
- ▲ 중등부 = ① 강민석·김수지(사파체육관 A) ② 이수찬·이채은(백호태권도 A) ③ 김민지·강민규(라온제나태권도 A), 노연우·노종현(라온제나태권도 B)
- ▲ 고등부 = ① 한재현·신비한(청지회태권도장 A) ② 김정안·박민규(연세세계태권도장 A) ③ 박도원·차서영(은새미로태권도장 A), 지민경·김진성(계룡태권도장 A)
- ▲ 대학부 = ① 이경희·조정현(한국체대 B) ② 박지홍·정석호(우석대 A) ③ 김세환·배효진(계명대 A), 임준혁·이효철(한국체대 A)

남자 단체전

- ▲ 중등부 = ① 권경렬·박재형·전윤호(경희대석사비룡태권도장 A) ② 차재훈·송원섭·김승훈(코리아태권도체육관 A) ③ 박세정·신명섭·이승현(하늬바람태권도장 A), 진수민·전용준·민주영(태권아리랑 A) △
- ▲ 대학부 = ① 홍도균·이승준·강민성(한국체대 A) ② 박광호·송동철·임준규(한국체대 B) ③ 강민서·서원우·조영진(경희대 A), 최재원·지옥수·최윤기(우석대 A)

여자 단체전

- ▲ 대학부 = ① 김지수·최서인·박해진(경희대 A) ② 원문주·백유진·김하림(고신대 A) ③ 박미란·노혜민·민예은(계명대 A), 한현진·손다미·박민지(우석대 A)

최우수 지도자

민창하(태권아리랑), 양형수(코리아태권도체육관)

2018 04

SUNDAY	MONDAY	TUESDAY
1	2 제28회 용인대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전남 해남 4월 2일 ~	3
8 제28회 용인대총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전남 해남 ~4월 8일	9 2018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 튀니지 4월 9일 ~	10
15	16	17
22	23	24
29 제9회 상지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상지대학교 ~4월 29일	30 제18회 아시안 게임 겨루기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경기안산 4월 30일 ~	1 제18회 아시안 게임 겨루기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 경기안산 ~5월 1일
6	7 제15회 계명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계명대학교 ~5월 7일	8
13	14	15
20	21	22 제14회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올림픽공원 5월 22일 ~
27	28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충북 충주 ~5월 28일	29

2018 05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4	5	6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 태권도경기 튀니지 4월 6일 ~	7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유스 올림픽 태권도경기 튀니지 ~4월 7일
11 2018년도 전국 중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중등부 품새) 충남 예산 4월 11일 ~	12	13 2018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 튀니지 ~4월 13일	14
18 2018년도 전국 중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중등부 품새) 충남 예산 ~4월 19일	19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광주 4월 19일 ~	20 제3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광주 ~4월 20일	21 2018 전국 어린이 태권왕대회 강원 4월 21일 ~
25 제45회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 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및 제14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 연맹회장배 전국 품새대회 경남 김해 4월 25일 ~	26 2018 전국 어린이 태권왕대회 강원 ~4월 26일	27 제9회 상지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상지대학교 4월 27일 ~	28
2	3	4 제45회 한국 중고등학교태권도 연맹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및 제14회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 연맹회장배 전국 품새대회 경남 김해 ~5월 5일	5 제15회 계명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계명대학교 5월 5일 ~
9	10	11 제20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광주 5월 11일 ~	12
16	17	18 제20회 광주 5·18 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전국 남녀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광주 ~5월 18일	19
23 제14회 한국체육대학교총장배 전국 태권도대회 올림피아공원 ~5월 23일	24 제5회 아시아 태권도 품새 선수권대회 베트남 호치민 5월 24일	25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겨루기 선수권대회 베트남 호치민 5월 25일 ~	26 제23회 아시아 태권도 겨루기 선수권대회 베트남 호치민 ~5월 26일
30	31		제47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 충북 충주 5월 26일 ~



| 초급 |

	1	7		2		3		
4				9	5	2		
	5			7		8	9	
	6			5				2
	9	4		3		1	6	
8				6	7		3	
	3	5		4			2	
		8	9	1				5
		9		8		7	1	

| 중급 |

1				3		2		
		2				5		
4	3			1				9
		5	2					4
	4						8	
6				8		9		
9				5			3	8
		3				6		
		7		9			5	

스도쿠 푸는 법

- ① 가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② 세로줄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 ③ 작은 상자(3x3) 아홉 칸에 1에서 9까지 수가 한 번씩만 들어간다.

애독자 선물

『태권도』 스도쿠(SUDOKU) 퍼즐 정답을 엽서에 적어 보내 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명을 뽑아 **도복(아래 사진)**을 선물로 드립니다.

- ①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02-420-4271~3으로 연락해 당첨을 확인 바랍니다.
다음번 호에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 ② 전화 확인 후 상품이 발송됩니다.
발표 후 한 달 이내에 전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취소됩니다.
- ③ 상품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드리는 상품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101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 편집팀 앞.

